



4

1986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6. 4호

(루게 462)



◆◆◆◆◆◆◆◆◆◆ 차 례 ◆◆◆◆◆◆◆◆◆◆

축원의 마음	4
전사가 받은 한통의 편지	5
만경대 우물 (외 3 편)	17
평양사람들	17
영웅메달	17
대동강 능수버들	18
천하절경 만경대	18
고난의 백날	19
수령님 우리러 기뻐드리네	19
꽃계절	20
무궁한 세월의 그리움속에	21
기쁨 (외 1 편)	21
그 한마디	22
뜨락을 나서며	22
오, 인간의 힘이어	23
반일인민유격대창건의 위대한 서사시적화폭	24
영생하는 모습	30
예술영화 《평범한 사람》의 대사중에서	38
백양나무 설레인다	39

영원한 그 믿음속에	39
세월의 끝까지	40
강선의 출근길이어	41
용해공의 눈빛	41
그 웃음, 그 기쁨	41
쇠물노을	42
건설장의 주인	45
용해공과 사랑	51
출강의 종소리	53
용해공의 웃음	53
집에 대한 시	54
해동잡이	55
영광이 있으랴	62
미래에 사는 마음 (외 1 편)	63
탐구자의 마음	63
렬차우에서	64
덧	66
조국의 지도앞에서	71
새날의 첫걸음	71
배가 떠난다	72
남조선부르쵸아 반동시문학의 반인민성과 퇴폐상	73
건설의 나날	78
가장 가까이 (외 1 편)	78
추억	79
분노의 글발	80

축원의 마음

오재신

잘 익은 쇠물
시료에 불꽃이 튀는 순간
용해공의 눈빛에 타는 생각에서도
우리러 불타는 그 마음을 읽노라

용해장의 이 새벽
피어올린 그 쇠물빛이 노을로 피어
수령님 계신 창가에 비껴가기를
하여 수령님
기쁨속에 이 아침을 맞으시었으면

천길 지하막장
채탄기를 놓을줄 모르는 사람들
높뛰는 그 심장의 박동에서도
간절한 그 심정을 들노라

검은금 산악같이 쌓아올리고
이 아침 첫 보고 드리면
수령님 더없이 기뻐하시리니
그 만족한 미소로 하여
그이께서 더 젊어지셨으면

만풍년의 대지와 흥성이는 어장
이 땅 그 어디에나 그 마음 불타고있어
수령님 수고로이 현지지도 떠나시지 않았을가
오늘도 험한 길 건너나 앉으실가
일터마다 다시 한번 모시고싶은
그 마음 간절하여도
아, 언제나 그 마음에 앞서는 생각

나날이 흥겨워지는 일터여

꽃피는 생활이여
이 땅의 날과 달은 갈수록 더 좋건만
그날과 더불어 더더욱 간절해지는것,
그이께서 계신 창가에 흐르는 세월만은
더디 갔으면...
더디 갔으면...

아이들은 자라서 어른이 되고
이 머리에는 흰서리 내린다 해도
수령님, 수령님께서만은
우리 일터를 처음 찾아오셨던
그 마흔해전, 그 서른해전 그 모습으로
언제나 그렇게 계시었으면
아, 바라는 마음

그 마음 쇠물이 되어 끓고
그 마음 나락이 되어 익어가고
그마음
인민의 가슴속에
가장 큰 세기적속원으로 쌓이고 쌓이는것이거니

그 마음이 초와 초로 이어져
세월을 이루노라
크고작은 모든 일이 거기서 움터자라고
전변의 새 력사가 거기서 시작되노라

아, 간절한 마음 축원의 마음
꽃바다로 펼쳐져 온 나라에 설레이는 .
4 월의 이 아침
인민은 우리러 그 한마음 드리노라
수령님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노라

전사가 받은 한통의 편지

권정웅

숙연한 감정에 잠기어 화강암층계를 하나씩 밟으며 올라갔다.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앞에 꽃다발을 드리였다.

만수대! 그는 여기를 얼마나 그리워했던가. 바로 이 언덕에서 나서 자란 소위 최인국은 분계선 근방에서 군사복무를 하면서 오래동안 여기를 와 보지 못했다. 간혹 평양에 오는 기회가 있기는 했지만 그때마다 일이 바빠서 총총히 돌아가곤 했던 것이다.

오늘은 그의 일행이 새로 개관된 만수대혁명박물관 견학을 하게 되었다.

조국해방전쟁사적물 진렬실에 돌리였다.

직관물도 그렇고 하나하나의 사적물들이 모두 가슴을 들먹이게 하였다.

강사의 해설은 계속되고 앞에서도 뒤에서도 높은 숨소리가 들리였다.

그는 유리장안에 놓인 사적물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렬을 따라 움직이였다.

하다가 문득 《어?》 하는 소리를 질렀다. 그후 몇초동안에 벌어진 일을 그는 기억해낼수 없었다.

최인국이 정신을 가다듬었을무렵에는 이미 대렬은 다음방으로 옮겨가고 어느 한 강사가 《어째 그렇니까? 소위동지?》 하고 유리장우에 엮드린 그의 어깨를 흔들었다.

《아니,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 편지를 좀 보여줄수 없겠습니까?》

그는 목이 꼭 잠겨들어 겨우 말을 이어나갔다.

《저기 저 최인호라는 이름은 저의 친형입니다.

편지를 보내는 사람인 최성권은 저의 아버지구요. 저런 편지가 여기에 놓여있다는것은 정말 꿈같은 일입니다.》

그는 애써 흥분을 누르며 간청을 하는것이였다.

《그렇습니까?》

중년나이가 된 녀강사는 그에게 몇걸음 다가서며 반색을 하였다.

그는 어려서부터 이날까지 형이 어에서 어떻게 싸우다가 전사했다는것은 잘 알고있었다. 강사의 해설을 들어보아도 역시 그 정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도대체 이 편지가 어떻게 되어 여기에 오게 되겠습니까. 그걸 말해주시오.》

녀강사는 고개를 약간 가웃해보이면서 미소를 지었다.

《사적물이란것은 대체로 그 경로가 복잡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 수집되기때문에 그것을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항일혁명투사인 황명숙동지가 이 편지를 내놓았다는것만 알고있습니다.》

《항일혁명투사 황명숙동지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자세한것을 알자면 황명숙동지를 직접 만나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날 최인국은 황명숙을 찾아갔다.

환갑나이가 되였는데 아직 혈기가 왕성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계속하고있었다.

최인국이 용무를 말하자 그는 잠간동안 기다려달라고 하고는 몇군데 전화를 거는것이였다.

짐작컨대 바쁜 일들을 후날로 미루고 또 오늘에 정했던 면담자들에게 량해를 구하는것 같았다.

《소위동무! 참 반갑습니다.

아무때고 그 편지와 관련되는 사람들이 찾아오리라 짐작은 하고있었습니다.

그 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자면 한두마디로는 안되겠습니다.

그러니 만약 반대가 없다면 오후에 다시 만나 시간을 넉넉히 잡아가지고 이야기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인국은 그날 오후에 다시 그를 찾아가게 되였다.

《소위동무가 알고싶다는것을 내가 자세히 설명해주겠습니다.

그러나 원만하게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편지 한통에 너무나 큰 뜻이 담겨있기때문입니다. 그 경위는 이렇습니다.

새로 꾸린 만수대혁명박물관을 개관하기에 앞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박물관을 찾아주시였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사적물을 돌아보시였습니다. 조국해방전쟁사적물 진렬실에 이르신 그어께서는 그때 일을 여러가지 회상하시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말그대로 영웅적인민이라고 하시면서 그중에서도 여기에 전시한 영웅들이 특출하게 잘 싸웠다고 하시였습니다. 자애에 넘친 시선으로 영웅들의 초상을 하나하나 짚어나가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오? 여기에 최인호영웅이 있구만.> 하고 무척 감회깊어하시였습니다. <최인호! 참, 잘 싸웠습니다. 아마 그때 열일곱인가 났다고 했으니까 지금 살았으면 벌써 마흔가까이 됐겠습니다. 눈오는 삼석의 밤길이 생각납니다. 그때 아버지가 보낸 편지를 혹시 3군단장이 가지고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전사했을 때 그 편지를 보았다고

전화로 말한것 같습니다. 알아보시오. 편지는 사람들을 서로 잘 연결시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전선과 후방으로 오고간 편지들이 총포탄만 못지않게 우리에게 힘을 주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부관이 그의 집에서 가져온것과 같습니다. 그때 본 기억이 납니다.>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계속해서 말씀하시었습니다. <사적물을 잘 수집하고 귀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피물은 당원증, 갈기갈기 찢어진 군기들, 수백발의 총탄과 파편이 박힌 1,211고지의 나무 한그루, 편지 한통, 그것들이 많은것을 후대들에게 말해주게 됩니다. 역사책에 승리라고 단 한개의 단어로 표현하게 되는 거기에는 실로 수백수천만 인간의 운명이 집약되는것입니다.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것, 가장 간고하고 슬픈것, 그리고 가장 기쁘고 영예로운것이 다 그속에 있습니다.>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우리는 3군단장의 소지품을 모두 뒤지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염양에 넣고다니던 자그마한 수첩갈피에서 편지 한통을 찾아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 대해서 말하자니까 할수없이 그것을 가지고있던 류동무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야겠습니다.

류동무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고있습니다. 항일무장투쟁시기도 그렇고 해방후나 전쟁시기를 모두 같이 지냈습니다.

류동무는 전쟁이야기가 나오기만 하면 판에 박은듯이 늘 외우곤하는것이 몇가지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미제가 전쟁을 일으킨 그날 아침에 첫 군사위원회에서 하신 장군님의 말씀입니다.

<미국놈들이 우리 조선사람을 잘못 보았소. 되게 답새김시다.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임시다.>

확신에 넘치고 대담하고 결단성있게 울리던 그 말씀을 3년간의 전쟁시기, 어느 하루도 상기하지 않은 때가 없었고 그후에도 영원히 잊을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은 동무가 지금 알고싶다는 한통의 편지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 편지이야기도 가슴속에 깊이 사무쳤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아마 후퇴해갔다 돌아온 이듬해 겨울이니까 1951년인것 같습니다.

전선이 어느때보다도 긴장했었습니다.

평양에서 열렸던 고급군관회의에 참가하고온 류동무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들락날락했습니다.

나는 까닭을 물었습니다.

전선이 불안해 그러는가? 아니면 몸이 피로운가? 혹시 누가 잘못을 저질렀는가. 원래 성미가 급하고 참을성이 없는 그는 인차 자기 기분을 나타내군했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것입니다.

그래 내가 장군님께 어떤 심려라도 끼쳐드린것

이 아닌가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대답이 차라리 심려를 끼쳐드렸거나 어떤 꾸지람이라도 들었으면 이렇게까지 피로해지는 않겠다는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수십년 동안 장군님을 모시고 혁명을 해오면서도 장군님의 뜻을 그렇게도 이해하지 못하고있는 자신이 몹시 저주롭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돼서 시작된 편지 한통에 대한 이야기가그후 정전이 된 다음에도 자주 거듭되었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급군관회의가 며칠 계속되었는데 그 마지막 날오후라고 합니다.

회의를 지도하고계시던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회의를 결속하기에 앞서 제기할것들이 있으면 제기하라고 하셨습니다.

몇명의 지휘관들이 일어서서 몇가지를 제기하니 더이상 제기할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제3군단장 류동무에게 한가지 묻자고 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류동무는 이번에 토의된 전투 임무가 아름답지 않는가, 그 어떤 애로라도 없는가 물으실줄 알고 그에 대한 자기 결의를 보고드리려고 하였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 회의에서 토의된...> 하고 활달하게 첫머리를 떼자

<아니요, 그게 아니요.> 하고 급히 중단시키더랍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만면에 미소를 띠우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다른것이 아니라 이번 회의에 와서 동무는 회의가 끝나면 매일방 어데인가 갔다오곤했다는데 그것은 무엇때문입니까?>

<별일이 아닙니다. 거리구경을 한지가 오래서 거리에 나가군했습니다.>

<거리구경? 하긴 많이 달라졌소. 그러니 우리 군사지휘관들이 평양거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보게 되면 무엇인가 생각되는 점이 있을것입니다. 피땀을 흘려 5년동안 건설한것이 재더머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단장동무, 그렇다고 해서 매일밤마다 나가볼거야 없잖습니까?>

<최고사령관동지! 겹해서 간단한 개인용무가 한가지 있었습니다.>

<개인용무란말입니까? 하긴 자주 올라오지 못하니까 누구를 오래간만에 만날수도 있는거구, 또...>

이때 최고사령관동지의 표정에는 여태 담고계시던 웃음은 가듯 사라지고 약간 의아한 빛마저 떠오르는것이였습니다.

류동무의 성격으로 미루어보아 예나 지금이나 사사용무로 누구를 찾아다니거나 정황에 어울리지 않는 사찰사에 사로잡혔던 일이 한번도 없었기때문입니다.

<사람을 하나 찾자고 했었습니다.>

<사람을 찾는다, 그래 찾았습니까?>

<찾지 못했습니다.>

<찾지 못했다? 혹시 급한 일이라면 도움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없습니다. 편지를 한통 전해달라는 부탁입니다.>

<편지를?>

군단장이 편지를 전해야 할 사람을 찾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회의에 참가하기에 앞서 전선의 요충지대를 한바퀴 돌아보고있던 군단장은 무산줄기에 자리잡은 어느 한 중대에 들린 일이 있었습니다.

방금 전투를 한바탕 치르고난 전호속에는 화약내가 뽕얹게 떠돌았습니다.

군단장이 들어섰을 때는 여덟명의 전투원이 둘러앉아 물을 마시면서 잡담을 하고있었습니다.

<그래 뭘들 하고있소? 보아하니 고향이야기가 한창인것 같구만.>

군단장이 묻자 키가 꺾두룩한 함경도내기 전사가 일어서서 <앙입니다. 전투를 한 다음에 뽕수를 한바가지 마시는 재미가 세상 제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몇달전부터 고향애기 앙이 하기로 했습니다.>

<뽕수애기는 그럴듯한데 고향애기는 왜 안하기로 했소?>

<우리 꼬마가 속상해해서 싹 집어치우기로 했습니다.>

<꼬마가 속상해한다, 어째서.>

군단장은 좌우를 살피 그중 가장 나어린 전사 하나를 짚어 <동무가 그렇소?> 하고 물었습니다.

옆에 앉아 군단장을 말끄러미 쳐다보고있던 애송이전사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사연을 따져본즉 평양 중구역 장수리에 살고있던 아버지한테 입대해서 3번이나 편지를 했는데 매번 <주소불명>이라고 돌아왔다는것입니다.

그러니 입대해서 여직까지 6개월동안에 고향소식을 단 한번도 받아보지 못했다는것입니다.

군단장은 <당장 편지를 쓰오. 내가 직접 가져다주겠소. 아무리 전쟁관이라고 해도 그럴수는 없소.> 하고 의분을 터치며 집에 편지를 쓰라고 다그쳤습니다.

얼굴이 감실감실하고 아직 에티를 벗지 못한 꼬마전사는 어쩔줄 몰라했습니다. 한 30분동안에 무려 석장이나 쓴것을 받아가지고 회의에 올라왔습니다. 며칠동안 회의를 하는사이에 군단장은 밤마다 거리를 헤매었습니다.

처음에 찾아간곳은 편지 걸봉에 적힌 중구역 상수리 5반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저기 저 학생소년궁전 뒤동쪽된다고 합니다.

군단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전쟁을 겪으면서 별의별 험한 일을 다 보아온 그였지만 그렇게도 흔적없이 뒤집어놓은것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평양사람들은 다 잘 알고있지만 미국놈들은 이해 겨울에 주민지구에 대한 폭격을 매일 미친듯이 감행했습니다. 수십대의 중폭격기편대가 밤이고 낮이고 줄창 폭격을 들이댔던것입니다.

온 평양시가 이전 모습을 알아볼수 없이 되었습니다.

전사의 집은 약간 둔덕진곳이었다고 하는데 한 톨짜리 폭탄이 떨어져 웅덩이가 생겼고 물이 피었습니다.

그러주던 락도를 따라 인민반이나 리사무소를 찾아보았지만 그것도 허사였습니다.

군단장은 사태를 직접 목격하고야 비로소 세번이나 편지가 되돌아온 까닭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틀림없이 온 가족이 없어졌을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확인을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물러설수 있겠습니까.

다음날 군단장은 날이 밝을 때까지 상수리주민들이 소개해나갔다는 합장교 건너쪽 산턱을 헤매었습니다.

전재민들이 여기저기 빈틈없이 널려져있어서 찾을길이 없었습니다.

품을 놓고 줄을 캐면 전혀 불가능한것은 아니겠는데 날이 새면 곧 회의에 참가해야 하였기때문에 후날로 또 미루고 돌아서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다음에 며칠이라도 좋으니 통시안을 내서 찾아볼 결심이였습니다.

군단장으로부터 전사의 편지에 대한 경위를 자세히 들으신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입가에 미소를 지으시는것이였습니다.

군단장에게 어떤 풀기 어려운 격정거리가 있을것이라고 짐작하셨던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그런 표정이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 알겠소, 알겠소.>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시더니 지도가 놓인 작전탁두리를 왔다갔다하시였습니다.

그이의 이러한 몸가짐은 그 어떤 큰 전략적인 구상을 익히시거나 아니면 전당, 전국가적인 어떤 문제를 놓고 깊은 사색에 잠기실 때만 볼수 있는 그런것입니다. <반년동안에 편지가 세번이나 되돌아왔단말이지? 그래 그 전사의 사기는 어

떨습니까.>

군단장은 다시 일어나 자신있게 대답을 올렸습니다.

<그런 정도로 사기가 좌절될 전사가 아닙니다. 매우 똑똑하고 의지가 강합니다.>

<꼬마전사는 부모들이 어떻게 되었으리라고 짐작하고있습니까? 적들의 폭격에 의해서 이미 이 세상에 없을것이라고 단정한것이 아닙니까?>

<...>

<그런 일이 있었던말이지.>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단장이 대답을 망설이는것을 보시고 혼자말처럼 이렇게 되뇌이시는것이였습니다.

<사기는 좋고 설복은 했다. 그런데 전사들은 고향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하고...>

작전대두리를 두번이나 도신 그이께서는 언뜻 고개를 쳐드시였습니다.

<제2군단장동무! 동무네가 저 류동무네 린접인데 동무네한테는 대체로 후방에서 보내오는 편지가 며칠이면 전사들의 손에 들어갑니까.> 덜컥덕하고 의자를 울리며 2군단장이 일어나 대답했습니다.

<지방마다 차이가 좀씩 있기는 하지만 늦어서 열흘정도 걸리는것이 있습니다.>

<열흘! 하긴 전시조건에서 열흘이면 과히 늦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전투원 한사람당 몇통의 편지를 보냈고 몇통의 후방소식을 받았습니까? 평균쳐서.>

키가 우람차고 목청이 걸걸한 2군단장은 몇초 동안 생각해보고야 대답하였습니다.

<그런것에 관심을 돌리지 못하다나니 료해하지 못하고있습니다.>

<료해하지 못했다?>

그후에도 대화가 얼마간 계속되었습니다. 서부, 중부, 북부 등 전선을 하나하나 짚어나가시며 전시 통신정형을 료해하시였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실패는 모두 어긋비슷하였습니다.

회의가 끝난후 군단장 류동무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부름을 받고 그이의 집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상수리에 보내는 꼬마전사의 편지를 보여줄수 없겠소?>

군단장은 편지를 내놓았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편지를 집어드시고 앞뒤를 유심히 살피시는것이였습니다.

<중구역 상수리 5반 최성권아버님에게 드립니다.>

전선에 있는 아들 최인호 올림>

한자한자 뜯어 읽으신 그이께서는 편지를 책상 위에 놓더니 군단장을 쳐다보시였습니다.

<그래,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래일 하루 틈을 내서 꼭 찾아내겠습니다. 어제 대체로 방향을 알게 되었습니다. 삼석 도산리 근방에 갇을것이라고 합니다.>

<이걸 나한테 맡기시오.>

<이제는 시간이 걸리지 않고 찾을수 있습니다. 전사한테 군단장이 직접 약속한것만큼 제가 꼭...>

<그건 옳습니다. 그러나 군단장이 부탁받은것을 최고사령관이 지켰다고 해서 잘못될것은 없을것입니다.>

전사를 위한 일에서야 나나 동무나 다 같은 의무를 지고있겠습니까?

회의에서 토의된것도 지체시켜서는 안되겠고 또 동무에겐 다른 과업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류동무는 새 과업을 더 받고 최고사령부에서 즉시 떠나 전선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새 과업이란 다음과 같은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선과 후방에서 대체로 얼마동안에 한번씩 소식들을 교환하고있는가. 기일은 지방별로 얼마씩이나 걸리는가.

전시 우편통신을 위해 어떤 수송수단과 기재가 보장되는가 등등 그밖에도 전사들에게 편지쓸 종지와 필기도구는 어떻게 보장되고있는가, 우편함번호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후방에 알리는가 하는것이였다고 합니다.

류동무는 아호비령을 꿰질러 급히 달리는 차에 앉아서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손을 굳게 잡아주시며 간곡하게 하신 말씀을 줄곧 생각했다고 합니다.

<류동무! 동무나 나나 즉 군단장이나 최고사령관이나 모두 누구를 위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지휘관이기전에 먼저 총을 들고 싸우는 전사들의 총복입니다.>

다시말해서 전사들을 위한 전사입니다.

상급이기때문에 명령할수만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 명령에는 우리 인민들과 우리 혁명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하며 그들의 념원과 그들의 희망이 담겨있어야 하고 그들의 부모처자의 사랑이 깃들어있어야 합니다.

전쟁은 명령해서 승리하는것이 아니라 군대와 인민이 튼튼히 결합된 힘에 의해서 이기는것입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동무에게는 수만명의 병사들과 그의 가족, 친척들의 운명이 맡겨져있습니다.

동무가 하루나 이틀 걸리면 최인호의 부탁은 들어줄수 있겠지만 그밖의것은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무도 알고있지만 우리는 백두산에서 일제와

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행군하다가도 그 근방에 집이나 친척이 있는 유격대원들에게 집에 들러 부모나 처자를 만나보고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루밤 자고오라고도 하고 그것이 곤란하면 잠간동안이라도 들려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야 나는 류동무가 잠들지 못하는 까닭을 알수 있었습니다. 류동무는 그후도 이 이야기를 언제나 가슴깊이 새기고 살았습니다.>

황명숙은 재털이를 내놓으면서 소위에게 담배를 피우라고 권하더니 전화를 거는것이였다.

오고가는 말을 들으면 저편은 량수철이라는 중앙기관의 어느 국장인데 무릎관절이 심해서 온천 치료를 받고 돌아와 병원에서 출근해도 일없겠다는 진단을 기다린다고 하였다.

《소위동무!》 하고 황명숙은 최인국에게 말하였다.

《그후 전사에게 보내는 편지이야기는 그때 최고사령관동지의 부관으로 있던 량동무한테 들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곧 여기로 올것입니다.》

《아니, 제가 가겠습니다.》

《일없습니다. 동무때문에 일부러 오는것은 아니고 오늘 우리는 서로 만나게 되어있었습니다.》

최인국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대답하는것이였다.

담배를 집어들었지만 최인국은 불을 달지 못하였다.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가렬치절한 전쟁의 정황속에서 한 전사가 보내는 한통의 편지란 실로 우주에 비끼 하나의 티끌만도 못한 존재일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비끼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의 크기관 참으로 우주를 통채로 담고도 남음이 있을 그런 용적의것이다.

《지금까지는말입니다.》

황명숙이 말을 하였다.

《소위동무의 형이 보냈다는 편지이야기를 대충했는데 이번에는 동무의 아버지가 전선에 있는 아들에게 보낸 편지이야기를 듣게 될것입니다.》

《웁습니다. 저도 그것을 물어보자고 하던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맨처음 거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문기척소리가 났다.

황명숙은 급히 나들문쪽으로 다가갔다. 문이 열리더니 머리가 벗어진데다가 키가 큰 풍채좋은 사나이가 나타났다.

그는 우정 마루를 구르며 걸음을 떼었다.

《다 나왔구만요. 》

《보시다싶이 이제는 축구도 할수 있습니다. 이

제 걸린건 딱 하나 오십이 넘었다는 나이뿐입니다.》

《그것도 치료하는 방법이 있지요. 진단을 해보면 압니다.》

《로쇠병이라고 보는거지요?》

이런 식으로 그들은 십년가까운 나이차이가 완전히 무시되고 즐겁게 룡을 주고받는것이였다.

얼마간 그렇게 시간을 보내더니 곧 량수철이 소위를 향해 돌아앉는것이였다.

《동무가 최인호형웅의 친동생입니까?》

《그렇습니다.》

최인국은 자리에서 일어나 군대식으로 경례를 하는것이였다.

《쉬엇하시오.》

그는 익살이 이만저만이 아니여서 손을 들어 인사를 받으며 구령을 주었다.

《소위동무! 전쟁때 몇살이였나?》

《전쟁이 일어나는 해에 두살이였습니다.》

《웁소, 그때 짜개바지를 입은걸 봤으니까. 전쟁때 일이 생각나나?》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테지.》

그는 담배를 붙여물고 아득한 옛일을 불러올양으로 단풍나무가 내다보이는 창밖에 시선을 던지였다.

《그러니 지금으로부터 20년전 이야기요. 나는 그때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시고 매일밤 전선으로 후방으로 나다니였습니다. 지금도 명확히 기억되는것은 바로 그날 함박눈이 내리였습니다.》

그전날에는 강동쪽으로 나가셨다가 돌아오는길에 최인호네 집을 밤 12시가 넘도록 찾았는데 종시 찾아내지 못하고말았습니다.

전쟁이 한창때니까 자주 이사를 하게 되고 또 산기슭에 올망졸망 판자집과 반토굴이 들어앉아 있었으니까.

그래 내가 <최고사령관동지 ! 안전기관에 지시해서 찾도록 하는것이 어떻습니까?> 하고 말씀올리니 <그렇게 남을 시켜서 편지나 전할바에야 우리가 무엇때문에 밤길을 걷겠소.>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인차 자기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최고사령관동지에서 눈내리는 밤길에서 고생하시는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했을뿐이지 이 걸음에 그 어떤 뜻이 깃들어있으리라는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고작해서 한 군단장과의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려는줄로만 알고있었던것입니다.

하긴 지금 생각하면 나의 그때 생각이 너무나 소박했고 단순했던것입니다.

동무네가 살고있던 그 반토굴집까지 가자면 큰 길에서 한 5리 들어가 차를 세우고 발목을 지나 오불꼬불한 언덕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눈이 발목까지 빠지고 몹시 미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지목한 반토굴집에는 불이 켜져있었습니다.

<됐구나!> 하고 나는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 제가 먼저 가서 알리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무엇때문에 그렇게 하겠소. 직발 만남시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벌써 문앞에 다가서시며
<주인님 계십니까?> 하고 부르시는것이었습니다.

방안에서 <네 ! 누구시오.> 하는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시간이 갔는데도 방안에서는 인기척만 있을뿐 좀체로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좀더 크게 <주인님 계십니까?> 하고 부르며 손을 뻗쳐 문고리를 당기려고 하자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기다립시다.> 하고 나직이 만류하시는것이었습니다.

<누구시오. 들어오시오.> 아까와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또 얼마간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인이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렸던것입니다.

보통 이쯤하면 낯선 손님으로 알고 의례히 문을 열어잡고 손님을 맞는것이 상례인데 무슨 사정이 있을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시간이 또 얼마간 지난 다음에 나는 <이 집이 최성권이네 집이 옳습니까? 저 평천리 주물공장에 다니다가 온...> 하고 소리쳤습니다.

<예! 옳습니다. 들어오라는데요.>

불빛을 받은 창호지에는 매우 느리게 움직이는 사나이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나는 더 기다리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방 한가운데는 보통키의 사나이가 문턱로 손을 뻗치고 서있다가 자리를 비키며 앉으라고 권하는것이었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먼저 방안에 들어서신 다음에 나는 집주인 최성권이 앉은 옆에 서있었습니다.

주인은 아무 인사말도 없이 두릿두릿 좌우를 살펴보며 말하는것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처음 오시는분들같은데 누구들이신지요.>

나는 이때 의아한 생각이 들어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전기불이 환한데서 장군님을 몰라보다니, 조선사람치고 장군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때가 때니만치 별의별 경우를 다 예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급히 <주인님, 미처 알려드리지 못해서...> 하고 말을 떼자 장군님께서 <가만 좀 있소.> 하고 만류하시는것이었습니다.

그이께서는 모든것을 벌써 아시었던것 같습니다.

그래 나는 말을 돌려 <주인님이 최인호의 아버지 최성권이냐 옳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네 ! 옳습니다.>

그때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저희들은 전선에 있는 최인호동무의 부락을 받고 왔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것이었습니다.

<우리 인호말입니까?>

<네 !>

집주인은 처음에 어깨를 으스러뜨리며 꿈쩍 놀라는것 같더니 다음순간 머리를 모로 약간 돌면서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는것 같았습니다.

그 동작은 매우 어색했습니다.

<그러니 손님들은 사민이 아니고 우리 인호한테서 온 군대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되자 그 어떤 비정상적인것에 대한 나의 판단은 확고한것으로 되었습니다.

방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안쪽벽에 장군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었습니다.

<최인호동무가 집소식을 몰라 궁금해하기에 안부를 전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이때 내가 겪고있는 그런 복잡한 심정과는 전혀 관계없는듯이 그저 평범하고 자연스럽게 용건을 말씀하시는것이었습니다.

집주인은 <안부를 전하려고요?> 하고 반문하면서 장군님께서 앉아계시는쪽으로 조심스럽게 귀를 돌려대는것이었습니다.

그런후에 그는 무릎을 꿇고 자리를 고쳐앉으며 <아 ! 내가 지금 꿈을 꾸는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두손을 앞으로 퍼드는것이었습니다.

<이 방안에서 어떻게 김일성장군님의 음성이 울립니까? 네? 어찌된 일입니까.>

앞으로 내든 주인의 손과 목소리가 동시에 떨렸습니다.

<나는 눈이 보이지 않아 누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네 ! 어서 말씀해주시오.>

<네 ! 눈이?>

나는 심분 그럴수 있으리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외톨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공간을 더듬고있는 최성권의 손을 붙잡고 한걸음 그에게로 다가앉으시는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이 집에 친히 가정방문을 오시었습니다.>

내가 알리는 말을 들었는지못들었는지 최성권은 실신한 사람처럼 장군님의 두손을 자기 가슴에 힘있게 가져다대더니 우들우들 몸을 떨면서 무어라고 알아들을수 없는 말을 연방 하는것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울고있었습니다.
너무나 뜻밖이고 너무나 감격해서 그런것입니다.

나는 이날이때까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별의별 일을 다 체험하였자만 이날처럼 그렇게 놀랍고 그렇게 눈물겨운 일을 당해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거짓말 없이 정말 한시간동안이나 동무의 아버지는 말을 못했습니다.

초점을 잃고 움직이지 못하는 멍청해진 그 눈에서 실재없이 눈물이 흐르고 입술은 씹혀 피가 번졌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간 뒤에 인호동무 아버지는 자기 행동이 정중하지 못하다는것을 깨달았음인지 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옷매무시를 바로잡더니 큰절을 올리려고 일어섰습니다.

<뒤늦기는 했지만 장군님 ! 저의 인사를 받아 주십시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린 이미 인사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또 인사를 하는것으로 말하면 손님이 주인에게 먼저 해야 도리에 맞습니다. 이렇지 마십시오.>

최성권의 손을 잡아 굳이 자리에 앉히신 장군님께서서는 담배를 꺼내 권하시면서 제편에서 흥분이 가라앉기를 기다리시었습니다.

장군님께서 권하시는데로 담배를 붙이기는 했지만 빨지는 못하면서 앞을 못보는 사연부터 말하는것이었습니다.

석달전, 그러니까 그해 여름이라고 합니다.

밥가마를 만드는 주물직장에서 일하고있는데 미국놈 비행기가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하였는데 눈이 보이지 않더랍니다.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파편을 몸에서 9개나 뽑아냈는데 생명이 구원된것만해도 천만다행이라고 하면서 두 눈알이 다 쏟아진것을 되밀어넣었기 때문에 잘하면 얼마간 볼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결막염에는 천연하지만 영원히 실명하게 된다고했다는것입니다.

인호 어머니는 옆집에 끼니를 부탁하고 이틀전에 강서 친정에 약을 구하러 가고 세살짜리 막내의 손에 끌리어 마당출입이나 겨우 한다고 했습니다.

인호 아버지의 손을 붙잡은채 끝까지 그의 말을 다 들으신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진숨을 후내쉬면서 고개를 드시었는데 그이의 눈굽에 물기가 어려있는것을 확연히 볼수 있었습니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이의 음성은 갈리시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치료를 잘해야겠습니다.>

<장군님 ! 넘려 마십시오.

이 전쟁통에 눈이나 못보게 된것이 무슨 큰일

이겠습니까.

전선에서는 성성한 젊은이들이 매일 피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장군님의 심려야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저같은것때문에 마음을 쓰시지 말아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내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살아서 미국놈망하는걸 보고야말겠습니다. 그래서 내 요 일마전부터 노끈을 꼬고있습니다.

전선에 보내는 바줄을 만듭니다.

그런데 장군님 ! 어떻게 해서 우리 인호의 안부를 가지고 장군님께서 직접 이렇게 어려운 결음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저는 암만해도 리해가 가지 않습니다.

글쎄 우리 만아이 인호란 애가 군대에 가겠다고 작년부터 동원부에 들락날락했습니다.

나이가 두살이나 모자라 매번 퇴짜를 놓더라는것입니다.

그러다가 자난 봄때 나이를 한살 더 먹더니 전선으로 나가는 군대를 따라 훌쩍 가버렸습니다.

열흘만에 인편에 기별을 보내왔는데 나이를 속이고 끝내 입대를 했다는거지요. 원산쪽으로 갔는데 후에 편지를 하겠다고 하구선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하기야 이 복새통에 편지인들 어떻게 할새가 있으며 또 놈들 성화에 세네번 이사를 하다보니 편지가 어떻게 와닿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하고있는중입니다.>

<알만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호의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나에게 최인호의 편지를 꺼내라고 하시었습니다.

편지를 내드리자 그이께서는 인호 아버지의 손에 쥐여주면서 자초지종을 말씀하시는데였습니다.

인호 아버지는 손에 잡힌 편지를 이리저리 번지기도 하고 또 빙빙 돌려가며 만져보기도 하는것이었습니다.

손끝에 미치는 감각으로 아들을 만져보려는것 같았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바에는 그 편지를 우리 함께 읽어보는것이 어떻습니까?>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아들에 대한 애착이 온몸에서 풍겨오는것을 인차 감축하고 이렇게 물으시는것이었습니다.

<그게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장군님께서 어찌 그런 수고까지 하시겠습니까. 같이 오신분이 읽으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내가 있는쪽으로 편지를 돌려놓는데였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편지를 집으시면서 <제가 잘 읽을수 있습니다.> 하고 웃으시며 봉투를 떼시었습니다.

<부친님께 드립니다.>

고요한 방안에 장군님의 목소리가 울리고 인호 아버지의 높은 숨소리가 그뒀을 따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인사를 올립니다.

내 동생 인옥이와 인국이는 잘 있습니까.

나는 지금 이 편지를 강원도에 있는 무산줄기의 맨 끝봉우리에서 쓰고있습니다.

방금 미국놈들과 싸움을 했기때문에 전호안에는 뽕얇게 연기가 서리고 머리우에서는 푸실푸실 흙이 떨어집니다.

그동안 저는 세번이나 편지를 했는데 매번 집을 찾지 못하고 되돌아왔습니다.

이 편지는 틀림없이 가닿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단장동지가 직접 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억하건대 편지는 이러루하게 시작된것 같습니다

그 편지는 사적물로 보존되어있을테니까 필요하다면 다시 읽어보면 알수 있습니다.

다만 내 머리에서 지금도 지워지지 않는 몇개 구절이 있는데 그것을 생각만해도 가슴이 저립니다.

<한달전에 내가 미국놈을 두놈 잡았습니다. 전투가 끝난 다음에 내 총에 맞아 튼진 그놈을 찬찬히 봤습니다.

나보다 키가 두뿔이나 큼니다.

네놈들이 우리를 먹어보려고 바다를 건너왔지 하고 대갈통을 군화발로 탁 찼습니다.

이쫘하고 모두 도망가는것이 어때? 아니면 마지막 한놈까지 모두 네모양으로 만들어줄테다.>

다음은 이런 구절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 어머니 ! 부디 몸성히 계십시오. 이제 내 꼭 승리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내 가슴에 가득한 혼장을 만져보며 (내 아들아, 용타!) 하고 칭찬 한마디 해주십시오.

마지막 부탁은 내가 배우던 교과서와 학습장을 잘 전사해주시십시오.

전쟁이 끝나면 다시 학교에 가야겠으니까요.

또 하나는 옆집 만길이가 군대에 가했다면 체중을 달 때 뺄뺄에 주머니를 달고 돌맹이를 뒤개 째 넣으라고 하세요.

그럼 허양 세키로는 더 나갑니다.

지금 나한테 제일 큰 애로는 행군할 때 총가목이 발뒤꿈치에 자꾸 부딪치는것입니다.

그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밥을 자주 굼는데 그것은 밥이 없어서가 아니라 먹을새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나는 주먹밥을 씹으면서 편지를 쓰고있습니다.>

편지를 다 읽으신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인차 고개를 들지 않고 한동안 무엇을 생각하는것 같으시였습니다.

인호 아버지는 낮에 웃음을 지으면서 <장군님!

>하고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말을 잇는것이였습니다

<제 보기엔 녀석이 사내답지 못한데 어떻습니까.

대장부라면 (나는 잘 있습니다. 안녕히들 계십시오.) 그저면 단테 이견 무슨 사실과 잔근심이 많단말입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이께서는 강하게 부인하시였습니다.

<짤막한 글에서 자기 심정을 잘 나타내었습니다.

난 오늘 전사가 보낸 한장의 편지를 통해서 수십만 우리 군대의 목소리를 듣는것 같습니다.

맑고 깨끗하고 굳은 하나의 구슬알을 보는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의해서 승리가 담보되고있겠습니까.

그것은 인호처럼 목적과 방법이 뚜렷한 우리 인민의 의지입니다.

전선에 있는 최인호가 말한대로입니다.

아버지가 회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기운이 솟고 힘이 생기는 이야기를 적어보내야겠습니다.>

<회답을 꼭 하겠습니다.

회답을 안하면 또 이런 편지를 보내올게 아니겠습니까.>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담배를 붙여무시였습니다.

흰연기가 실날같이 피여오르면서 머리칼이 몇오리 드리운 그이의 이마전을 스치면서 방안을 흘렀습니다.

그이의 시선은 방바닥에 놓인 편지에서부터 앞을 못보는 인호 아버지의 근엄한 얼굴로, 그다음은 껌짝 하나와 옷보따리 한두개가 놓인 방구석에서 풍지가 펴고있는 창문으로 천천히 옮겨갔습니다.

그이를 가까이 모신 나는 이런 때 그분께서 무엇을 생각하고계신다는것을 대개 짐작을 할수 있었습니다.

말그대로 이 밤 이 시각에도 이 나라의 고지들에서, 벌판 또는 거리와 마을에서 적과 판가름하는 가렬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있는것입니다.

그리고 수백수천으로 헤아릴수 없는 크고작은 일들, 당파 국가사업이 그이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셔야 할데도 많고 만나셔야 할 사람도 또한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이께서는 한 전사가 보낸 소식과 그의 앞모 보는 아버지와 마주앉으시여 사담에 열중하고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잠시 사색에 잠기시었는데 과연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계실까.

천천히 담배 한대를 태우시는동안 전선동부의

어느 대포위작전을 구상하시는것인가.

아니면 전지 인민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뚫으시는것일가.

그것도 아니라면 다른 어느날과 마찬가지로 이 밤을 밝히시며 집무실에서 처리하셔야 할 일에 대해서 생각하시는것일가.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이 집에서 모셔야 했던 용무는 이것으로 끝난셈이었습니다. 직무상 나의 의무는 그이의 시간을 최대한으로 아끼도록 신변을 보살피는것이였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 이만하고 돌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총참모장을 만나도록 하신것이 11시입니다. 이제 곧 떠나셔야 시간이…>

<아니요 ! >

그이께서는 즉석에서 부정하시였습니다.

<난 아직 용무가 끝나지 않았소. 전선에 있는 아들이 집에 소식을 전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못지않게 중요한것은,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것은 집소식을 아들이 알게 하는것입니다.>

총을 잡고 서있는 아들이 편지를 받게 하는것입니다.

인호 아버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인호에게 회답을 합시다.>

<장군님! 꼭 회답을 하겠습니까.>

그걸 제가 어찌 어기겠습니까.>

<기왕 시작한 길에 시름을 놓읍시다. 아들한테 전할 말을 하시오. 내가 받아적겠습니다.>

<그렇게까지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래일쯤 제 어미가 오면 회답을 적어보내게 하겠습니까.

장군님의 바쁘신 걸음을 너무 지체시켜서 참말 죄송합니다.

저는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럼니까. 내가 못할 일을 했거나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는것이 아닙니까.>

최고사령관이 전사에게 편지를 한장 쓴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큰일이겠습니까.

응당한것을 하는거지요.

난 늘 생각합니다.

명령서나 문건을 내려보낼 때마다 단 한마디의 위안이나 격려의 말이라도 내 손으로 직접 써서 싸우는 매개 전투원들에게 보낼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고말입니다.

요행 오늘 기회가 생겼으니 내 한장 대필을 하겠습니까.>

일이 이렇게까지 번져가자 인호 아버지도 더는 사양을 못하고말았습니다.

편지와와 봉투를 내놓자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만년필을 뽑아드시였습니다.

<자! 그럼 뭐라고 쓸가요. 허두에 우선.>

그이께서는 절절 웃으면서 재촉하시였습니다.

<뭐 별것이 있겠습니까. 편지에 문안이라고 그

새 잘 있었는가고 문안하고 여기는 모두 잘 있으니 안심하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 일도 없이 무사하다고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을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을 밝힌단말입니까?>

<집도 폭격에 없어지고 공장도 불타고 또 아버지는…>

<아! 장군님!>

인호의 아버지는 전류에 닿은것처럼 와들 놀라 앞으로 폭 몸을 숙이면서 장군님의 손을 더듬어 잡는것이였습니다.

<장군님, 그건 그렇게 하면> 말소리는 떨리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가 집걱정을 하게 될것입니다. 부탁입니다.>

집에서는 다 잘 있다고 해주십시오.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남의 물건을 훔친것이나 다름바 없다고 했지만 나이 50가까이 살고보니 거짓말도 필요할 때가 있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장군님, 부탁드립니다.

총을 잡은 우리 애가 집걱정때문에 마음이 쏠려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인호 아버지 심정을 알수 있습니다. 아들에게 가슴아픈 소식을 알리지 말자는 심정을 이해할수 있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만년필을 종이우에 놓고 고개를 드시였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혹시 있을수 있습니다.>

가령 이전에 우리 항일혁명투사들이나 지하공작원이 적들에게 체포되어 고문을 받게 되었을 때 조직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아는것도 모른다고 하고 본것도 못보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벌써 혁명의 리익을 위해서 한 것이기때문에 거짓말로 된것이 아니라 혁명적지조를 지킨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에게 원쑤들에게서 당하고있는 고통을 감추는것은 이것과 전혀 사정이 다릅니다.

그것은 인정도 아니며 그 어떤 부자간의 의리도 아닙니다.

사실대로 말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쏠려가지 않고 총을 든 손도 떨리지 않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상의의 목단추 하나를 더놓으시더니 말씀을 계속하시는것이였습니다.

<나는 최고사령관으로서 전체 인민군 군인들과 우리 인민앞에 우리 인민이 이 전쟁에서 당하고있는 고통을 숨기지 않습니다. 모두 그대로 말해줍니다.>

미제야수들이 거리와 마을을 불태우고있으며 어린이와 아낙네들, 로인들을 학살하고있다는것

을 숨기지 않습니다.

놈들은 평화적주민들을 생매장하고 너인의 배를 가르며 땅크로 어린이들을 깔았습니다. 병원과 학교에 폭탄을 던집니다.

말그대로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우리의 온 강토에는 피가 질벅히 흐르고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부모형제에게 알려주지 않고 숨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말씀하셨을 때 인호 아버지는 너무나 아연해져서 입을 반쯤 벌리고 몸을 떨었습니다. 말씀은 계속되었습니다.

<최고사령관인 나는 이것을 사실 그대로 알려주고 복수전에 나서라고 호소하고있습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부모, 형제, 처자를 지키기 위해서 일떠섰습니다.

침략자 미제를 치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수 없고 행복한 생활을 준 우리 제도와 우리 조국을 지켜낼수 없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있기에 우리 청년들이 적의 화구에 가슴을 들이대는것입니다.

전선에 있는 최인호가 집이 불타고 공장이 깨지고 아버지가 폭격에 앞을 못보게 되었다는것을 알게 되면 더 잘 싸우겠습니까 아니면 주저앉겠습니까...>

<장군님 ! 장군님 ! >

인호 아버지는 한걸음 나왔어 두손을 들어올리며 목메어 부르짖는것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의 생각이 짧았습니다.

우리 인호는 이기지 않고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명세를 다지고 떠났습니다.

집사정을 알면 이를 사려물고 더 잘 싸울것입니다.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겨도 싸울것입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어깨를 들먹이며 잠시동안 숨을 몰아쉬던 인호 아버지는 <장군님 !> 하고 고개를 숙이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더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것이였지만 좀체로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몇번 입술이 이죽이죽하더니 끝내 신음소리 비슷한 말을 하였습니다.

<장군님, 그 편지에 한마디 더 적어넣어주십시오. 인호의 동생 인옥이가 폭격에 죽었다고 해주세요.

14살짜리 중학교 1학년 계집애인데 학교에 직탄이 떨어져 시체도 못찾았습니다. 이제는 3남매 가운데서 여기서 자는 이 아이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는 옆에 누워 잠자고있는 사내아이를 가리키는것이였습니다.

이제보니 그 아이가 바로 오늘의 소위동무였던것 같습니다.

인호 아버지는 눈굽을 훔치며 다시 계속했습니다.

<제가 진작 이 말씀도 올려야 하는것인데 그것까지 아시게 되면 장군님께서 너무 가슴이 아프셔서 오늘 밤잠을 이루지 못하실것 같아 숨겼었습니다.>

그는 코물을 훌쩍 들이마시면서 북받쳐오르는 오열을 누르고있었습니다.

방안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여 동의를 표시하고 계속해서 편지를 쓰시였습니다.

편지를 끝낸후에 그이께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꼭 한번 읽어주고 봉투에 넣으시였습니다.

인호 아버지는 자기 속마음까지 그대로 적어 가슴이 후련하다고 하고는 더는 말이 없었습니다.

자정이 지나 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시고 그 집을 나섰습니다.

<편지를 부치고 갑시다.>

한길에 나서자 그이께서 말씀하시였습니다.

나는 편지의 중요성으로 보아 <기통>으로 보는데것이 어떻겠는가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일반 우편으로 가야 합니다.>

나는 길을 두번이나 물어서 마을에 있는 우편함을 찾아넣었습니다.

차는 밤길을 달리였습니다.

꾸르릉, 꾸르릉 폭격하는 소리가 들리였고 머리에 조명탄이 걸려있었습니다.

흔들리는 차에 몸을 맡긴 그이께서는 한동안 말씀이 없다가 저에게 물으시였습니다.

<아까 인호 아버지는 내가 밤잠을 이룰수 없을가봐 처녀아이가 폭격에 죽은것을 말하지 않았다고 했지?>

<그렇습니다.>

<누워자던 아이가 몇살이라고 했던가.>

<세살이라고 했습니다.>

<세살... 담배 한대 더 주오.>

<지금까지 석대를 련달아 피우시였습니다.>

<한대 더 주오.>

이날밤 그이께서는 날이 썰 때까지 집무실에서 일을 보시였습니다. 나는 온밤 불이 내비치는 창문을 통해서 전쟁이란 참으로 얼마나 준엄한것이며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깊고깊은 감정의 밑바닥을 훑어내는가를 읽을수 있었습니다.

대체로 편지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기왕 말이 난김에 그후 이야기를 마저 해야겠습니다.>

×

《그 여름날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예정했던대로 회의를 소집하시였습니다.

참모부성원들과 내각의 일부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고급군관회의를 끝내는 날 저녁 전 시우편통신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포치한 몇건

의 보고가 청취되었습니다. 명령서가 채택되었습니다.

명령서에는 전시 우편, 통신, 그중에서도 전선에서 후방으로 오가는 편지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할데 대한것이 강조되고 그것을 위해 군부대들에서 가능한 수송수단을 우선적으로 동원할것, 그리고그 사업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무력을 배치할것이 지적되어있었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회의를 끝마치시면서 이렇게 강조하시였습니다.

<포탄보다 전사한테 가는 편지를 먼저 통과시키라고 모든 초소에 알리시오.

그리고 모든 군인들은 후방에 있는 가족, 친척들에게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편지를 내라고 하시오.>

그이튿날부터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전투보고와 함께 우편통신정형에 대한 보고를 매일 청취하시였습니다.

특히 3군단장한테서는 최인호에게 아버지편지가 가닿았는가 꼭꼭 알아보군하시였습니다.

군단장은 매일 잊지 않고 그에 대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나는 그이를 모시고 밤길을 달리고있었습니다.

<광동무!> 하고 그이께서 부르시였습니다.

<최인호가 편지를 받았소. 만 6일만에...>

그이께서는 만면에 웃음을 지으시였습니다.

<그렇습니까. 대단히 빠른셈입니다.>

<아니요, 아직도 절반이상 더 단축해야 하오. 절반이상. 그것은 빠를수록 좋으니까.>

<최인호가 매우 반가워했겠습니까.>

<군단장의 보고에 의하면 편지를 읽고나서 하루종일 아무 말도 없었다는거요.

그래 무엇을 생각하고있는가를 알아보고 잘 도와주라고 했소.>

그때로부터 석달이 지나시였습니다. 밤입니다. 최고사령부 정원에서 산보를 하고계시던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저를 부르시였습니다.

<최인호동무네 집에 갔다오시오.> 음성이 매우 갈려있었습니다.

<최인호한테 영웅칭호가 수여되었다고 알려시오. 그리고 집에서 사진을 한장 얻어오시오. 민청맹중에 붙였던 사진은 피가 배서 보이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나는 참모부의 어느 한 지휘관과 함께 최고사령관동지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이때 책상에 마주앉아있던 황명숙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야기에 방해되지 않게 하려고 무슨 서류를 읽으면서 이때를 기다렸던것 같다.

《편지를 받은후의 최인호에 대해서는 내가 말해야 잘 알수 있을것입니다.

군단장이 그때 당시의 최인호이야기를 하는것

을 내가 여러번 들었습니다.》

소위앞에 와있는 황명숙은 옛 부관에게 장시간 수고했노라고 인사를 한 다음에 자기 이야기를 꺼내었다.

《편지를 받은 최인호는 하루사이에 완전히 딴 사람처럼 변하더랍니다.

하루종일 가도 말 한마디 없고 꼬마요, 신대원이요 하는 티는 전혀 찾아볼수 없이 의젓해졌답니다.

그후 몇달동안 생활에서는 별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듬해 3월 19일 오후라고 합니다.

최인호네 대대가 차지했던 웅덩골계선 전투정황이 매우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런 8일동안 밤낮 공방전이 벌어졌는데 그때 최인호네 소대가 적들이 밀려오는 대도로구간을 차단하고있었는데 놈들이 집중공격을 들여대서 백열전을 벌리게 됐습니다.

군단장은 해가 저물어 최고사령부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영웅하게 잘 싸운 대대의 성과를 축하하시였습니다.

군단장은 <최고사령관동지!> 하고 첫마디를 떼놓고는 더이상 말쑤드리지 못하였습시다. 가슴이 뛰고 숨이 찼습니다.

잠시 있노라니까 <군단장동무! 동무는 몸이 편찮은것이 아니요? 혹시 부상을 당하지 않았소?> 하고 물으시더랍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숨이 차하고 목소리가 그렇소.>

<다름이 아니라 최고사령관동지!>

<어서 말하십시오.>

<최인호라구 제가 편지 부탁을 받고 찾아갔던 전사가 있잖습니까.>

<알만하오, 그래서.>

<19시 10분경에 적 탱크 19대가 밀려왔습니다.

5명의 매복조가 7차레의 전투를 하다보니 2명밖에 남지 않았습시다.

최인호동무는 맨 선두탱크를 맞받아나갔습니다. 길옆에 매복했다가 무한궤도를 향해 반탱크수류탄을 안고...>

<그래 어떻게 됐는가 빨리 말하십시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다그쳐물으시는것은 최인호가 어떻게 되였는가 하는 물음이 분명하였지만 군단장은 <적들을 전멸시켰습니다.> 하고 대답을 올렸습니다. 군단장은 그이께 너무 큰 아픔을 드릴것 같아 얼마후에야 자세한 보고를 올렸다고 했습니다.

최인호는 반탱크수류탄뭉음을 가슴에 안고 《김일성장군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며 무한궤도 밑으로 몸을 던졌던것입니다.

오란한 폭음과 함께 선두땅크는 길바닥에 뒤집히고 그다음것들은 길이 막혀 어름어름하는데 우리의 습격조가 모두 결단을 냈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골짜기에 고요가 깃들무렵 군단장은 최인호를 찾아 현장에 나갔습니다. 아무것도 찾아볼수 없더랍니다.

오직 하나 갈기갈기 찢긴 솜옷조각에서 민청맹중과 편지 한통을 찾아냈습니다.

그 편지봉투에 최인호는 이렇게 적어놓았다고 합니다.

<아버지! 녀려 마십시오. 아들은 한결음도 물러서지 않을것입니다.

내가 물러서면 미국놈땅크가 우리 학교를 깔아뭉갠것이고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이 살고있는 우리 집에 폭탄을 떨어뜨리기때문입니다. 믿어주십시오.

아들은 **김일성** 장군님의 전사담게 싸울것이며 앞으로만 나갈것입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알만하오, 알만해. 참된 인민군전사요, 영웅이요!> 하고 더이상 아무 말씀도 안하시더랍니다.

군단장은 수화기를 통해서 그이의 높은 숨소리만 오래동안 들을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일단 최인국이 알고싶던것은 대체로 다 알게 된셈이었다.

방안은 고요하였다.

황명숙은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채 그 무슨 서류인가를 공연히 뒤척이면서 앉아있었고 부관이였던 량수철은 담배를 잇대 피우면서 묵묵히 창밖을 내다보고있었다.

《나는 그날 밤이 펍 깊어서 사진을 찾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량수철은 최인국이쪽으로 돌아앉으며 다시 말을 떼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사진을 받아드시더니 오래동안 그것을 들여다보시는것이였습니다.

17세의 애어린 얼굴입니다. 군대에 나가기 한달전에 찍은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책상우에 사진을 놓더니 방안을 거닐으시는것이였습니다.

방안을 왔다갔다하시다가는 다시 사진을 보시고 또 걷다가는 또 보고 하시였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몇번 거듭하시다가 문득 송수화기를 집어드시였습니다. 제3군단장에게 전투명령을 주시는것이였습니다.

<항로봉계선에서 되게 때려야겠소. 조선인민군전사 한명대신에 적들 백이나 천을 없애치운다 해도 성차지 않소. 전우들이 눈물을 흘리고있다. 물론 그럴수 있소. 그러나 눈물을 그대로 두면 한숨으로 돼서 날아가버리지만 거기에 멸적의 불을 달면 무서운 힘으로 폭발합니다. 옳소, 그렇게

하시오. 좋소.》

그이의 음성에는 여직 볼수 없었던 그런 서리발이 내뿜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 사후입니다. 밤 12시경에 군단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를 드신채 한참동안이나 보고를 받고계시였습니다. 그러시다가 책상을 탕 치시며 자리에서 일어서시였습니다. <잘했소! 참 잘했소!>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다시 말씀하시였습니다.

<한계 런대를 몽땅 녹여치웠다면 그건 괜찮소. 바로 그렇게 해야 하오. 최인호가 말한것처럼 부모형제들의 원한을 풀기 위해, 우리 조국과 우리 제도를 지키기 위해 계속 그렇게 나가야 하오. 전우들에게 말해주시오. 최인호가 말한다고 하시오. 마지막 한놈까지 적을 따라가 잡아야 한다 고말이요.>

이때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열려있는 책상서랍안을 두세번 손끝으로 짚으시는것이였습니다. 거기에는 전날에 드리였던 최인호의 사진이 놓여있었습니다. 대체로 내가 알고있는것은 이상으로 다 말한셈입니다.》

한동안 누구도 말이 없었다.

고개를 숙이고있던 최인국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물기가 어리고 온 얼굴이 벌겋게 피빛으로 번지였다. 자세를 바로하더니 《알았습니다.》 하고 방안을 찌렁 울리였다. 그의 온몸에서는 말로 표현할수 없는 그런 숭고하고 단호한 그 무엇을 잘 나타내고있었다. 전쟁을 이긴 인간, 인민을 이끄신 수령, 이 나라 매개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들을 모으고 합쳐 하나의 대기적, 위대한 승리를 창조한 그이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충성의 마음이 가슴속 깊은데서 해일처럼 끓어치고있었다. 바로 그렇게 우리는 또 승리할것이며그 길에서 영예와 긍지의 상상봉에 오르게 될것이다.

×

최인국은 인사를 남기고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만수대 충계를 내리였다.

바야흐로 석양이 비껴왔다. 황금빛 노을이 붉게 물든 단풍나무, 푸르싱싱한 가문비, 그리고 땅에 누운 향나무가지들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있었다.

한데 그의 뇌리에는 포성이 울리고 무한궤도소리가 들려왔다.

이 길로 곧장 가면 형이 서있던 그 초소가 인차 나질것이였다.

고개를 들었다.

온 하늘을 짙 채울만치 크고 선명한 형의 얼굴이 그를 굽어보고있었다.

만경대 우물 외 3편

(중국) 김성휘

이 나라 그 어느 땅에서도 볼수 있는
정갈하고 수수한 우물
가난한 살림의 바디소리도
할머님의 주름살도 새겨진 우물입니다

땅밑으로 산뿌리와 이어지고
강줄기와 이어진 우물
총칼앞에서도 머리를 숙일줄 모른
산악의 존엄을 키운 우물입니다

굶은비에 흐릴줄 모르고

엄동설한에 얼줄 모르는 우물
근면하고 용감한 백의동포
조선사람 피줄과 이어진 우물입니다

소나기도 불비도 잠재운
백두의 기상을 안은 우물
파-란 하늘 쌍무지개 비낀 거울에서
나는 조선의 해와 별을 봅니다

만경대에서
1985. 9. 14

평양사람들

곳곳이 걸어가는
발구름소리를 듣습니까
어린이로부터 로인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꼭같은 자랑을 지닌
평양사람들이웁니다

하늘이 비좁게
거리를 안아세운 궁지를
총포탄이 터지던 재더미속에
혈육을 묻은 원한이 없어야
어찌 다 알수 있겠습니까

많이 해놓은 일보다

해야 할 일 더 많다고
사람마다 시간을 아끼웁니다
한피줄 타고난 형제의 상봉을
한시인들 잊을수 있겠느냐고...

평양의 거리를 걸어보고서야
나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평양사람들 마음 어찌하여 뜨거운가를
조선의 해가 바로 저 바로
대동강반에서 뜨고있었습니다

모란봉 을밀대에서
1985. 9. 10

영웅메달

세상에서 제일 많이 피를 흘리고
제일 많이 땀을 흘린 인민이
조선사람임을 바로 조선사람임을
나는 이 땅에 와서야 알았습니다

이 땅의 어느곳에 가거나
손길 닿는대로 움켜쥐는 한줌 흙
그것은 피에 전 파편가루였고
그것은 원한 맺힌 형제의 뼈가루였습니다

쓰러진 어머니 젖가슴우에서
굳어진 젖꼭지를 물어뜯던 아이
해살을 안고 해와 같이 일어났습니다
별빛을 받아 별과 같이 꿈을 꾸니다

세월을 주름잡아 천리마 달리는
그대들이 안아온 꿈같은 현실은
실로 세상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재더미로 남았던 땅이었던가 의심됩니다

가슴마다에 해를 안은 사람들

그대들 뼈는 금강산 벼랑같이 굳고
그대들 흉금은 동해바다같이 넓어
조선을 세상의 공원으로 가꾸어갑니다

오, 푸른산 보물의 산줄기 따라
맑은 강, 전류의 흐름을 타고
강대한 조선을 어깨에 떠메 용사들이여
그대들 심장은 그대로 영웅메달입니다

함흥에서
1985. 9. 23

대동강 능수버들

반갑다 허리굽힌 능수나버들
대동강 푸른 물에 머리채 감고
손님들을 조용히 맞아주누나
이 밤의 황홀을 펼쳐보이며

원췌 향해 깎지끼고 나섰던 나날
가슴에 상처입고 태질을 하던
어제날의 아픔은 없었던듯이
씻은듯 벗은듯 어여쁜 모습

흐르는가 마는가, 물결마저 걸음 늦추고

황홀한 물기둥 감돌아노닐고
연줄연줄 달려와 부서지며
능수나버들과 맞절을 하는구나

대동강에 뿌리박은 사랑을 안고
세월과 더불어 젊어지는 기쁨에 취해
설레누나 꿈꾸누나 어리광치누나
해와 별 빛나라 진정을 다하며

대동강변에서
1985. 9. 29

가사

천하절경 만경대

김 석

만경봉에 두둥실 태양 솟으면
찬란한 해빛아래 일만경치 꽃피네
아, 황홀해라 눈부신 해돋이 풍경
만경대는 천하의 절경일세

남해가의 해당화도 여기 꽃피고
백두산의 만병초도 여기서 반기네

아, 온 나라 마음이 꽃으로 피는
만경대는 천하의 절경일세

수령님을 따르는 인류의 마음
천만송이 꽃으로 아름답게 피었네
아, 축원의 꽃물결 흘러넘치는
만경대는 천하의 절경일세

고난의 백날

변홍영

그해 장백의 수림에는
눈이 많이 내렸다
태고연한 이깔숲우에
무너질듯 내려쌓인 장설을 헤치며
대오는 가고있었다.

대륙의 사나운 바람속에
하늘땅에 회오리치는 눈보라,
앞뒤에서 달려드는 수십만의 《토벌대》
첩첩이 막아서는 난국을 헤치며
장군님 따라 대오는 나아갔다

남패자를 떠나 북대정자어로
머칠이면 까닭을수 있는 멀지 않은 길
피흘리는 조국이 가슴에 울어
더더구나 한걸음도 지체할수 없는 길

오, 하건만
그 길우에 백날이 걸려야 했거니
묻지 말라, 묻지 말라
천년바위도 얼어터지고
한흙의 식량조차 떨어지고
걸음걸음 헤쳐야만 했던 철화의 울부짖음속에
어떻게 해가 뜨고 날이 저물었는지

그것은 하루하루가
인간이 이겨낼수 있는
시련의 극한점을 초월한 백날이었다
혁명가의 불굴하는 의지와 신념을
총칼로 눈보라로 시험한 백날이었다

아, 너무도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너무도 준엄한 고난을 헤쳤기에
천신만고의 그 백날에
우리 혁명이 얻은것은
그처럼 값있고 고귀한것인가

나어린 전령병들에게
장군님 나누어주신 한흙의 미시가루
그것은 수천년세월에도
줄어들지도 없어지지도 않는
고귀한 혁명의 량식이 되었고

사령부를 목숨으로 보위하여
적을 끌고 달려간 전사의 그 충성
억천만번 죽음을 이기며
피어린 길을 열어간 그 정신
우리 혁명이 높이 든 붉은기폭에
영원한 생의 빛발로 넘치나니

오, 고난의 행군으로 력사에 남은
백절불굴의 정신과 신념의 이 흐름
오늘도 이 땅우에 도도히 굽이친다
례사로운 날에도
그날의 눈보라를 벽차도록 호흡하며
우리 땅을 따라 천만대우가 그 길을 간다

그렇다, 그 고난의 백날은
영광에 찬 조선혁명의 무궁한 세기를 낳았다

가사

수령님 우리러 기쁨드리네

유국진

비바람 지나간 농장의 아침
수령님 포전에 찾아오셨네
소조원처녀는 너무도 기뻐
달려가 달려가 인사드렸네

금나락 설레는 농장벌에서
흙문은 그의 손 잡아주셨네
온 마을 이끌어 만풍년 지킨

처녀의 그 충성 헤아리셨네

소조원 따라서 고개 속이며
논두렁 넘어선 벼이삭물결
알알이 영글은 강냉이숲도
수령님 우리러 큰절 드리네

아, 수령님 우리러 기쁨드리네

꽃계절

장준범

꽃들이 핀다.
갓가지 꽃이 아름답게 핀다.
봄빛이 내리는 파스한 언덕에도 깊은 산, 푸른 들가에도 색깔곱고 향기로운 꽃이 핀다.
웃음이 넘치는 거리와 마을, 글소리 맑은 학교의 화단에도 꽃은 피어 만발하고 구름이 흘러가는 아슬한 벼랑가에도 진달래가 붉게 피어 향기를 풍긴다.
4월은 말그대로 꽃시절, 꽃계절이다.
바로 이 아름다운 꽃계절에 우리 수령님께서 탄생하시었다. 장엄한 해돋이로 만경봉이 붉게 물들던 뜻깊은 이 아침, 맑은 해살을 받은 이 강산의 꽃들이 천년 모르던 웃음을 망울로 터치며 활짝 피어올랐다.
맑게도 열린 조국의 푸른 하늘을 향해 갓가지 꽃이 피어서 만발하던 조선의 봄, 영광의 4월 보름날!
그때로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일을 민족최대의 경사로 뜻깊게 맞는 행복의 이 강산에 피어서 만발하는 꽃이 천가지라 만가지라.
봄에도 이른봄 봄마중을 서둘러 곱게도 피는 만경봉의 연분홍진달래며 회령의 백살구꽃, 대양 건너 먼 나라에도 4월의 봄빛을 받아 붉게 피는 **김일성** 화며 남해가에 활짝 피는 만경화...
사랑하는 조국의 4월은 이렇듯 꽃시절, 꽃계절이다.
계절이 되어 꽃이 피고 산천경개 하도 좋아 온갖 꽃 만발하고 누리에 가득찬것이 꽃바람, 꽃향기일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는것은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들의 가장 숭고한 의무이며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는 여기에 우리 조국의 끝없는 영예와 우리 인민의 영원한 행복이 있다.》
나는 4월초에 평양으로 달리는 급행열차에서

창가에 놓인 소담한 꽃화분을 보게 되었다.
철이르게 피은 은방울꽃화분을 가운데 놓고 할아버지와 예닐곱살되여보이는 소녀가 마주앉아가는 붓으로 꽃잎들을 정히 씻어주고있었다.
러행길에서도 할아버지와 손녀는 은방울꽃을 극성스레 가꾸었다.
그들은 평양으로 가고있는것이였다. 급행열차가 벌써 신안주역을 지났으니 종착역은 틀림없이 평양이였다.
알고보니 할아버지와 손녀는 은방울꽃을 안고 4월의 만경대초가집을 찾아가는 길이였다.
나의 가슴은 몽클하고 눈시울이 뜨거워났다.
...먼 옛날에도 꽃은 피였다.
그러나 나라 없고 살길이 없던 그 시절 그 누가 꽃을 보고 기쁨을 느꼈을가.
울밑에 피어난 봉선화앞에서도 그 모습이 처량해보여서 눈물을 짓던 과거였고 논두렁의 민들레꽃을 따서 아이들의 허기진 배를 달래던 과거였다.
꽃을 보면 눈물이 앞서고 서럽기만하던 그 시절, 그 시절은 영원히 지나가버렸다.
꽃피는 인류의 새봄을 안아오시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만경대를 떠나시던 그날로부터 20여성상 걸으신 그 눈길 몇천만리이고 지새우신 그 밤은 몇천밤이라.
오늘은 화원의 꽃, 마음속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는 우리 인민이다.
그러기에 한떨기 꽃을 피워도 어버이수령님을 우리려 곱게 피우고 한떨기 꽃나무를 심어도 어버이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하여 마음도 정성도 꽃을 피우는데 기울인다.
어버이수령님을 천만년 높이 모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따라 미래으로 달려갈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피어난 충성의 꽃이여, 만발하라! 아름다운 강산에, 인민의 락원에 나도 한떨기 꽃이 되리, 어버이수령님의 기쁨의 꽃이 되리!

무궁한 세월의 그리움속에

서봉제

눈이 내리더니...
수령님 계시는 창가에 내리던 눈
밤새도록 추억을 불러내며
백두밀영의 창가에도 내리고
숙영의 우등불가에도 쌓이고 쌓이더니

전우들의 그 모습 그리워
못견디게 그리우시여
이 새벽 조용히 흰눈을 밟으시며
우리 수령님
대성산렬사루에 오시었구나

깊은 생각에 잠기시여
하나하나 더듬으시는 마음
북만원정의 머나먼 길에서
사령부로 찾아오던 그 전사들을
이 언덕에서 마중하며 손잡아주시고...
국내공작의 길에서 오지 못한 그 대원을
락원의 이 기슭에서 뜨겁게 품어주시고...

송엄히 무거운 신 걸음을 옮기신다
머나먼 현지도의 길이면
그들의 고향집을 먼저 찾으시며
가슴뜨겁게 불러보시던 그 이름들
우리 당의 로정을 총화하는 대회때마다
마음속에 가장 가까이 세워보시던 그 모습들

백두산중에 쓰러졌어도
끝까지 안아오신 어버이 그 사랑
세월은 흘러가도
갈수록 깊어만지는 그리움속에
조국땅 한복판에 불러주신
위대한 사랑의 품이여 !

오, 오지는 못했어도
정녕 오지 못한 길이 아니었구나
그들이 모여선 영광의 이자리
그것은 그들이 못다온 길을
수령님께서 품에 안아오신 길이었나니

이 세상의 오직 한분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속에
한몸바쳐 곁고곁어온 그 길
어찌 리별이란 있을수 있었던가
어찌 다시 못올길 있을수 있었던가

부르시며 안아주시며 못떠나시는
수령님 어깨우에 눈은 내리며 쌓이고
이제라도 그날처럼 임무를 주시면
백번 다시 떠나가고
백번 다시 돌아올
그 모습 영원히 변함없이
투사들은 위대한 태양의 빛발아래
오늘도 감격에 우러러 섰구나 !

기쁨 외 1편

김석주

물고기가공실
물고기급동실
포구마다 도래굽이마다
일일이 돌아보시며 그 며칠

어느날 일군들은
수령님께 보여드리려
갖가지 가공품을 만들어놓고
진렬장에 그이를 모시였다

빛갈 곱고 맛좋아
보기 좋고 먹기 좋을

가지가지 가공품에
그릇들도 가지가지

-나더러 평가해달란말이지...
조용히 웃으시며
천천히 돌아보시였다
크고작은 꽃단지 꽃그릇들을

가공품이 만족하신듯
어떤것은 몇번이나 다시 보시고
꽃그릇이 고우신듯
어떤것은 몇번이나 만져보시며

일군들 마음도 흡족했다
바람 찬 바다가에 오시여
낮에 밤을 이어가시는 그이께
오늘에야 기쁨을 드릴수 있었으니

이런것을 우리 인민에게 준다면
얼마나 좋아하라
만족하게 진렬장을 돌아보신 수령님
생각에 잠기시여 걸으시였다

-진렬품이나 보아달라는것은
나는 원래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먹어본
우리 인민들의 말을 듣고 평가합시다

머리숙인 일군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으시는 그 말씀엔
크나큰 사랑의 무게가 실려있었다
-인민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오시는
이 위대하고 거룩한 말씀
성실성과 양심을 물으며
일군들은 가슴을 두드렸다

인민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그런 충실성이란 빈말임을
인민을 기쁘게 한 그것만큼
수령님께 기쁨을 드린다는것을

그 한마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소리와 같이
하나의 심장에서 울려
어제와 오늘의 심장을 두드리는
그런 말이 있다

-수령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평화로운 날에는 누구나 쉽게 할수 있어도
엄혹한 그날에는 쉽게 할수 없던것
불구름을 헤쳐
재더미를 헤쳐
수령님을 받들어 간고한 세월을 넘어온 인민의
말

그 한마디
어둠속 멀리를 뚫는 빛과도 같이
머나먼 세월을 이어져왔다
충성의 어제와 오늘의 세월을

-수령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 수령님 한평생 못잊으시는
그 많은 추억의 별들중에
금별과도 같이 빛나는 말
녹슬지 않는 영원한 말

가볍게 외우지 말라
가늠할수도 헤아릴수도 없는
우리 인민 모두의 심장의 무게로써만
그 말의 무게와 크기를 알수 있거니

진정은 요란하지 않고
진실한 말은 길지 않더라
그처럼 수수하고 소박하나
그처럼 변함없는 진리로 울려갈 그 한마디

-수령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뜨락을 나서며

-한 해외교포가 부른 노래-

황송한 마음-
선뜻 들어설수 없구나
만경대교향집 정갈한 뜨락
어서 오라 사립문은 열려있어도

욕되고 부끄러운 한생
꺼져가는 황혼기에 백발을 엮고
비로소 찾아온 걸음

손승래

차마 어지럽힐것만 같아...

흔연히 나서시여
다시는 못오신 의로운분들
애국의 뜨거운 녀이
고이 간직되어있는 프락

아, 조선의 태양이 솟아오르고
겨레의 다함없는 축복속에
빛나는 향도성을 마중하던 날
오색무지개 령롱히 비졌던 프락

생각하면 만경대일가분들
이역의 거친 들바람을 마시며
한몫, 광복전에 바치실 때
피 한방울 내 흘린적 없고

그 뜻을 받들어 오늘에도
땀 한방울 흘리적 없건만
기다린듯 반갑게 두팔을 벌리고
그분들과 한처마밑에 세워주는 프락

생각할수록 가슴 에이는 상실의 슬픔과 함께

깊어지는 한생의 죄많은 길을
거울인양 예 비추어보며
내 눈물로 속죄하거니

얼마나 곡절많은 먼길을 돌아
내 여기 왔던가
못잊을분들의 성스런 자욱우에
재생의 첫걸음 조심히 덧놓으며

옥같이 깨끗한 마음으로
사립문을 나서는 이 길
어려워도 힘겨워도
다시는 내 드림없으리

언제나 그 념원 가슴에 품고 살
백발이 진토록 우러러따르며
통일의 한줄기 밝은 빛발이 되어
돌아와 기어이 안길

아, 초가이영 낮은 추녀아래
정갈한 프락이여
위대하신 수령님을 어버이로 모신
나도 만경대집 큰 식솔의 한사람이노라

오, 인간의 힘이어

김재원

여기서 또 어디로
굽이쳐 뻗어가느냐
너, 끝없는 인간의 힘이어
너, 끝없는 인간의 사색이여

바다로 흘러들던 대동강물
둥그런 갑문호수에 잠겨
기름진 옥토벌로 흘러가누나
출렁출렁 생명수 되어

푸르른 날바다우에
락원의 일만경치 펼치며
기적높이 려차가 달려가누나
아름다운 평남기슭에서 황해기슭으로

머나먼 대양의 배들이
자주의 배고동높이
줄지어 꼬리물고 갑실로 넘나드누나
썰물과 밀물에 영원히 해방되어

오, 자연을 길들인
무한한 인간의 재능이여
갑문우에 오르니 나도 모르게
마음속 어디선가 만세가 터져오른다

파도 사납던 그날에
전사들 잔등에 얹혔던 그 흙짐이 어려와
세계의 눈길이 쏠렸던 그때
우리 땅이 걸머졌던 그 창조의 두께가 맺혀와

아, 위대한 령도, 강철의 담력이 쌓은
빛나는 80 년대의 창조여
사랑과 충성의 결정체로 솟아난
주체의 대기념비여

갑문의 푸른 란간에 오르니 나도 모르게
마음속 어디선가 환희의 축포같이
인간만세의 합창이 터져오른다
-세계여, 인간의 무한한 힘은
너의 모양을 새롭게 만들수 있다! -

반일인민유격대창건의 위대한 서사시적화폭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봄우뢰》에 대하여-

김용부

반세기가 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 력사에서 반일인민유격대의 창건은 그의 정치군사적의의로 하여 특출한 자리를 차지한다.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의 앞길에 가로놓인 겹쌓인 난관과 준엄한 시련을 몸소 자신의 한몸으로 타개하시며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원동력인 유격대를 창건하시고 마침내 1932년 4월 25일 토기점골의 등판에서 그의 탄생을 온 누리에 선포하시였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봄우뢰》(석운기 작)는 이러한 력사적사실을 심오한 철학적사색과 생동한 립체적구성, 예리하고 분석적인 묘사로 무게있게 그려냄으로써 위대한 인간, 위대한 수령으로서의 김일성동지의 품모를 가장 훌륭하게 형상하고있다.

헌신성과 믿음의 철학

세계전쟁사는 수백만년의 인류발전사에서 마지막 5백년간만 하여도 대략 1만 5천번의 전쟁이 있었다고 기록하고있다.

그 누구든지 피와 눈물로 얼룩지고 패배자의 쓴맛과 승리자의 영광으로 기록된 수십세기의 전쟁사를 뒤적여보라.

그러면 어느 누구도 비정규적인 유격대의 무력으로 100만대군을 타승한 항일대전과 같은 위대한 투쟁사를 알지 못하게 될것이며 침략자의 압제속에서 자기의 독자적인 정치체제도, 민족경제도, 무장한 군사도 없는 수난받는 피압박인민대중이 원쑤의 무기를 하나하나 목숨을 걸고 빼앗아 무장하고 세계제패의 야망을 품은 침략자와 대결하여 마침내 승리를 이룩한 그러한 혁명투쟁사를 더욱 알지 못하게 될것이다.

수십세기를 헤아리는 인류전쟁사는 수천수만의 명장들과 영웅호걸들을 대서특필하여 기록하고있다.

그러나 인류력사는 병장기 하나 없고 변변한 군사 한명 없어 빈 터전우에서 수만의 군사를 일으켜 압제자를 뒤집어엎은 그러한 명장, 그러한 영웅호걸을 알지 못하고있다.

력사는 오로지 그러한 투쟁사실을 한가지만 알고있으니 그것이 바로 영광으로 빛나는 조선혁명의 자랑스런 반일투쟁사이며 력사가 알고있는 그러

한 령수는 오직 한분, 위대한 김일성동지뿐이다.

세계가 경탄하여마지않는 력사적사실 독립운동의 폐허우에서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한사람한사람을 투쟁대오에 묶어세워 마침내 상비적인 혁명무력인 반일인민유격대창건의 봄우뢰를 터뜨리신분은 과연 누구이시며 그 어떤 령도예술의 견인력이 사상도, 정견도, 채부도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의 투쟁전선에 불러내어 인간의 존엄을 빛내여주었는가.

장편소설 《봄우뢰》는 바로 이처럼 심각한 철학적문제를 제기하고 심오한 형상적화폭을 창조하여 진실한 예술적해명을 주고있다.

소설은 형상화폭의 중심에 위대한 수령님을 정중히 모시고 영광스러운 반일투쟁사를 엮어가시는 그 순간순간에 발현되는 위대한 수령님의 고귀한 혁명가적품모를 깊이있게 분석함으로써 작품이 제기한 심각한 철학적문제를 예술적으로 품위있게 해명하고있다.

《인간, 수령, 김일성동지》- 이것은 세계가 위대한 수령님의 고귀한 품모에 대하여 내리는 절대적인 평가이다.

그러면 위대한 인간, 위대한 수령,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품모에서 기본핵은 무엇인가.

한없이 뜨거운 동지애인가, 소탈하신 인민적품모인가, 겸허하신 풍성인가. 물론 그것들도 다 중요한 측면의 하나로 된다.

그러나 기본은 바로 혁명에 바치는 헌신성, 주체위업실현에서의 숭고한 희생정신이다.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서는 한몸의 안녕도 돌보지 않으시고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숭고한 헌신성, 주체위업의 승리를 위하여서는 온갖 위험도 무릅쓰시고 언제나 투쟁의 전초선에 서계시는 위대한 투쟁정신,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서는 가정도, 행복도 다 바쳐가시는 숭고한 품모- 이것이 바로 만민이 우러러모시는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품모이다.

소설은 이 위대한 품모를 형상의 기본핵으로 설정하고 열정의 분화구를 힘있게 터쳐 궁지높이 노래하고있다.

사실 작가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헌신성에 완전히 매혹되어 심장을 송두리채 바쳐 노래하고있다.

토기점굴 등판에서 반일인민유격대의 탄생을 온 누리에 선포하기까지는 인간의 상상력으로써는 도저히 가늠할수 없는 난관과 시련이 가로놓여있었다. 그중에서도 부강촌의 혁명화문제는 유격대의 창건을 선포하는가 하지 못하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점이었다.

그것은 바로 부강촌이 조롱박의 주둥이처럼 돈화, 안도, 연길을 련결하는 삼각점의 복판에 도사리고 앉았다는 지리적특성과 함께 안운재의 악질보위단이 등지를 틀고앉아 지나가는 행인들을 무조건 잡아 경찰에 넘겨바치는 사정과 관련되어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예리한 통찰력으로 이미 부강촌 혁명화문제의 중요성을 파악하시고 그곳 출신 오정혁을 파견하여 군중공작을 시켰으나 그는 헛물만 켜고 나앉았다. 차광수도 적합치 않았다.

그곳에 틀고앉아 조선혁명에서 나서는 전반적인 문제를 즉시에 판단하여 결론을 내릴수는 없으며 더우기 아차 실수하면 희생되기 십상이다. 이미 부강촌 보위단에 붙들린적이 있는 허재룡이도 적당치 않았다. 이 무시무시한 사지판에 그 누구를 들여보내야 한단말인가.

이처럼 엄혹한 혁명의 위기를 한몸에 막아나서 신분은 바로 위대한 김일성동지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순간순간마다 위협이 뒤따르는 부강촌에 몸소 들어가시여 오별장네 집 머슴으로 일하시면서 마을을 혁명화하신다. 때로는 나무꾼이 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물지게꾼이 되시기도 하시며 때로는 지주집 잔치의 심부름꾼이 되시기도 하신다. 때로는 보위단원의 앓는 어머니를 위하여 추운 겨울날 언땅을 뒤흔고 수수뿌리를 뽑기도 하시며 자식의 시신을 모시지 못해 통곡하는 한 어머니의 마음에 안정을 주시려고 위험을 맞받아나가기기도 하신다.

입심이 드센 마을 아낙네들의 험구도, 오별장네 딸 정란의 지청구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미구에 높이 올릴 봄우뢰, 반일인민유격대탄생의 우렁찬 메아리가 울릴 그날을 그리시며 모든것을 꿰뚫어 보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능숙한 공작방법으로 험악한 세상살이에 악박에 남지 않은 서남걸이도 혁명화하며 지어 보위단의 라상범이도, 차기득이도 교양한다. 이리하여 《완고하게 얼어붙었던 사람들의 가슴밑창에서부터 진실로 사람다운 생각들이 천천히 굽이돌기 시작하였》으며 《그것이 소용돌이를 일으켜 얼어붙은 정신의 동토대를 태고 온 겨레가 하나의 지향을 안고 도도히 흘러가는 혁명의 본류》에 합세하게 되었다.

수수년엔 얼어붙은 정신의 동토대에 해토를 마

련하시고 봄우뢰를 불러주신분은 누구이시며 그 정신적힘은 어디에 있는가. 그분은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시였으며 혁명의 난국을 타개하시는 길이라면 머슴살이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우리 수령님의 숭고한 헌신성에 있었다.

1848년 공산당선언이 발표된 때로부터 시작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운동은 백수십년을 헤아리고 이 운동을 지도한 수령들도 수없이 많았다.

그러나 세계는 한 나라 혁명의 령수가 되어 머슴살이를 한 수령은 아직까지 알지 못하고있다.

세계가 알고있는 그러한 수령은 오직 한분,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한생을 바쳐가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뿐이다.

이 위대한 업적을 정당하게 그려낸데 이 소설의 역사적가치가 있는것이며 이 숭고한 혁명정신을 심오하게 밝혀낸데 바로 이 작품의 철학적진리성이 있는것이다.

수령형상문제에서 이 작품이 거둔 성과의 다른 하나는 우리 수령님께서 만사람의 심장을 들어잡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밝혀준데 있다.

동토대도 해토로 무르녹히는 비결, 한때의 원쑤도 벗으로 만드는 비결, 총 한자루 없고 변변한 군사 한명도 없는 《독립운동》의 폐허우에서 수만의 군사를 불러일으키는 비결은 과연 무엇인가.

그 비결은 바로 믿음이었다. 인간에 대한 믿음, -이것이 바로 그 비결이었다.

인간에 대한 믿음은 혁명적군중관점의 정수이다.

인간에 대한 불같이 뜨거운 사랑의 기초에는 믿음이 놓여있으며 근로하는 사람들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의 바탕에도 믿음이 깔려있다. 믿음이 없는 사랑은 한갓 박애주의의 너울에 불과하다.

박애주의는 사랑의 애잡잡한 눈물을 쥐여짜게 할수는 있어도 인류해방의 위업을 위해 한생을 바칠 각오와 신념은 키워줄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의 근본원리에 기초하시여 력사의 창조자인 인민대중을 믿고 그들을 각성시키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기본핵으로 하여 혁명적군중관점을 확립하시였고 의식적인 적대분자가 아니면 다 믿고 교양개조하여 혁명대오에 세울수 있으며 한 인간의 정신세계에 긍정의 요소가 다소라도 있으면 그것을 적극 계발하여 혁명의 길로 다 끌고나갈수 있다는 인간에 대한 주체의 관점을 세우시고 피어린 항일대전의 불길속에서 그 진리성을 확증하시였다.

소설은 바로 이 귀중한 철학적진리를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형상을 통하여 예술적으로 품위 있게 해명하고있다.

조국광복의 대업을 성취하기 위한 피어린 성전에서 꽃다운 청춘을 서슴없이 바친 김혁과 한영희의 불같은 충성심과 숭고한 희생정신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돌려주신 믿음우에서 꽃피난것이며 온갖 재부도, 개인의 향락도 다 버리고 시련에 찬 혁명의 폭풍우를 서슴없이 맞받아나가는 진한 법, 주서향, 오정혁도 다 이러한 믿음속에서 새롭게 태어난 청년공산주의자들이었다. 그 어떤 가식도, 권모술수도 모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한없이 숭고한 믿음은 철저한 반공분자도 용공분자로 만드는 기적을 낳게 하였다.

소설에서 보여주고있는바와 같이 일제가 박아 놓은 켜기에 말려든 우사령은 청년공산주의자들은 물론 공산주의를 조금이나마 동정하는 사람들은 조차 가차없이 처형하였다.

조종인민들의 단결된 힘으로 만주를 강점한 일제를 쳐부셔야 할 긴박한 혁명정세는 우사령부대를 혁명의 편으로 돌려세워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제기하였다. 그러나 조선사람이면 다 공산주의자들이거나 그의 동조자이며 공산주의는 다 나쁘다고 인정하고있는 우사령을 무슨 힘으로 돌려세운단말인가. 모두가 다 머리를 내저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한조각의 반일감정을 귀중히 여기시고 그 싹을 움틔워 조종인민의 공동전선에 불러내신다.

우사령과 그의 병사들을 반일전선에 일으켜세운 그 비결은 바로 진심에서 우리나라오는 일관한 믿음이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이러한 믿음은 토기점굴의 등판에서 높이 올린 우렁찬 만세의 봄우뢰를 불러왔고 일제를 반대하는 조종인민의 공동전선에서 승리의 함성으로 장엄히 터져올랐다.

19 세기초 구라파의 어느 한 폭군은 그대들은 나를 믿으라, 그러면 나도 그대들을 믿을것이다. 라고 폭언을 던져 역사를 우롱하고 철학을 조롱하였다. 이 폭군은 그가 그토록 《념원》한 온 세계가 아니라 자그마한 섬에서 운명의 종말을 고하였으며 그가 바라던 세계인민들의 열광적인 환호가 아니라 쓸쓸한 바다가의 애절한 파도소리만이 그의 죽음을 재촉하였다. 이것은 인류력사가 우연히 낳은 희비극이 아니었다. 이것은 역사발전의 합법칙적인 현상이었다.

인민을 믿고 인민대중의 힘을 믿으면 그 어떤 어려운 난관도 뚫고 혁명을 승리로 이끌어어나갈 새로운 세계,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수 있으나 인민을 우롱하고 인민대중과 등진자는 반드시 파멸을 면치 못한다

는것은 인류력사가 증명하고있는 움직일수 없는 하나의 법칙이다. 장편소설 《봄우뢰》는 혁명적 군중관점과 주체의 인간관에 확고히 기초하여 인민대중을 한없이 믿으시고 그들을 발동시켜 혁명을 밀고나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형상을 훌륭히 창조함으로써 력사의 이 위대한 진리를 예술적으로 힘있게 확증한데 그의 거대한 의의가 있는것이다.

사건의 집중화와 성격형상의 심도

인류가 낳은 위인의 일대기를 소설화하는 경우 작품의 구성조직은 매우 어려운 문제의 하나로 나선다.

더우기 수백만년의 인류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가장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시며 가장 위대한 인간이신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의 반세기가 넘는 혁명력사를 수록하는 총서형식의 대작에서 순간순간이 위훈과 영광으로 빛나는 투쟁사적들을 어떻게 맞물려 그려나가겠는가 하는 것은 작가의 사색깊은 탐구와 재능을 요구하는 문제가 아닐수 없다.

장편소설 《봄우뢰》는 형상체계의 중심에 위대한 수령님을 직접 모시고있으며 작품의 전반에 반일인민유격대창건을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을 주도적으로 그리고있다.

이러한 사실은 세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고있다.

그것은 우선 조선혁명의 전반을 령도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창조해야 하는 까닭에 수령님의 혁명활동범위와 투쟁생활분야가 매우 넓고 다양하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이러한 사정은 자칫하면 사건의 복잡성을 낳을수 있었다.

그것은 또한 력사에서 이미 공인되고 공개된 사적이기에 사실적이어야 한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에 수록되어있는 혁명사적의 어느 하나도 작가는 소홀히 할수 없으며 빼놓을 권리가 없다. 이러한 사정 역시 구성조직에 난관을 조성하고있으며 그의 복잡성을 초래할수 있었다.

그것은 또한 우리 수령님께서 지니고계시는 위대한 정신세계와 고매한 품모의 폭과 깊이가 무한대하다는 사정과도 관련된다.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위대한 인간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숭고한 정신세계는 세계의 그 어느 위인도 따를수 없는 최상의 높이에 있다.

그렇다고 하여 한편의 소설작품에서 위대한 사상정신적품모의 전부를 끌고루 다 그려낼수는 없다, 이것 역시 구성조직의 특이한 묘술을 탐구해낼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면 어떤 구성수법을 선택

택해야 작가가 이미 력점을 찍어놓은 수령님의 헌신성과 믿음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뚜렷이 부각시킬수 있을것인가.

작가는 그것을 바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혀주신 사건조직의 집중화, 집약화의 수법에서 찾았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어느 한 인물이나 사건이라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가서 심도있는 형상을 창조하는것이 중요하다.》

사건조직의 집중화란 어느한 사건이나 생활을 잡고 그것을 여러 각도에서 깊이있게 파고들어 내용의 심도를 보장하는 구성수법을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의 사건이나 생활을 그려도 그것을 여러모로 깊이있게 파고들면 그 한가지 사실을 가지고도 헤아릴수 없이 많은것을 알고 느끼게 할수 있으며 형상창조의 심도도 훌륭히 보장할수 있게 된다.

구성의 논리를 파악하지 못한 어떤 작가들은 생활을 풍부하게 그린다고 하면서 어느 한 사건이나 생활을 심화시켜 그리지 못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끌어들이기를 좋아하는데 그런 작품들은 레외없이 복잡하고 산만하게 이야기가 펼쳐져 지루감만 주고 깊은 감동을 주지 못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명철하게 밝혀주신 사건의 집중화, 집약화의 수법을 작가는 그대로 받아들여 이 소설의 구성조직을 특색있게 짰다. 여기에 바로 이 소설이 성공할수 있는 비결이 있었다.

장편소설 《봄우뢰》는 장구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력사에서 불과 몇달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을 생활범위로 설정하고있다. 이것은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것처럼 결코 구성의 단순성을 낳는 전제로 될수는 없다. 오히려 그것은 치밀하고 섬세한 구성조직을 요구한다.

그것은 명월구회의로부터 반일인민유격대가 탄생되는 이 몇달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시기이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는 그 한순간 한순간이 웅근한세기와 맞먹는 빛나는 위훈과 불멸의 사적으로 수놓아진 자랑찬 력사라는데 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작가는 작품에 두개의 큰 봉우리, 두개의 큰 사건을 설정하고있다.

그 하나는 부강촌을 혁명화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이며 다른 하나는 우사령을 반공으로부터 련공으로 돌려세우시고 반일전선으로 불러내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사적이다.

소설은 이 두 력사적사건을 기본사건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각이한 국면에서 여며 각도로 깊이

있게 파고들고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설은 구성의 산만성, 평면성, 력사기록적인 성격을 피하고 립체성을 확고히 보장하고있다.

소설의 절정을 이루는 반일인민유격대창건장면은 두개의 지주목 즉 부강촌혁명화와 우사령의 개조라는 두 이야기가 받들어주고있으며 그 두 지주목은 또 수많은 크고작은 사건들과 유기적으로 련결되어있다.

부강촌을 혁명화하시는 사건인 경우에도 사랑하는 아드님을 사지판에 보내시면서도 가슴아픔을 참으시고 오히려 고무격려하시는 강반석어머님의 숭고한 모습으로, 부강촌보위단에 의한 허재물의 체포사건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꿈을 찾아오는 김책동지의 이야기로, 옛 독립군중대장 신재림의 선으로, 후꾸다의 각본에 따라 피를 물고 달려드는 니시자와의 책동으로 이 위대한 력사적사건을 받들어주고있으며 그의 거대한 사회정치적의의를 부각시켜주고있다.

이 소설이 수많은 력사적사실, 수많은 인물들을 등장시키면서도 그것이 하나의 기본선으로 자연스럽게 밀착되는 근본리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사건조직의 이러한 집중화는 성격형상의 심오성을 훌륭히 보장하고있다.

집중적이면서도 명백한 소설의 구성은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정신세계에서 중요한 핵을 이루고있는 혁명에 바치시는 헌신성과 인민대중에 대한 뜨거운 믿음을 특별히 력점을 찍어 인상깊게 강조하고있다. 동시에 기본사건에 치밀하게 밀착되어있는 수많은 크고작은 사건과 세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풍모를 전면적으로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느끼는데 이바지하고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믿음과 사랑을 혁명적의리로 간직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의 불같은 충성심을 진실하게 펼쳐보이고있다.

실례를 하나 들어보자.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운재의 잔치집에 온 청룡이와 만나시는 장면은 하나의 작은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작은 이야기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정신세계의 중요한 측면을 인상깊게 강조하고있다. 청룡이는 위대한 수령님도 자기와 똑같은 머슴이라고 대변에 밀어버린다. 혁명의 령수를 머슴이라고 진실로 믿는 리유는 어데 있는가. 그것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시고계시는 진심이다. 허위와 가식, 립기응변과 권모술수를 모르시고 금강석과 같이 깨끗하고 정결한 진심, 이 진심이 바로 청룡이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님을 자기와 같은 머슴으로 알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식 경도예술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처럼 하나의 작은 생활적이야기가 위대한 사상, 위대한 성격을 부각해주고있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장편소설 《봄우뢰》의 구성조직은 고유한 자기의 특성을 가지고있어 매우 인상적이다.

작가는 사건의 집중화, 집약화가 형상의 심도를 확고히 보장한다는 주체적구성론을 창작실천에 훌륭히 구현함으로써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제시하신 문예방침의 정당성과 그의 위대한 생활력을 다시금 뚜렷이 확증하였다.

분석적인 묘사와 형상의 생동성

문체와 묘사수법은 작가적개성의 순수한 발현이며 작가개인의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문체, 그것은 어원적측면에서 고찰해보도 순수한 작가적개성의 산물이라고 말한다. 과연 그런가. 물론 문체에 작가적개성이 반영되는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어느 한작가가 가지고있는 개성적문체도 계속적으로 반복되면 도식에 빠지고만다는것을 잘 알고있다. 확고히 말하건대 문체와 묘사수법은 작품의 내용과 작가가 선택한 양상 그리고 작가의 개성에 의해 규정된다. 여기에서도 기본은 작품의 사상주제적내용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장편소설 《봄우뢰》의 묘사수법은 매우 특색있고 인상적이다. 이 작품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형상을 중심에 모시고 아직 그 어느 수령도 지너본적이 없는 숭고한 정신세계를 송가적으로 그리고있는 조건에서 오래동안 형성된 작가,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면서도 이 소설의 내용에 맞는 묘사수법들을 새롭게 창조하고있다.

우선 인물과 사건, 생활세부들을 시대적각도, 시대적높이에서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분석하고있다.

작가는 장편소설 《고난의 행군》에서 창조했던 체형세계의 심리분석적인 묘사를 고수하면서도 그보다는 사건과 생활을 통채로 끌어안고 시대적높이에 서서 정론적으로 분석하고있다.

소설에서 보는바와 같이 작가는 시대적높이에 서서 사건, 사실, 세부들에 거대한 사회적의의를 부여하고있으며 그의 철학적의미를 심각하고 예리하게 분석평가하고있다.

동시에 력사의 어느 한 시점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련결시켜 그의 시대적의의를 분석함으로써 묘사의 폭과 깊이를 보장하고있다.

실례를 들어보자.

《또다시 산천을 뒤흔드는 우렁찬 만세소리가 터져올랐다. 수령관동지의 호소에 대답하는 유격대원들의 이 충성의 맹세는 미구에 끝없는 하늘로, 광막한 대지로, 대륙과 대양으로 퍼져가 아직도세기적인 잠에서 설깨어난 광범한 인민대중의 가슴에 우뢰와 같은 거대한 메아리를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진정 우뢰소리였다.

인간세상에 최악이 차넘치고 사람들의 원한이 사무치면 하늘이 노하여 천둥소리를 지르고 번개를 치며 벼락을 내린다는 소박한 생각은 수수만년 짓밟히고 뜯기우고 억눌려온 인민들이 풀길없는 억울한 사연을 하늘에 대고 하소연해온 갈구와 념원의 산물이었다.

이놈의 세상 벼락이나 쳐라고 세기를 두고 사람들은 가슴을 두드리며 웨쳤다. 물을 떠놓고 빌고 향을 피워놓고 빌었다. 동서고금에 우뢰를 부르는 신은 얼마나 많았고 우뢰의 신은 또 얼마나 많았던가.

그러나 그 많은 신들은 인민들의 피터지는 절규에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

피눈물과 몸부림 속에 무수한 세월이 흐른후에야 인민들은 그 빌어먹을놈의 신에게 귀도 눈도 없을뿐아니라 신 그자체가 없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인민자체가 제손으로 우뢰를 만들기 시작하였으니 자연에서의 우뢰가 무거운 공기와 가벼운 공기가 어울릴 때 생기는 강한 상승기류에서 터져나오는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세상의 우뢰도 압제자, 략탈자들의 억압과 탄압에 견디지 못한 인민들의 쌓이고 맺힌 울분이 걸잡을수 없는 상승기류가 되어 마침내 혁명의 우뢰를 불러왔던것이다.

반일인민유격대의 탄생- 그것은 조선인민의 세기적인 분노가 뭉쳐 터져오른 우뢰였으며 진정한 혁명의 퇴신-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원썬들을 징벌하기 위하여 마련하신 벼락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반일인민유격대의 창건을 선포하시는 이 격동적인 장면을 작가는 객관적으로 서술하지 않았다. 작가는 유격대오의 한 성원이 되어 절절하게 체험하면서 원숭이가 인간으로 진화한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주적으로 살것을 열렬히 갈망해온 수수만년의 인간력사를 분석적으로 전개하고있으며 유격대창건의 사회력사적의의를 정론적인 기백과 열정으로 장중하게 표현하고있다.

그의 모든 묘사와 설화, 주정토로들은 철학적 평가와 시대적의의가 체현되어 웅장하고 진폭이

크며 예리하고 분석적이며 지성세계가 매우 높다.

묘사수법에서 이 소설이 가지고있는 중요한 특징의 다른 하나는 자연묘사, 정물묘사의 인격화를 실현하여 물체에 박동과 탄력을 강하게 주고 있는것이다.

자연현상에 대한 인격화, 이것은 문장에 맥박과 리듬, 탄력과 물동을 주는 가장 효과적인 문체론적표현수법의 하나이다. 인간이 아닌 자연이나 사물을 그릴 때에도 인간의 숨결과 맥박, 체온이 느껴지게 하는것은 상상할수 없는 예술적감화력을 가지게 하며 묘사의 생동성을 훌륭히 보장할수 있게 한다.

의인화의 능수인 작가는 이 소설에서도 자기의 장기를 능숙하게 보여주고있다.

《조선의 냇을 싣고 동서로 굽이쳐흐르는 압록강과 두만강이 시원을 둔곳, 네개의 백하와 두개의 송화강이 젖줄기마냥 뻗어내리는 천지를 신비의 만년설속에 품고 수수만년 무수한 세계전변의 풍상속에 말없이 서있던 백두산도 이날의 참뜻을 영원히 새겨두려는듯 푸른 하늘 흰구름우에 머리를 높이 들었다.

봄시위가 시작되어 골짜기마다 눈석임물이 와-와-소리치며 흘러가고 간도<토벌>의 초연내가 떠도는듯한 아직 차거운 봄바람이 겨우내 사나운 눈보라와 싸우기에 지친 영성한 숲을 어루만진다.》

작가는 산 인간을 대하듯이 자연을 보고 느끼며 그와 말하고있다.

이러한 수법으로 백두산은 거인의 형상으로 안겨오고 봄날의 눈석임물은 마치 시위군중의 함성같이 들려오고 봄바람은 부드러운 녀인의 손길처럼 느껴진다. 의인화의 수법이 가지는 예술적효과를 바로 여기에 있다.

이상에서 장편소설 《봄우뢰》가 가지고있는 묘사방식의 특징을 몇가지로 간단히 고찰하였다.

묘사수법에서 총서형식의 장편소설들이 달성하고있는 이러한 성과는 우리에게 많은것을 시사하여주고있다.

오늘 세계문학계에서는 묘사방식과 그 수법문제를 놓고 여러가지 논의를 진행하고있다.

묘사방식문제와 관련하여 크게 두가지 견해가

존재하고있는바 그 하나는 사회주의적사실주의는 19세기 고전가들이 남겨놓은 《생활자체의 형식》, 전통적인 표현형식만을 리용할수 있다는 주장이며 다른 하나는 과연 사실주의는 그 형식의 체계가 사회적생활과 과학문화, 인간의 내면세계의 발전과 더불어 발전하지 않는단말인가! 고 하면서 온갖 예술적 수법들을 종합적으로 리용할것을 주장하고있다.

전자의 경우는 본질에 있어서 19세기 비판적사실주의작가들이 주장하던 맹정한 묘사, <맹정한 증인>처럼 공정한 객관주의묘사를 주장하는것이며 후자는 일부 연구가치는 있으나 여러 예술적수법들을 종합적으로 리용한다는 구실밑에 《의식의 흐름》파가 제기하던 절대적인 주관적심리세계의 묘사를 끌어들이수 있는 전제를 조성하고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우리의 소설문학은 현대의 가장 유일하고 옳은 창작방법인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우리 식 묘사수법을 더 잘 알고 그것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세계적인 본보기를 창조하여야 한다.

우리 식 묘사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명철하게 밝혀주신바와 같이 분석적인 묘사, 철학적 사색이 깃들어있는 묘사를 말한다.

다시 말하여 인간과 그의 생활에 대한 작가의 태도와 립장이 적극적으로 표현되는 객관적인 묘사를 말하며 인간성격을 중심에 놓고 생활에 대한그의 체험세계를 깊이있게 파면서도 생활자체의 형식을 고수하는 묘사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장편소설 《봄우뢰》, 《고난의 행군》, 《근거지의 봄》을 비롯한 총서작품들은 그 문체와 묘사수법에서 볼 때 우리가 연구하고 본받아야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에 바로 장편소설 《봄우뢰》가 거둔 중요한 성과의 하나가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봄우뢰》의 사상예술적성과의 몇가지 측면을 고찰하였다.

장편소설 《봄우뢰》는 그의 심오한 사상적내용으로 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혁명적수령관을 확고히 세워주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될것이며 그의 높은 사상예술적성으로 하여 우리 문학사의 폐지에 훌륭한 성과작의 하나로 기록될것이다.

영생하는 모습

권문석

아득한 수평선으로 잇닿은 바다물속으로 이글이글 타오르던 삼복철의 저녁해도 병긋이 머리를 감췄다. 은파만경을 이룬 바다물은 번쩍이는 금붕어의 비늘처럼 붉고 누른 갑옷들을 번뜩이며 굽실댄다.

뿡-

산더미처럼 젓갈품들을 만재한 마지막 트럭도 멀리 모래사장너머 구배길에서 마지막 인사를 남기며 사라지고 거리가 메도록 몰려섰던 어촌마을 어로공가죽들도 삼삼오오로 떼를 지어 골목길에서 자태를 감춘다. 길에서는 온통 경사가 난듯이 떠돌아대던 조부랙지 장난꾸러기들만 아직도 흥을 삭일길 없는지 외딴 떠돌며 달음박질치고 웃기를 잘하는 가공반쳐녀들은 무엇이 그리도 좋은지 아직도 담장앞에 웅게중게 보여서서 웃음꽃을 피우고있다.

여러 어선들에서 온 대표들과 린근 공장들 그리고 도물고기 가공공장들에서 오늘 행사를 위해 찾아왔던 일꾼들을 바래고난 기섭이는 포구로 뻗은 동구길로 걸음을 옮겼다. 비릿한 바다바람은 희끗희끗해지기 시작한 기섭의 머리카락을 조용히 휘저어놓는다. 기섭은 온 하루 흥분속에 달아오른 가슴을 서늘한 바다바람에 식히려는듯 가슴을 짝 폈다. 실로 언제봐야 새롭고 신기하게만 여겨지는 소금기 섞인 향긋한 해초냄새를 코끝이 찡하게 들이키는 기섭은 벌써 어둠을 재촉하여 우짖는 갈매기떼들속에 둔중한 자태를 버젓이 드러내고 선 고기배들에 시선을 보냈다.

붕-

출항준비가 다 되었음을 알리는 배의 고동소리가 바다기슭의 고즈덕한 저녁 대기속에서 울려 퍼진다.

《아, 1278 호... 떠날 시간이 멀지 않았군.》

기섭이는 거뭇거뭇한 몸체를 기우뚱거리며 서있는 안강망선의 허리에 번듯이 씌여진 1278 호라는 글자에 눈을 박은채 혼자소리도 중얼거렸다.

이제 떠나면 먼바다 고기잡이에 반달은 걸릴 배정비사업이 순조롭게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알수 없는 애수가 가슴에 갈마들었다.

(이젠 그 친구가 우리결을 떠난지도 다섯해나 되는군...)

기섭이의 눈전은 축축히 젖어들었다. 가슴아픈 추억의 갈피갈피가 다시 뇌리에 감돌아든다.

(정말 얼마나 담차고 의젓한 배군이었던가? 그

욕심이 보통을 넘었지. 한번 하려고 하면...)

순간 기섭은 아직 알몸뚱이로 백사장에서 뒹굴던 그 시절이 그리웠다.

온몸이 햇빛의 혜택으로 탈대로 탄 감둥이소년들, 와와 함성을 울리는속에서 부리나게 뗏다쾅지는 더벅머리소년, 씩씩 황소숨을 쉬며 자빠졌던 모래사장에서 다시 일어나 더벅머리소년에게 달려들던 노랑머리소년, 키는 자그마하고 체소한 머리, 귀바퀴만 오뎅 들렸는데 온몸엔 모래알이 가득 달려있다. 에익, 오돌찬 눈망울을 두어번 굴리더니 고양이처럼 달려들어 더벅머리소년의 팔죽지를 틀어잡는다... 이렇게 그가 이겨야 승부는 갈라졌던것이다.

그가 바로 덕만이었다. 그런데...

뿡-

우렁찬 배고동소리에 기섭은 소스라쳐 놀라 끝없는 사색을 모래사장에 고이 남긴채 걸음을 재촉하였다.

《빨리 가야지 배가 떠나겠군.》

지척에 보이는 포구이건만 단숨에 달려가기가 쎄 아름답다. 부두가에 웅기중기 모인 사람들이 보이고 방금 도착한듯한 예술선동대원들이 줄지어 부두로 향하고있는게 보였다.

《여보, 부디 안심하시고 잘 가세요. 방금 보낸 소개장은 제가...》

순간 기섭은 바람결에 날려오는 가냘픈 녀성의 속삭임소리에 문득 걸음을 멈췄다. 말소리는 조용히 울려오다 뚝 끊어졌다. 잠시후 말소리는 또 울렸다.

《기뻐하세요. 당신이 그렇게 원하시던...》

멀지 않은곳에 번듯번듯이 세워놓은 말뚝을 의지하고 펼쳐진 고기그물뒤로 훑날리는 치마자락이 보였다.

남들이 다 없는 호젓한곳에 홀로 선 녀인... 기섭은 그 녀성이 어로공가죽이라고 생각하였으나 딱히 알수 없었다.(그럼 배에 가까이 가 전송할것이지... 무슨 색색시라고 저다지도 부끄럼을...)

아니! 기섭은 급히 다가서던 걸음을 멈췄다. 그는 분명 성숙이었다. 분명 덕만의의 안해였다. 그럼 그가...

기섭의 가슴은 저려왔다. 성숙이가 여기서 저배를 전송하고있구나.

(그래 오늘은 얼마나 기쁜날이라. 남편의 소원을 자기가 풀겠다고 굶은날 찬바람을 다 맞아가며 멀고 험한 길을 다 다니던 그가 오늘은 자기

손으로 만든 첫 첫감품을 실어보내고 저렇게...)

기섭의 두발은 자석에 붙은듯 움직일줄 몰랐다.

기섭은 두손을 마주친 성숙의 가슴앞에서 팔락이는 푸른 보자기를 보았다. 그렇다, 분명 그 수전이다.

기섭의 눈앞에는 잊지 못할 추억들이 흘러내리는 봄물처럼 건잡을수 없이 터져내렸다.

×

...그날 출항식을 앞둔 부두는 조용하였다.

부두에 모여선 수많은 어로공들과 그의 가족들은 누구나 말이 없었다. 바다도 조용하였다. 늘 부두벽을 떠받으려 기승사납게 덤벼들던 파도도 숨을 죽이고 무슨 생각을 더듬는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근엄한 생각을 스스로 따라서인지 젖빛 안개속에 누워서 조용히 뒹배일뿐이다. 부두에 삭줄을 늘이고 선 안강망선 한척이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며 늪실대는 물위에 떠있다. 안강망선의 선실꼭대기에서 미풍에 조용히 나뭇기는 붉은 기발과 거기로부터 줄줄이 드리운 오색기와 아름다운 꽃송이, 갖가지 테프들은 어느때처럼 출항식의 분위기를 흥성거리게 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엄숙하게 하였다.

포구에 모인 사람들은 더욱더 승엄해지는 마음으로 한 인간의 참된 삶과 영생하는 그의 영광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있었다.

출항을 앞둔 안강망선 1278 호의 원래 주인들은 지금 여기에 없다. 그들은 지난해 가을 한밤중에 갑자기 일어난 해난경보를 받고 태풍속에서 조난당한 《너성호》를 구원하러 나갔다가 《너성호》는 구원했으나 그들자신은 끝내 돌아오지 못하였다. 그때 파도는 세차고 험하였다. 지척을 분간하기 어려운 어둠속에서 산악같은 파도와 태풍을 가르며 싸우던 그들은 뜻하지 않게 암초에 걸쳐 더는 사태를 수습할수 없게 되었다. 얼마후에 배는 허리가 끊어져나가면서 침몰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기관장 덕만이는 한치 앞도 가려볼수 없는 어둠속에서 기울어지는 배전을 손더듬하여 잡고 겨우 선실로 달려갔다. 배와 사람의 생명이 경각에 어른이 순간 덕만이는 선실에 모셔진 어버이수령님의 초상화를 생각하였다. 그는 선실이 물에 잠기는 마지막 순간 어버이수령님의 초상화를 겹겹이 싸고 또 싸서 자기 품에 안고 물에 뛰어들었다. 추위가 온몸을 엄습하였으나 그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였다. 불빛 한점 보이지 않는 먹물속같은 바다, 어디가 어딘지 향방도 알수 없는 날바다 한가운데서 파도에삼키우고 태풍에 떠말리우면서 무려 6시간, 덕만이는 마지막 힘이 진할 때까지 물을 향하여 헤엄을 치고 또 쳤다. 허나 구조선이 그를 발견하였을 때 덕만이는 이미 숨이 저있었다. 그러나 덕만이는 숨이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조차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을 보위하여 단 한점의 숨기조차 스며들수 없게 자기 가슴에 부여안고 심장으로 웅위하고있었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에서는 이 한 어로공의 고결한 정신을 높이 평가하여 그가 기관장으로 일하던 안강망선 1278 호를 다시 되살려 못도록 하고 그가 자기의 고귀한 생명과 뜨거운 심장을 바쳐 웅위한 어버이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그 배에 다시 우러러모시도록 크나큰 영광과 배려를 돌려주시었다.

출항식은 먼저 새로 무은 배에 어버이수령님의 초상화를 모시는 행사로부터 시작되었다.

기섭은 덕만이가 자기 가슴에 품고 마지막 숨을 거둔 그의 전투가방을 두손에 받쳐들고 주석단에 올랐다. 기섭은 먼저 그 전투가방속에서 여러겹 꼼꼼히 싸 하늘색 푸른 보자기를 꺼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것을 지켜보았다. 기섭은 푸른 보자기를 한겹 또 한겹 천천히 풀어헤쳤다. 그 푸른색 비닐보자기에는 네모난 글로 크게 쓴 《선물》이라는 글이 보였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그런 보자기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늘 그것을 특별히 눈주어 살피며 의미심장하게 보았다. 기섭이가 푸른 보자기를 다 풀어헤쳤을 때 그속에서는 붉은색 비로도전이 나왔고 그 붉은 비로도전의 네귀를 들치자 거기에는 어버이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이 더욱 밝은 영채를 뿌리며 빛나고있었다.

기섭은 어버이수령님의 초상화를 두손에 정중히 받들어모시고 배의 선실로 향하였다.

지금까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숨을 죽이고있던 포구에 갑자기 떠나갈듯한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두손을 높이 들어 만세를 부르는 어로공들의 해빛에 그들은 철색얼굴로는 뜨거운 눈물이 줄지어 흘렀다. 웅당히 할일을 한 평범한 어로공을 이렇듯 영생의 영광속에 세워준 당의 고마움에 사람들은 목이 메였으며 자기의 고귀한 생명과 함께 깨긋한 량심을 바친 잊지 못할 동지에 대한 추억으로 가슴이 뜨거웠다.

어느덧 《김일성장군의 노래》 합창이 시작되어 힘찬 노래소리는 안개 덮인 포구를 흔들고 조용하던 수면위에 파문을 그으며 수평선 멀리까지 울려퍼져갔다.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이 선실에 높이 모셔지자 두 발꿈치를 모으고 곧은 자세로 거수경례를 하고 서있는 나어린 혁명학원학생 명길이의 모습이 포구에 모여선 여러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명길이의 바로 옆에는 그의 어머니 성숙이가 말없이 서있다. 그는 배가 고동을 높이 울리며 부두를 떠나자 손을 들어 흔들기 시작하였다.

부두를 떠난 배는 속도를 높여 수평선 저쪽으로 멀어져갔다.

안개진 포구를 조용히 흔들며 작별을 알리는 마지막 배고동소리가 다시 울려왔을 때 성숙은 들었던 손을 내려서 그것을 입에 가져다대고 저도모르게 피가 나도록 깨물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고여났다.

저 소리는 언제나 성숙의 귀에 익고 마음에 정다운 남편의 그윽한 숨결이었으며 그가 육감으로 알고있는 남편의 심장의 고동소리였으며 그와 다정히 주고받던 남편의 사랑의 목소리였다. 이제 더는 들을수 없을것 같던 그 소리가 오늘 이 부두에 다시 울리며 성숙이가 늘 이 부두가에서 웃음과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손저어 바래주던 남편의 정다운 모습을 비껴실고 다시 항로를 잡아 떠난다. ...

성숙은 불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을념을 안했다. 그의 뜨거운 눈물은 결을 떠난 남편에 대한 잊을수 없는 추억과 함께 그 남편을 다시 만난것만 같은 행복과 기쁨의 눈물이었으며 또한 그 남편을 1278 호와 함께 영생의 모습으로 만사람의 심장속에 깊이 새겨준 당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의 눈물이기도 하였다. ...

기섭이가 출항식을 끝내고 마지막으 부두를 떠날 때에도 성숙이는 명길이와 함께 그자리에 그린듯이 서있었다.

《애 명길아, 이제는 어머니랑 집으로 들어가려마.》

기섭이가 성숙이의 옆으로 다가가며 이렇게 말을 해야 성숙은 기섭을 알아보고 다소곳이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는것이였다.

《비서동지 안됐어요.》

성숙은 그제야 수건을 들어 눈가에 가져갔다.

《비서동지, 미안하지만 그 푸른 보자기를 저희들에게 주셨으면...》

성숙은 말끝을 흐렸다.

기섭은 성숙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그가 남편의 체온이 그대로 숨배여있는 그 푸른색 보자기를 더없이 귀중히 여기며 그것을 자신이 간수하고싶어한다는것을 알았다. 허나 기섭은 이때 이 푸른 하늘색 보자기에 깃든 그들의 뜻깊은 사연을 다는 알수 없었다.

《싱숙동무, 덕만동무를 생각해서 잘 건사해두우.》

기섭은 자기가 포개여 들고있던 그 푸른 보자기를 성숙에게 주었다. 성숙은 두손으로 공손히 받아서 자기 앞가슴에 꼭 가져다대더니 허리를 굽혀인사를 한 다음 총총히 마을쪽으로 가는것이였다.

성숙의 이런 뒤모습을 보는 기섭의 마음은 찢어졌다. 아마도 성숙이가 너무도 조용하고 너무도 애잖하게 보여서 그랬는지도 모른다. 그들 부부는이렇게 남달리 순박하고 어진 사람들이였

다.

×

사무실의 창밖에서는 봄비가 이슬처럼 소리없이 내리고있었다.

한참동안이나 창문을 내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기섭은 자기가 지금 뭔가 할일을 잊고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 학원으로 돌아가는 명길이를 바래준다는걸.)

기섭은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벌써 네시가 거의다 되어온다.

기섭은 피우던 담배의 마지막 모금을 깊이 빨아삼키고는 책상으로 다가가 그것을 재떨이에 비벼 꺼버렸다. 기섭은 이미 출항식때 비를 맞아 후줄근히 젖은 모자를 옷걸이에서 벗겨들고 문쪽으로 다가섰다. 그런데 이때 출입문쪽에서 문두드리는 소리가 조용히 들려왔다. 기섭은 걸음을 멈추고 그냥 서서 문쪽을 지켜보았다. 밖의 사람은 응답을 기다리다가 또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손기척소리가 조심스러운것을 보면 그가 녀자이거나 아니면 여러번 망설이던 사람이 겨우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린다는것이 알렸다.

《들어오시오.》

기섭은 밖의 사람이 듣도록 좀 소리를 높여 대답하였다.

기섭은 들고있던 모자를 상우에 놓고 문두드린 사람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이윽하여 출입문이 소리없이 열리더니 검은 치마에 흰 옥양목저고리를 받쳐입은 녀인이 문을 열 때처럼 조심히 문간에 들어서서는것이였다.

기섭은 놀랐다. 방금 만났었는데 무슨 일이...?

문간에 들어선 녀인은 성숙이였다. 그는 깊이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그냥 숙인 고개를 들지 않고 발끝만 내려다보는것이였다.

(어떻게 된 일인가? 성숙이가... 그렇지 아들이 학원으로 돌아간다고 알리러 온것이겠지. 그런데...)

기섭은 문간에 서있는 성숙의 모습을 일별하는 순간 갑자기 여러가지 의문이 한꺼번에 일어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성숙이가 왜 저렇게 여느때 없이 정히 조선옷을 받쳐입었을까. 졸전에 부두에서 헤어질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아들을 바래우려고 저런 옷을 입고 나설수는 없지 않는가. 비까지 내리는 날에... 손에 든 꾸레미는 뭘데 저리 무거워서 겨우 들고 서있을까? ... 아들의 짐일까? ...

기섭은 이런 의문이 컸지만 그것을 내색하지는 않았다.

《명길이는 아직 안떠났겠지?》

《예.》

성숙은 그냥 고개를 숙인채 낮게 대답하였다.
 《나도 그리로 가려던 참인데...》
 《비서동지, 바쁘시겠는데... 저... 비서동지...》
 성숙은 무슨 말을 하려는것인지 망설이기만 하면서 다음 말을 떼지 못하고있었다. .
 《성숙동무, 그걸 여기에 올려놓소. 무거운것 같은데... 떠나도 여기 좀 앉았다 갑시다.》
 기섭은 의자를 당겨 성숙에게 권하며 자기도 앉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성숙은 여전히 선자리에서 그냥 움직이지 않고있다가 손에 들었던 흰 보꾸레미를 자기의 가슴에 부여안고 책상앞으로 천천히 다가오는것이였다. 그는 보꾸레미를 책상 위에 조심히 올려놓고 얼핏 시선을 들어 기섭이 쪽을 보는것이였다.
 《이건 올해 4월 15일 명절에 명길이 아버지와 저희들이 수령님께 올리려던... 너무 변변치 못해서...》
 성숙은 얼굴을 붉히며 더없이 미안해하였다.
 방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기섭은 이때 무슨 말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랐다. 그는 성숙의 상기된 얼굴이며 타는듯한 눈빛 그리고 거칠어진 숨결과 함께 높이 오르내리는 어깨를 보며 그의 가슴속에 말못할 사연이 있음이 자기로서도 헤아려졌다.
 성숙은 자기가 입고있는 옷과 같은 흰보자기로 짠 꾸레미를 풀기 시작하였다. 작고 연약한 그의 손이 흥분에 떨리고있는것이 알렸다. 성숙이가 흰보자기를 다 풀어헤쳤을 때 그속에는 또 한 겹의 다른 보자기가 있었다. 성숙이가 그것마저 풀어헤쳤을 때 그속에는 꽃천으로 잘게 누빈 작은 포단같은것이 나왔다. 성숙은 그 포단주머니의 우와 옆을 살피면서 끈으로 마주맨 매듭들을 찾아 하나씩 풀어나갔다. 드디어 마지막 매듭이 풀리고 꽃포단이 벗겨지자 그속에서 큰 왕새우를 그린 청색단지가 나왔다.
 이것을 보는 순간 기섭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이것은 백하정이였다. 너무나도 범상하게 느껴지는것을 저렇듯 귀중히 들고온것은...?
 《너무 변변치 못한것이여서 일없겠는지...》
 그의 마음에 짐작이 가는듯 성숙은 고름끈을 만지작거리며 겨우 이 말을 하였다.
 이때 기섭의 충격은 너무나 컸다.
 (회계원을 하던 성숙이가 남편의 일이 있는 다음부터 굳이 첫갈작업반에 가서 일을 하겠다고 나선것은...)
 기섭은 속으로 생각하였다.
 《이것은 명길이 아버지의 간절한 부탁이였어요. 위대한 수령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평안도 명산물로 만들어 위대한 수령님께 올리자고 하더니... 그이가 담근 첫갈이 오늘 이렇게 잘 익었는데... 비서동지, 수령님께서 이 약소한 우리 마음

을 받아주실런지...》
 가슴을 울리는 성숙의 절절한 목소리를 들으며 기섭은 그제야 《그래서였구나》 하고 속으로 부르짖었다. 성숙이가 첫갈품의 질을 높여보겠다고 이 선돌만의 200 여러어간 수산사업소와 수산협동조합들을 다 돌아다니며 경험을 배우러 다닌것도... 그러다가 지난 겨울 어느날엔 눈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큰일을 널뻔한것도... 그때 발을 얼구어 지금까지 고생하는것도...
 기섭은 성숙의 정가로운 옷이며 상우에 놓인 청색단지를 다시한번 더 눈주어보며 생각하였다. 성숙이가 입고있는 희디흰 저고리속에 그가 지닌 끝없이 깨끗하고 고결한 심장이 그대로 간직되어 높뛰고있지 않는가...
 《지난해 4월 15일 명절날이였어요.》
 성숙이의 물기어린 목소리가 기섭의 가슴을 울렸다.
 성숙은 두손을 모아잡고 가슴에 쌓이고쌓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잊을수 없는 회역을 다시 더듬는것이였다.
 창밖에서는 봄비가 소리없이 내렸다. 이슬같은 봄비는 마치도 방안에 앉아있는 두사람의 가슴속에 이미 결을 떠난 사람에 대한 잊을수 없는 추억이 더 깊이 젖어들게 하려는것 같았다.
 《저는 그날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니 혹시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성숙은 자기 일생을 두고 잊을수 없는 행복속에 함께 살면서도 알것 같으면서도 다는 모르고 살아온 자기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기섭이 앞에 처음부터 터놓는것이였다. ...
 명절날 밤이여서 그랬는지 그날은 성숙이와 명길이가 밤늦게까지 어장에 나간 아버지를 기다렸다.
 배고동소리가 울릴 때마다 명길이는 아버지가 온다고 떠들썩거리며 포구까지 달려나갔다가 헛물을 켜고 심드령해서 집으로 돌아오곤했다. 학교에 입학하여 처음으로 받은 명절선물을 아버지에게 한시바빠 보이고싶은 천진한 마음에서였다.
 날이 어두워 부두의 하륙장도 조용해지자 명길이는 점점 더 등이 달아서 들락날락하다가 패종이 열시를 칠 무렵에는 맥이 진했는지 곤히 잠들어버리고말았다.
 이제나저제나 마음을 조이며 밥상옆에서 바느질을 하던 성숙이가 귀에 익은 인기척소리를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을 때는 밤 열두시가 거의 다 되어서였다. 성숙의 육감은 틀리지 않았다.
 성숙은 마주 달려나가며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고 명절날 집에서 기다릴 사람의 생각도 좀 해야지 않느냐고 들이대며 남편의 뺨판같은 잔등이며 가슴을 종주먹으로 한참 두들겨주고싶었지만 그

것은 마음뿐이었다. 애타게 기다리던 남편이 돌아오니 기다릴 때의 그 안타깝던 마음은 오간데 없고 그저 그에 대한 사랑의 련정만 차넘쳤다.

덕만이는 잠시 부엌에서 지체하더니 곧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그만 눈이 휘둥그래져서 《야- 이런!》 하고 웅켰다.

방 한가운데는 명길이가 학교에서 돌아오자 성숙이가 반나절이나 신고를 해서 차려놓은 명길이의 명절선물이 한구들 쪽 펼쳐져있었다. 명길이의 아래웃벌 교복, 소매 짧은 샤쯔 그리고 맵시 있게 생긴 운동화, 붉은넥타이 지어는 혁띠, 학용품까지 없는게 없다.

덕만은 무릎을 꿇고 앉아서 교복부터 쓸어만지며 《여보!》 하고 성숙을 찾았다.

《이건 우리 집 장난군에겐 너무 파하게 얹소. 이걸 보우. 혁띠에는 펜촉까지 새겨넣었구려. 공부 잘하라구... 연필도 갖가지 다 있구.》

덕만이는 너무 황홀해서 어쩔줄을 모르며 평시의 그답지 않게 이걸 줌 보우 저걸 줌 보우 하며 꽃과자에 새긴 글까지 가리켜보이는것이였다.

이런 남편을 보는 성숙의 마음은 즐겁고 행복하였다.

이런 일은 그야말로 아이를 낳아 오늘까지 키우면서 살아온 이날이때까지 일찌기 보기 힘든 행복에 넘친 단란한 순간이였다.

덕만이는 펼쳐놓은 선물의 마지막 권에 놓인 비닐보자기를 보더니 그것을 펼쳐들었다. 그의 앞에는 진한 푸른색에 네모방정하게 쓴 《선물》이라는 글발이 한눈에 안겨왔다.

《선물》

그는 이것을 소리내어 읽었다.

《여보! 선물이요! 선물! 우리 명길이에게, 이 덕만이의 집에 보내주신 수령님의 선물이요!》

그는 흥분하여 말하였다.

덕만이는 두손으로 그의 가정에 아름다운 행복을 안아온 그 하늘색 보자기를 앞가슴에 꼭 가져다 대고 방안에 한가득 차고넘치는 선물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눈주어 보는것이였다.

《정말 고마운 일이요. 생각도 할수 없는 일이지. 우리 아들이 수령님의 선물을 받다니...》

덕만이의 두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성숙이도 흘러내리는 눈물을 고름끈으로 찼다.

...날이 쉼날에야 그들 부부는 잠자리에 들었다.

이미 기울기 시작한 하현달이 흰 명주필을 드리운듯 방안 가운데를 가로질러 밝게 비치고있었다.

《여보 어떻게 하면 좋겠소?》

덕만이가 느닷없이 말을 꺼냈다.

《뭘말이예요.》

금시 잠이 들려던 성숙이가 남편쪽으로 돌아누

우며 의아해했다.

《여보, 어려서 미국놈에게 부모를 잃은 내가 수령님의 품이 없었던들 그 전쟁의 불바람속에서 어찌 지금까지 살아남을수 있었겠소. 수령님께서 나를 학원에 보내주시여 잔뼈가 굵을 때까지 애지중지 키워주셨고 오늘은 이렇게 의젓한 배의 기관장으로 내세워주셨소.

애육원에서부터 해마다 수령님의 그 사랑의 선물속에 안겨 커왔건만 지금까지 천분의 일이나마 보답하지 못했는데 수령님께서서는 또 이렇게...

여보, 나는 부모를 잃었으니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제 부모의 사랑속에 세상에 부럽없이 사는 우리 아이에게까지 이렇듯 공부를 잘하라고... 정말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든 다 갚을수 있단말이요? ...》

《보답해야지요. 일을 더 잘해서.》

《원 참 연설같은 소리... 여보》

덕만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성숙은 영문을 모르고 주섬주섬 뒤따라 일어났다.

《이것 보라구. 가령 우리가 옆집에서... 인접이네 집이라 합시다. 그 집에서 무슨 색다른 음식이 생겨서 우리 집에 가져왔는데 우리가 그걸 받고는 <잘 먹었다>하고 빈그릇이나 돌려주면서 인사치레나 해서야 경우가 되느냐말이요. 우리도 뭘 좀 생각이 있어야 할게 아니요.》

성숙은 남편의 하는 말의 뜻을 충분히 알수는 있었지만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그로서도 남편의 생각에 도움을 줄만한 궁리가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집에 무슨 변변한것이 있어서 그 크나큰 은혜에 보답할수 있나말이예요.》

그들은 다시 자리에 누웠다. 그러나 그들은 잠들수가 없었다.

한참만에 덕만이가 혼자말처럼 조용히 중얼거렸다.

《있고없는게 문제가 아니지. 사람이야 도리가 있어야지...

전에 내가 학원에서 자랄 때나 군대복무를 할 때나 같으면 몰라도 지금은 내 살림살이가 있고 내 손으로 고기를 잡는데 하다못해 내가 직접 잡은 물고리라도 올릴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소.》

덕만이는 이렇게 말을 하고 돌아누워서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것이였다.

성숙은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에서 눈물을 보았다. 그는 아픈 가슴을 누르며 남편의 안타까움을 덜어주려는듯 자기의 손등으로 그의 뜨거운 눈물을 닦아주었다.

《여보, 가령 우리가 수령님께 무엇을 성의로 좀 올린다면 그이께서 받아주실가?》

《받아주실거예요. 꼭 받아주실거예요.》

성숙은 왜 그런지 자기도 알수 없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믿었으며 진심으로 남편에게 말했다.

밤은 소리없이 깊어갔고 또 밝아왔다.

명길이는 꿈속에서 웃고있다. 아마도 선물교박을 입고 좋아라 뛰노는 꿈을 꾸는것 같았다. 그가 잠꼬대를 하며 차던진 이불을 성숙이가 일어나 덮어주었다.

《여보, 우리가 가령 수령님께 올린다면 어떻게 좋겠소? 당신이야 바다물에서 컸으니 잘 알게 아니요.》

《글쎄... 지금 나는 고기야 좋은게 많지만 평양까지 어떻게 가져가요. 말리우거나 절구어서는 제맛이 안나는거구...》

성숙은 남편에게 금시 속이 흰히 트이는 어떤 말을 해주고싶었지만 그럴수 없는것이 안타까웠다.

덕만이는 반듯이 누워 천정만 올려다보면서 한참동안 말이 없었다.

《가만, 이제 당신이 뭐라고 했소? 절군다고 했지? 내가 어디서 들었드라 분명히 들었어. 우리 수령님께서 젓갈을 매우 좋아하신다는걸.》

덕만이는 갑자기 자리를 차고 벌떡 일어나 있었다. 그는 잊어버린 기억을 더듬으려는듯 달빛이 기울기 시작한 맞은편 벽을 한참이나 뚫어지게 보다가 다시 자리에 누우며 중얼거렸다.

《어느 책에서 본것 같기두 하구...》

《이젠 그만하고 눈을 좀 붙이세요. 아침부터는 종일 배수리를 해야 한다면서...》

성숙이는 책상우에 있는 사발시계를 보고 이제는 그대로 일어나 밥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이 잠들기를 바라서 불도 켜지 않고 손터듬으로 옷을 찾아입은 다음 조용히 새문을 열고 부엌으로 나갔다.

성숙이는 밥을 한참 짓다가 새문이 바람에 열려서 그것을 닫느라고 방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자는줄 알았던 남편은 옷을 단정히 입고 앉아서 이미 다 거두어 차곡차곡 농속에 넣어두었던 명길의 선물을 다시 방안에 퍼놓고 들여다보고 쓸어보고 만져보는것이였다.

《그만하세요. 그러다간 다 닳아없어지겠어요.》

덕만이는 고개를 들어 문간에 서있는 성숙을 보고 말없이 그저 히죽이 웃기만 하는것이였다.

《여보, 이리 좀 들어오우. 내가 이 보자기를 간수합시다. 푸르른 바탕에 흰 글발, 어쩐지 껍 마음에 드는구려.》

이 말을 듣는 성숙은 좀 놀라운 생각이 들었다.

오늘 이때까지 함께 살아온 남편이 이렇게 흥분에 휩싸여 이야기하는것도 처음이려니와 자기가 모르는 그 무엇을 깊이 꿰뚫어보며 음미하는것도

처음인것 같았다. 성숙은 이러한 남편이 전에 없이 돋보였다.

그리고나서도 덕만이는 푸른색 보자기를 펼쳐 놓고 한참이나 들여다보는것이였다.

《아들의 선물인데 아버지가 좀 가졌다고 잘못 될게 있겠어요.》

그들 부부는 어느때 없이 행복에 겨워 마주보며 웃었다. ...

(하늘색 보자기!! 그 보자기가 어찌하여 그다지나 그의 가슴을 사로잡았을가? 단순히 선물보자기라는 점에서...?)

성숙의 말을 듣던 기섭의 가슴은 높뛰였다. 흥분한 기섭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나 성숙이의 낮고 조용한 목소리가 자기의 발걸음소리에 떨어버리고말것 같아서 높아지는 숨결을 겨우 누르며 몇걸음 저격디디다가 다시 자리에 와서 앉고말았다.

성숙은 숙인 고개를 들지 않고 조용히 자기 말을 계속하였다...·

《저녁에는 퇴근시간이 되자마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인 집에 들어서자 바람으로 세수도 할 생각을 잃고 방으로 들어가더니 집에 있는 책이란 책은 다 끄집어내여 이것저것 뒤져보기 시작하더군요.》

성숙은 밖에 내리는 봄비와도 같이 가슴을 적시는 다감한 목소리로 조용히 자기 말을 계속하였다.

성숙은 이때 그만 아연해지고말았다.

《아니, 어떻게 된거예요?》

방안에는 책이 한구들 널려있는데 남편은 그 책무지속에 쭈그리고 앉아 무슨 책을 한권 반쳐 들고는 열심히 읽고있었다.

《여보, 이걸 좀 보우. 찾아냈소. 여기 있지 않소.》

성숙은 남편의 얼굴에 희색이 만연한것이며 밑도 끝도 없는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수 없었다.

성숙이가 밥상을 방가운데 놓고 그의 옆으로 다가갔을 때 덕만이는 자기가 읽고있던 책을 성숙에게 내주었다.

《여길 좀 읽어보우.》

성숙이는 행주치마에 물묻은 손을 닦으며 덕만이가 주는 책을 받아 책표지부터 보았다. 그 책은 위대한 수령님의 저작집이였다. 성숙은 남편이 무엇을 보고 그렇게 좋아하는지 호기심을 가지고 그가 펼쳐서 짚어보이는 대목을 읽기 시작하였다. 책을 읽는 성숙의 얼굴에도 점차 밝은 빛이 돌더니 그것이 진해지면서 방긋이 입귀가 열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성숙의 그것은 덕만의 호기있는 웃음과는 좀 다른것이였다.

《야 참, 이거야 수령님께서 세소어업을 많이

하고 이전부터 서해에 유명했던 백하젓, 조개젓, 건태이젓 같은것을 많이 담그라고 하신 교시지 어디 젓갈을 즐기신다는거야 아니지 않아요.》

성숙이가 읽던 책에서 눈길을 떼며 어처구니가 없다는듯 웃고말았다.

덕만이는 성숙이가 이러든말든 상관하지 않고 아주 흐뭇해서 담배를 붙여물고 틀지게 말하였다.

《자, 이걸 보오. 그전엔 조개젓과 새우젓을 펴가지 않고 먹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그렇게 흔하던 조개젓나 새우젓이 매우 적다고 하시지 않았소. 이건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들이 젓갈품을 많이 먹지 못하는걸 보시고 가슴아프시여 하신 말씀이요.

지금 우리는 고기를 잡는것만 자신의 일로 생각하고 가공엔 머리를 쓰지 않다보니 삼면이 바다로 싸인 우리 나라에서 아직도 젓갈이 희귀한 것으로 되고 있단말이요. 몇개 가공공장에만 의탁하지 말고 우리도 젓갈을 생산하는 가내작업반 같은것을 내오면 젓갈이 많이 나올수 있지 않겠소?》

안해는 남편의 남다른 공냥에 펴 만족한듯 해죽이 웃다가 머리를 개우뚱하고는 말했다.

《아니, 우리가 무슨 재간으로 여직껏 해보지 못하던걸 해낸단말이에요.》

《여보, 그러게 모든 일이 시작은 어렵다잖소. 그러나 만약 우리가 질높은 젓갈을 많이 만들어내어 탄광에랑 그리고 많은 상점들에 보낸다면 그게 꼭 소문이 나서 수령님께서도 아시게 될거요. 자, 보오. 거기에 이렇게 <매상포젓갈>이라고 적 써놓잔말이요. 어떻소?》

안해는 그래도 뭔가 근심되는지 머리를 저었다.

《그런데 그 젓갈이 수령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서해에 유명하다던 젓갈처럼 되겠는지...》

《여보, 우리 이제부터 결심하고 이전에 젓갈을 잘 만들었다던 늙은이들이나 또 지금 질이 높다는 가공공장들을 찾아다녀봅시다. 혹시 우리도 이전에 평안도 명산물이던 젓갈만큼 될수 있는것을 만들어낼지 모르지. 아니 꼭 될거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여보, 우리 먼저 단지도 자그마하고 맵시있는 절루 골라 잘된 젓갈을 수령님께 올리지요. 수령님께서 꼭 맛을 보아주시고 말씀해주실거란말이요. 너무 짜다던가? 아니면 알맞춤하다던가...》

《아유 정말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수령님께서 그 하찮은것을 받아주실까요?》

성숙이는 어느새 남편의 그 푸른 행복의 꿈에 침취되어 금시 그 지성을 다해 담근것이 앞에라도 있는것처럼 생각되었고 그것은 오직 자기만이 해야 한다는 일종의 욕심까지 느꼈다.

《내 만약 그때 수령님을 만나뵙게 되면 난 수령님께 이렇게 인사를 올리겠소.

수령님 ! 명절에 받은 우리 명길이의 옷이 꼭 맞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수령님께 축원의 인사를 올려야 할 명절인데 우리 아이들이 수령님의 선물을 받아안았습니다. 옛날부터 내리사랑은 있어도 올리사랑은 없다더니 그게 참말인가 봅니다.

수령님, 이것은 서해 고기잡이군이 수령님께 올리는 보잘것없는 성의입니다.》

덕만이는 정말 자기가 금시 수령님 앞에 서있기라도 한것처럼 두손과 발을 모으고 천천히 허리와 무릎을 굽혔다. 이러는 덕만의의 맞은편 벽에서는 아버지수령님의 영상이 인자하게 굽어보고계시었다.

《빨리 식사를 하세요.》

성숙은 갑자기 솟구치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먼저 밥상쪽으로 돌아앉았으나 행주치마자락을 들어 눈굽을 훔치지 않을수 없었다.

붉게 상기된 덕만의 두눈과 볼에도 뜨거운 눈물이 줄줄이 흐르고있었다. ...

성숙의 말을 듣던 기섭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고여났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감추려 하지 않고 손수건을 꺼내여 천천히 눈가에 가져갔다.

《비서동지, 내가 너무 부질없이 제집일을 길게 얘기했군요.

전 그저 수령님께서 적으나마 명길이가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주시기 바래서 한 말이었는데...》 성숙은 진심으로 미안해하였다.

《일없소, 그 마음이 중요한거지, 그 마음이...》 기섭은 창가에 가서 문을 열었다. 밖에서는 하루종일 내릴것 같던 보슬비가 어느새 멎고 한쪽 하늘귀가 흰히 들리면서 그썸으로 락조의 붉은빛이 쏟아져내렸다. 이제 좀더 있으면 그 빛이 온 천지를 물들일것 같았다.

기섭은 자기의 뜨거워진 마음을 하늘의 붉은 노을빛이 더 뜨겁게 달구어주는것만 같았다.

(얼마나 진심에 넘친 사람들인가...)

기섭은 이 말을 속으로 외우고 또 외웠다. 사람들의 진짜 속은 어려운 고비에서나 위급한 순간에 알게 된다고 하지만 출렁이는 대하와 굽이치는 강물이 없이 어떻게 격량이 있을수 있으며 푸르싱싱한 줄기와 잎이 없는 꽃을 생각할수 있겠는가. 기섭은 자기의 깨끗한 양심과 열렬한 충성심을 귀중한 생명과 함께 당에 바친 한 전사의 가슴속에 출렁이던 깊이도 끝도 모를 진심이라는 맑고 깨끗한 호수를 보았으며 누구도 모르게 땅속 깊은곳에서 세차게 굽이쳐흐르며 사뭇치던 진정이라는 뜨거운 용암의 대하를 보았다.

진심, 가식과 허식이 없는 진심! 이것보다 더 아름답고 뜨겁고 열렬하며 값높은것이 또 어디

있겠는가 !

덕만이의 생활과 그의 심장과 뱃속에 자리잡고
있었던 것은 오직 이것뿐이었다.

기섭은 책상위에 놓여있는 청색단지를 보며 생
각하였다.

이것은 성숙이가 남편의 소원과 부탁을 들어주
어야겠다는 단순한 의리감에서 가져온것이 아니
다. 이것은 덕만이의 가장 가까운 사람인 성숙이
의 마음에 비친 덕만이 자신의 고결한 마음이며
또 그의 진심에 넘친 마음을 자양으로 해서 움트
고 자랐으며 색깔로 물들여진 성숙이 자신의 한
없이 깨끗한 마음이 그대로 비쳐있는것이다. 여
기에는 또한 덕만이와 성숙이 명길이만이 아니라
덕만이처럼 당을 받들고 수령님을 모시려는 우
리 어로공들의 아름다운 마음이 그대로 어려있지
않는가

그렇다. 우리 인민들의 이 비단결같은 마음을
무엇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우리 수령님께서 왜
이런 성의를 마다하랴.

《성숙동무.》

이윽도록 창문밖을 내다보며 서있던 기섭이가
돌아서며 흥분된 목소리로 찾았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이 성의를 절대로 마다하
지 않으실겁니다.》

기섭은 선망의 빛이 짙게 어린 성숙의 물기어
린 눈을 마주보며 확신에 넘쳐 말했다.

《비서동지 ! 》

성숙은 갑자기 솟구쳐오르는 걱정을 참지 못하
고 눈물을 쏟았다. 그는 급히 머리를 돌리며 고
름끈을 더듬어 찾는것이였다.

《고맙습니다. 비서동지. 저희들의 소원이 이루
어질수 있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성숙의 목소리는 흥분에 떨리며 간간히 끊어졌
다.

얼마나 바라고바라던 소원인가. 하루에도 열번
스무번 남편이 펼쳐보이던 그 책을 다시 꺼내보
며 남편이 머리속여 인사드리던 그자리에 자기가
서보며 귀전에 울리는 남편의 절절한 목소리를
심장에 새기면서 그가 바라던대로 살리라 마음
다져온 성숙이가 아닌가. 백리 밤길에 손발이 얼
고 눈속에 파묻혀 다시 일어설수 없는 그때에도
《우리도 뭔가 보답을 해야하지 않겠소.》 하며 눈
물짓던 남편의 얼굴을 눈앞에 그려보며 그의 부
름소리와의 같은 1278 호의 고동소리를 들으며
용기백배하여 달려온 성숙이다.

《비서동지, 저는 언제나 남편의 그 소원을 마
음속에 간직하고 살겠습니다.》

성숙의 흥분에 넘친 목소리가 방안의 근엄한
공기를 흔들었다.

밖에서는 언제부터 일기 시작한것인지 파도가
짜짜 요란한 소리를 내며 잔교와 부두벽을 때렸

다. 이미 밀물이 들기 시작한것이다....

×

...《어머니, 어머니 에이 온통 찾아다녔네. 여기
있는걸 모르구 빨리 떠날 시간이 되었어요...》

어제날의 깊은 추억속에 잠겨있자보니 어느새
명길이가 지척에서 뛰쳐오는것도 모르고있던 두
사람은 제마음으로 깜짝 놀랐다.

《아니, 아저씨도 여기 계시구...》

명길이는 여기에서 어머니와 아저씨를 찾게 된
것이 퍼그나 기쁜지 한달음에 달려와 팔에 매달
렸다.

《비서동지, 어떻게 여기에 나오셨습니까. 난 그
것도 모르구...》

그제야 기섭이가 자기와 멀지 않은곳에 서있는
것을 본 성숙이는 미처 인사하지 못한것이 민망
스러워 얼굴을 붉혔다.

《허, 동무가 나오는데 나라고 못나오겠소.
허...》

기섭이는 마치 못할것을 하다가 들킨 사람처럼
혜식은 웃음을 웃었다.

《아저씨 떠나겠어요.》

명길이의 쟁쟁한 목소리는 되알지게 울리였다.

《우리가 저쪽까지 바래주마.》

기섭은 명길이의 손을 이끌고 천천히 걸었다.
벌써 세번째로 걷는 길이었다. 3 년전 기섭은 감
격의 눈물을 머금으며 처음으로 떠나는 그를 바
래주었고 작년엔 배의 첫 조업식에 왔다가는 그
를 이렇게 바래주었다. 그런데 그때만하여도 애
된 송아지같던 그 애가 이제 얼마나 의젓해졌는
가? 제법 군인이 다 된듯 신통히도 아버지를 닮
은 그 얼굴모습...

기섭이는 어린시절 함께 덩굴어대던 그 모래길
로, 청춘시절 고향에 돌아온 제대병사 덕만이와
해저물녘까지 이야기꽃을 피우며 거닐던 이 길로
오늘은 그의 아들을 바래며 이렇게 걸고있다.

기섭의 마음은 감격으로 젖어들었다.

그들의 한발 뒤를 따르던 성숙이가 아들옆에
다가가서 낮게 속삭였다.

《명길아, 이걸 잘 간수해라.》

아들은 어머니의 말뜻을 대뜸 알아차리고 자기
가 메고있던 군대전투가방을 들어보이며 《여기에
넣겠어요.》 하고 대답하였다.

《너무 여러겹 접으면 못쓰게 되겠는데... 일없
겠니?》

성숙이가 걱정하였다.

《일없어요.》

명길이는 어머니앞에 자기가 메고있던 군대가
방의 옷뚜껑을 열었다.

이때 옆에서 걷던 기섭이가 무심결에 머리를
돌리다가 성숙이 손에 쥐여있는 착착 접은 비닐
보자기를 띄여보았다. 기섭은 주춤 걸음을 멈추

고 저도 모르게 성숙의 손에 들었던 보자기를 받아들였다. 네귀를 맞추어 가끈히 접었던 보자기가 기섭의 손에서 기폭처럼 활짝 펼쳐졌다. 기섭이는 저녁 노을빛을 받아 더욱 령롱하게 빛나는 푸른색보자기를 바라보았다. 순간 기섭이는 그 푸른 보자기가 마치 붉은 노을에 불타는 맑고 푸른 조국의 하늘과 같은듯싶었다.

푸른 하늘, 조국을 안고 끝없이 펼쳐진 조국의 저 하늘.

만경창과를 헤가르며 먼바다로 내달리다가도 못잊어 다시 우러러보던 조국의 하늘, 거기에서 언제나 찬란히 빛나던 해와 별,

바로 그 해님을 우러러 천리먼곳에서도 조국을 그렸고 바로 그 별을 우러러 조국을 찾아 험한 파도 헤쳐오지 않았던가?

아, 그제야 기섭이는 덕만이가 무엇때문에 그토록 의미심장하게 그 푸른 보자지를 쳐다보았고 무엇때문에 덕만이가 수수천리 날바다를 떠나는 길에 이 푸른 보자기를 가슴에 품고 갔었는가가 조금이나마 헤아려졌다.

덕만이는 바로 그 푸른 보자기에서 자기를 안아키워준 조국의 푸른 하늘을 보았을것이고 바로 그푸른 보자기에서 영원히 우러러따를 해와 별을 보았을것이다.

그리고 성숙이도 바로 그 남편처럼 그 푸른 보자기를 가슴에 지니고 험한 산을 넘고 비오는 령길을 내렸을것이며 오늘은 그들의 아들이 그들이 걸어온 바로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가라고 푸른 보자기를 안겨주는것이 아닌가...

기섭이는 끝없이 숭엄해지는 마음을 안고 그것을 다시 접어서 이번에는 명길이의 가방이 아니라 그의 앞가슴에 단추를 벗기고 그속에 넣어주었다.

《잘 간수해라,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여기에 간

수해라.》

《예.》

명길이는 불룩해진 자기 앞가슴을 만져보며 기운차게 대답하였다.

성숙이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아들의 옷웃 단추를 하나하나 꼼꼼히 채워주고 그의 옷을 바로 잡아주었다.

그들은 어느덧 긴재등의 미루나무밑에 이르렀다.

《명길아, 잘 가거라.》

자동차에 오르는 명길이에게 기섭은 손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명길이를 배려우는 기섭이와 성숙의 머리우에서 한껏 물기를 머금은 미루나무가지들이 조용히 설레이고있었다.

붕...

둔중하게 울리는 1278 호의 배고동소리가 어둠에 잠긴 긴재등의 미루나무잎새를 조용히 흔들었다.

《비서동지, 배가 떠나가요. 저 앞에서 가는 배가 그 배예요.》

성숙은 어느결에 벗어난 머리수건을 앞가슴에 모아잡고 배들이 가는 바다 멀리 수평선쪽으로 굴리듯 한발자국 또 한발자국 내짚으며 멀어져가는 배의 불빛을 끝없이 바라보고 서있었다.

다시 배고동소리가 길게 울렸다.

1278 호의 배고동소리가...

그것은 영생하는 인간의 숨결이었다. 그것은 만사람의 심장을 울리게 하고 것처럼 영생의 길에서 내달리게 하는 영원한 부름소리였다.

기섭은 끝없이 부풀어오르는 가슴을 쭉펴고 머리를 들었다. 구름한점 없이 푸르른 저 하늘, 거기에서 밝은 별이 반짝이고있었다.

예술영화 《평범한 사람》의 대사중에서

△ 주인공 원삼이 딸에게 하는 말.

《네가 당원증을 멘지 몇해나 되길래 벌써 당조직안에 그따위 교만하고 건방진 편지를 낼 생각을 했냐말이다, 내 너를 금옥같이 길러 당위원회문안에 들여세울 때 온 세상을 얻은것처럼 좋아했다.》

《나는 당초에 보탬을 주자고 당에 들었지 내세워달라고 당에 들지는 않았다. 헌데 보탬은커녕 반아안은게 더 많은 우리가 아니냐. 당에서 알아주면 됐지 그 이상 무엇을 더 바라겠니. 아버지를 내세워주고싶어하는 네 마음은 안다. 하지만 내가 바라는건 눈부신 훈장도, 소문난 이름도 아니

다. 이름 석자가 아무리 중타해두 로동당원이라는 소중한 이름에 비할수야 없지 않느냐, 응.》

△ 원삼이가 부기사장과 원칙적인 투쟁을 벌리며 하는 말.

《내 이제야 당신의 본색을 알겠소. 떡쇠에 번들거리는 도금칠한 너절한 가짜!... 당신은 저하나 편할수 있다면 나라가 거덜이 나두 눈섭하나 까딱하지 않을 사람이요... 당신두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이겠지... 그러구두 입만 벌리면 먹울알소리를 해... 내 오늘까지 대가를 바라며 일하는 사람들속에서 충신을 보지 못했소!》

백양나무 설레이다

계 훈

바람에 좌아-
백양나무 설레이다
저녁노을 내려앉는 저택의 정원길을
천천히 거니시는 우리 수령님

언듯 스치는 바람결에도
못참아 휘젓는 백양나무상가지
뒤척이는 천만앞새 속삭임소리
무슨 사연 그리도 깊고깊길래...

사연도 깊어라 정원의 백양나무
강선의 동무들이 보고싶을제
동무들을 보듯이 보겠다 하시며
강철지구 구내에서 떠옴기신 그 사랑 !

그 사랑의 품에 안겨 뿌리는 내리워지고
뿌리내려 하늘가에 줄기를 뻗었는가
줄기 뻗어 하늘가에 끝없이 설레이니
강철지구 불노을도 여기 와서 불타는가

다가서시여 줄기에 손을 얹으시고
다가서시여 설렁이는 소리에 미소 지으실제
어깨우에 스치는 저 작은 한가진
소중히 받들어 받들어 드실제

그만 눈물젖은 두볼을 그이 품에 묻던
그날의 그 용해공이 여기 달려와 선듯
강선은 오직 수령님만을 안다고 말씀올리는듯
자꾸만 뒤적이고 뒤척이는 저 백양나무

생각도 깊으신 우리 수령님
저 멀리 강선의 하늘가에 눈길을 보내시고
흘러오는 불노을을 뜨겁게 안으시거니
한없이 인자하신 미소를 지으시거니

아, 여기서 강선은 멀어도
아버이수령님의 정원속에 용해공은 살아라
백양나무 늘어선 강선의 구내길에
아버이수령님의 정원도 잇닿아있어라

아, 혁명의 먼먼 미래까지
우리 수령님은 이 백양 가꾸시리라
넓으신 한품에 힘으로 안으시고
세월의 언덕마다 이 백양 세우시리라!

노을이 흐르는 평양의 하늘아래
강선의 백양나무 설레이네
아버이수령님 품에 안기여
백양나무 설레이네 저물도록 설레이네

영원한 그 믿음속에

리영봉

밤하늘가
저 멀리 피어오르는 노을을 바라보며
출강의 종소리 이 가슴 흔들어줄 때면
더더욱 깊어가는 생각

쇠물을 휘젓는 이 팔뚝에
용솟는 열정은
그 어디에서 샘솟는지...
붉은 노을 머리우에 이고
돌아오던 퇴근길의 그 발걸음은
왜 그리도 활기로운지...

바라보면
밝게 트인 하늘에서

12월의 그 눈송이 내리는듯
내려와
이 어깨에 그 무슨 사연 속삭이는지...

만톤의 강재
그것이 우리 가슴에
크나큰 믿음으로 소중할 때
여기 용해장을 찾아주신
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불길 세찬 로앞에 다가서시여
친히 쇠물빛을 가늠해주시고
전기로의 거창한 숨결에서
드림없는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으시며

웃음많은 용해공과 이야기도 나누시고

누가 무어라고 해도

나는 동무들을 믿는다고

놈들에게 철추를 내리시듯

힘주어 말씀하시며

안겨주신 크나큰 그 믿음이어

그 믿음은

종파놈들을 펄펄 끓는 로속에 처넣겠다고

가슴 두드리던 그 억센 주먹에서

장쾌하게 울려 퍼지던 첫 출강종소리에서

우리 심장의 고동소리로 높이 올렸나니

아, 출강종소리 가슴 흔드는 이런 때이면

버릇처럼 다잡는 용해공의 이 마음

나래쳐오른 천리마에 박차를 가하며

언제나 앞장서기에 습관된

어제날의 우리 마음 래일로 달려가노라

세월의 끝까지

장호건

먼 옛날

하늘의 선녀들이 내려

그 이름 강선이라 했다면가

지금은 사람들 이렇게 부르노라

천리마구역

천리마제강소

불밝은 거리

그 어느 창가밑을 걸어도

그 부름 노래처럼 흘러나오는곳

아이들을 만나도

어른들과 말해보아도

자랑많은 천리마학교, 천리마병원 이야기

부르기는 쉬워도

어느 누가 그 깊은 뜻

다 헤아릴수 있으랴

그것은

이 세상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위대한 사랑이며 믿음

그 뜨거움속에 더듬어가면

재가루 흩날리던 폐허

험한 구내길을 헤쳐가시던

수령님 자옥

만톤의 강재를 두고 말씀하시던

그날의 음성이 가슴에 젖어들어

후더운 눈길을 드니

선녀들이 내린다던 하늘가엔

천리마가 나래치고

땅을 딛고 서니

그 발굽소리 천리를 진동하며

우리를 불러오는곳

아, 철의 지구여

백두의 전설을

천리마의 전설로

온 나라를 안고 창공에 나래쳐오른

력사의 땅이어

위대한 수령님 우러러 흐느끼며

우리 받아안은 천리마의 고삐

쇠물을 끓이며

강판을 밀어내며

조선의 방향타로 틀어진 이 땅

높이, 더 높이 날아오르리라

천리마의 고향땅에

철의 메부리들을 쌓아올리며

천리를

만리를

단숨에!

아, 먼 후날

하늘선녀 전설은 잊혀진다 해도

세월의 끝까지 불리우리라,

평범한 사람들이

끝없는 위훈속에 사는 이 땅을

천리마구역

천리마제강소라고

-천리마 제강련합기업소 출근길에서 진행한 선동벽시뭉음-

강선의 출근길이어

홍현양

발을 맞추자
강선의 출근길이다
용해공의 발걸음에
압연공의 숨결속에
조국의 맥박이 높편다

전설의 천리마가
조선의 천리마로 내려쳐오른 이 땅

이 땅의 출근길은
조선이 전진하는
시간이며 속도!

아, 강선의 출근길이어
너는 천리마의 발걸음
너는 조선의 쇠물이 폭포치는
첫시작점이다!

용해공의 눈빛

정영호

용해공의 눈빛은
그 언제나 빛나더라
한낮에도 피여나는 노을로
한밤에도 불타는 노을로

그 눈빛 빛날수록
나라의 강철기둥들은 솟아나고
만년대계의 기념비들은 일떠서거니
더욱 빛내이자 불태우자
용해공의 그 눈빛

그 웃음, 그 기쁨

김일규

활기로운 걸음걸음
출근길에 넘치는 웃음은
새해의 첫아침에 다지던 맹세
오늘도 꽃피울 기쁨일진대

웃으면서 걷자, 퇴근길에도
하루계획 다한 자랑넘친 가슴

땀땀이 이 길에 쪽 펴고
마음 무겁지 않게, 부끄럽지 않게

출근길의 웃음은
퇴근길의 기쁨
조국에 바친것 있어야
그 기쁨 공민의 참된 웃음으로 되리!

쇠물노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은 노동자, 농민들의 투쟁의 불길속에 용감하게 뛰어들어가야 하며 투쟁하는 노동자, 농민들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현실생활을 볼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신년사를 받아안은 온 나라는 지금 불타는 투쟁열, 혁명열로 끓어번지고있다. 이 벅찬 현실속에서 우리는 배낭을 지고 수수한 작업복차림의 작가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

《탄부들속으로 들어갑니다.》

《×× 집중수송화물역으로 갑니다.》

서로 가는곳은 다르고 말은 달라도 그들의 마음속생각은 하나로 일관되어있다.

얼핏 스쳐보면 그저 평범한 탄부이고 기관사인 것 같지만 담배한대 권하며 마주앉은 설참에조차 더 캐야 할 탄을 두고, 더 끌어야 할 화물량을 두고 말하는것이 오늘날 현실속의 주인공들이다. 이 주인공들속에서 우리의 작가들은 근면한 노동계급적량심과 인민적복무정신으로 정서적체험의 나날을 보내고있으며 그들속에서 열정에 넘친 작품들을 창작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로력적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고있다.

그 어느때보다도 들끓는 이 현실속의 작가들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는 서해 굴지의 대철의 기지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를 찾아 렬차에 올랐다.

첫 상봉

강선이 가까와옴에 따라 눈길은 자주 창가로 쏠렸다. 하얀 성애가 두텁게 앉은 새벽 렬차의 창문들엔 입김으로 녹인 자리가 새롭게 많이 생겨났다.

언뜩언뜩 전철기의 푸른 신호등들이 창가에 비치는것으로 보아 렬차가 역구내에 들어서고있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손잡들을 다시 손질하고 벗어놓았던 외투며 모자를 찾아쓰며 여유있게 처신할줄 아는 사람들로 하여 아무리 침착한 사람도 마음이 들뜨게 되는것이 이런 순간이다.

분비는 렬객들 틈에 끼워 역홈에 내린 우리는

곧바로 제강소를 향해 걸었다.

고층건물들이 늘어선 큰길을 따라 얼마쯤 걸었을 때 멀리 제강소쪽에서 금속성의 은근한 종소리가 여운있게 들려왔다. 이어 갑자기 붉은 화광이 하늘가득 피어올랐다. 전설속의 신비한 조화를 일으키듯 아름다운 쇠물노을은 저 멀리 수도의 하늘가로 흘러가고있었다.

그 황홀경에 취해 잠시 서있노라니 문득 제강소 정문쪽에서 방송원인듯한 열기띤 목소리가 울려왔다.

《위대한 수령님의 올해 신년사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1985 년 10 월 23 일 말씀을 높이 받들고 새해 첫 전투부터 련일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는 강선의 전체 노동계급들에게 우리 시인들은 가장 열렬한 축하와 전투적인사를 드립니다...》

《아니 시인들이...》

우리의 상봉은 이렇게 시작되였다. 아직은 푸르스름한 거리에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소리와 웃음소리로 차고넘쳤다. 공장 정문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행렬은 마치 시위대렬같았다.

그들의 발걸음에 맞추어 정문 가까이에 다가가 순간 우리는 주춤 걸음을 멈추었다.

시인 장호건동무를 비롯한 정영호, 계훈, 문선건동무들이 방송차앞에 서서 벽시선등을 하고있었다.

...

전설의 천리마가

조선의 천리마로 나래쳐오른 이 땅

이 땅의 출근길은

조선이 전진하는

시간이며 속도!

벽시의 구절구절은 우리의 가슴을 세차게 높뛰게 해주었다. 그 열정의 시 음정을 타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더욱 활기를 띠고 눈빛들은 더욱더 빛나는것 같았다.

우리의 첫 상봉은 방송차 마이크앞에서 말없이 굳게 잡은 손을 흔드는 짧은 한순간에 지나가고

뜸해지는 사람들의 뒤를 따라 현장으로 향한 구
내길에서 진행되었다.

모든 이야기는 백양나무로부터 시작된다

넓은 구내길을 따라 올라가던 우리는 백양나무
아래서 걸음을 멈추었다. 앞으로 뒤로 지나가는
사람들 그 누구나 잠시라도 바라보지 않고 지나
치는 사람은 없었다.

폐허우에 홀날리는 재가루, 무너진 벽체우에
로동자들과 허물없이 함께 앉으시여 힘있게 말씀
하시느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모신 대형유화판
앞에 정중히 다가가노라니 가슴은 마냥 후터워올
랐다. 그날의 애어렸던 백양나무가 오늘은 거목
으로 자라 꺾이지 않고 굽히지 않는 강선의 의지
와 신념을 말해주듯 사연깊은 설레임소리로 가슴
가슴을 흔들어주었다. 전후의 그 어려웠던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오셨던 그날로부터 오늘
까지 전기로결에서 쇠물을 끓이며 시인으로 자라
난 김창걸동무는 이렇게 말했다.

《타고장에서 처음 오는 사람처럼 이 교장토배
기들 역시 매일 출근길에서나 퇴근길에서 이 백
양나무를 바라보는것은 그저 우연한 현상이 아닙
니다. 쇠물이 잘 익지 않아도 자연히 눈길이 이
쪽으로 쏠리는것이 여기 강선로동계급이지요.

저 설레이는 아이들의 속삭임속에서 우리는 만
톤의 강재를 두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던 위
대한 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말씀을 다시 새겨안
으며 새로운 맹세를 다지는것이 이 땅 누구나의
습관이지요.》

결결한 목소리로 가식없이 침착하게 하는 그의
말은 어디선가 쇠물열을 안고오는듯 후덥게 가
슴속에 흘러들었다.

머리를 뒤로 제치고 나무우듬지를 바라보며 시
인 제훈동무는 낮으나 절절하게 시를 읊기 시작
하였다.

...

아, 혁명의 먼먼 미래까지

우리 수령님은 이 백양 가꾸시리라

넓으신 한품에 힘으로 안으시고

세월의 언덕마다 이 백양 세우시리라!

백양나무로부터 시작된 이야기는 끝없는 시세
계로 들어갔다. 시인은 조용히 눈곱을 훔치며 이
번에 창작한 시가 바로 《백양나무 설레인다》라
고 제목을 소개했다.

이 백양나무아래서 잔뼉이 굶었고 당원으로,
시인으로 자란 그에게 있어서 이 백양나무 설레
임소리는 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처럼 몸에 폭
배일것이었다. 강선의 로동계급 그 누구나의 한
결같은 감정의 폭발이라고 해야 이 시에 대한 평
가가 옳을것이다. 때문에 어제저녁 있었다는 시
인의 밤에 마감도 아닌 순서에 읊은 이 시를 듣
고 용해공들은 모두 연락에 나와 백양나무아래서
다지던그 맹세대로 영원히 강철로 당을 받들어
갈 불타는 열의를 다졌다는것이 아닌가.

시, 그것은 언제나 구체적인 생활속에서 몸에
폭 젖은 감정이라야 저렇듯 자연스럽게 흘러나오
면서도 시대의 목소리로 울려나오는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며 조용히 1강철직장쪽으로 향한
우리에게 시인 문선건동무는 이렇게 말했다.

《강선사람, 그 누구를 만나도 보든 이야기는
이 백양나무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
기서 강선이 다시 일어섰고 천리마의 기상이 나
래쳐올랐기때문입니다.》

한마디한마디 새겨들을수혹 참으로 깊은 뜻이
담겨진 말이였다.

때마침 대동강쪽에서 퍼져오르는 아침해살은
위대한 믿음과 의지의 상징, 강선의 백양나무아
지마다 어린 쇠물노을을 더욱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었다.

《현지합평회》

분피압연기라고 하면 누구나 시련받던 전후의
1956년을 생각하게 된다.

기술혁신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 6만톤능력의
분피압연기를 20만톤수준으로 끌어올리던 그 위
훈에 찬 나날들을 우리 인민은 영원히 잊지 않고
있다.

넓은 쇠블록을 간 작업장에 들어서니 첫눈에
안겨오는것은 시뻘건 강편들을 밀어내고있는 압
연기였다. 위용있는 압연기의 동음소리에 이어

확- 일어번지는 뿔은 화광은 작업장안의 기동마다 붙인 벽시판들이며 현지에서 시인들이 창작한 작품들로 특집호로 발간된 제강소 《전투속보》가 밝게 드러났다. 이 순간 압연기 뒤쪽으로 높이 자리잡은 운전실에서 조종대를 힘있게 틀어잡고있는 압연공들의 모습과 함께 수수한 벽체우에 새겨져있는 영웅메달이 한눈에 안겨왔다. 이 광경은 마치도 자기들의 일만을 보라고 내세운 압연기인것 같고 선뜻 눈에 띄우지 않던 금별메달도 당의 믿음에 쇠물로만 보답해나서는 강선의 마음처럼 이런 순간에 더욱더 빛나는듯싶었다.

우리가 들어서는것도 모르고 아까부터 기대열에서 두사람이 무엇인가 열정적으로 토론하고있는데 마음이 끌려 가까이 다가가니 땀 배인 작업복차림의 한사람은 시인 정영호동무였다. 현장에서 완성한 시작품을 놓고 오랜 압연공과 함께 토론하고있던중이었다.

언제나 소탈한 성미대로 그는 인사말도 채 끝나기전에 《합평회》에 우리를 초대했다. 이 《합평회》에서는 숨김없이 언제나 진정을 말할줄 아는 압연공들의 의견대로 벌써 여러번 수정한 대목들이 강조되고 시인자신이 옳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

땀 배인 작업복에 참으로 평범하고
그 어디서나 흔히 볼수 있는 모습들이건만
그 누구나 쉬이 받아안을수 없는
위대한 사랑속에
위대한 믿음속에
한생을 묵묵히 당을 받들어온 사람들

아! 우리 수령님
잊을수 없는 추억속에 살아있는
그 모습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세월앞에, 력사앞에
저렇듯 눈부신 금별로 빛나라

우리는 정영호동무의 현지창작품에 대한 첫 선을 본셈이다. 만사람의 눈빛이 모아오는 가운데

요란한 박수는 터져나오지 않았지만 시세계에 잠겨 미처 느끼지 못했던 우람찬 압연기의 동음소리가 더 크게 울려왔다.

압연공들은 한사람한사람, 어떤 사람은 젖은 눈빛으로 시인의 얼굴만 쳐다보면서, 어떤 사람은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쇠를 다루는 억센 손으로 정영호동무의 손을 굳게 잡아주었다.

우리에게로 다가온 나이지숙한 압연공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언제나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당의 기억속에 잊혀지지 않는 모습으로 이 압연기와 함께 영원히 당을 받들어나가겠습니다.》

마디마디 진정이 넘친 그의 말은 시에서 받은 감동과 흥분을 안고 로동계급이 토로하는 또 한편의 시였다.

미더운 로동계급들, 우리 인민이 있는 모든곳, 현실속에서 울려나오는 무심한 한마디한마디라도 그것은 다 시의 생명력을 담보하는 피방울같은 것이었다.

×

분피압연직장에서 나온 우리는 강재 야적장에서 잠깐 걸음을 멈추었다. 아직 채 식지 않은 강재들을 우물정자로 차곡차곡 쌓아놓은 넓은 공지에는 따스한 봄날 들판에서 볼수 있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있었다. 그 아지랑이가 사라지는 하늘가엔 붉은 노을이 비껴있었다.

한낮에도 지지 않는 저 노을-

실무지도의 그 바쁘신 길 떠나시면서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오래도록 바라보시며 강선로동계급의 마음이 어려있어 더욱더 아름답다 하시던 기쁨의 노을-

저 노을속에는 출근길도 함께 걷고 로앞에서 땀도 함께 흘리며 창작전투를 벌려나가고있는 우리 시인들의 불타는 마음도 어 려있는것 이 아닌가. ...낮이나 밤이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지지 않는 강선의 쇠물노을은 조국의 하늘가에 영원히 붉게붉게 피어있으리라 !

본사기자

건설장의 주인

주성준

1

새로 확장되는 회전로건설장옆으로 엇그제까지 굴착을 끝낸 제철소종합배수호가 지나갔다. 너비 8미터쯤 되는 수로안에는 간밤에 내린 비로 뿌연 물이 고였는데 하르르한 명주필처럼 끝없이 잔파문을 일으켰다. 10여리구간을 아득히 뻗어간 수면우에는 뜬김같은 엷은 안개가 떠서 까딱 움직이지 않았다.

배수로쪽우에서 조립직장 조립공 유성이가 오락가락했다.

얼핏 보면 소풍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머리에 건설 올려놓은 제대군인모자며 하얀 실장갑을 낀 뒤집을 진 손… 대차우에 실린 선반기만해보이는 검은 유지에 쓴 설비를 보면 필경 무슨일을 단단히 치를 잡도리를 하고있는것이 분명했다.

유성은 턱을 들고 건설장을 둘러보았다. 인차 뒤따라온다던 호근설비지도원도 기중기차도 보이지 않았다.

저편의 문형기중기는 마당처럼 넓다란 회전로기 초철판을 들어올리고 움쉴움쉴 앞으로 나가는데 호각소리, 떠드는 소리로 벽작했다.

유성은 어떤 조급함을 느끼듯 대차우에 실린 설비모서리에 손을 넣고 깡-하고 힘을 쓰며 허리를 펴려고 했다. 꿈쩍도 하지 않았다. 걷어올린 팔뚝에 울퉁불퉁 감겼던 굵은 힘줄들이 스르르 풀렸다.

《호호호… 유성동무, 바위를 안고 씨름하는 곰아저씨같은요.》

난데없이 간드러진 처녀의 웃음소리에 유성은 얼굴을 들었다.

설비창고쪽으로 뻗은 큰길로 달리는 자동차들속에서 몸뚱이가 노란 지게차가 빠져나와 가까이에 섰다. 운전칸에서 맞달린 곤색작업복에 빨간 수건으로 꼭 졸라맨 정미가 생글생글 웃고있는것이 아닌가.

《아, 정미동무요?… 오늘은 이 대차우에 실린것을 배수로 건너편으로 옮기는 전투요.》

유성은 별로 홀렁해보이는 작업복자락을 툭툭 털며 열적은 어조로 대답했다.

처녀는 운전칸에서 훌쩍 뛰어내리더니 이쪽으로 걸어오며 물었다.

《그게 뭔데요?》

《회전로 지지로라오.》

《그러니 이걸 통채로 안아서 저 건너편으로 훌 던져버릴 잡도릴 하겠구만요. 똥똥하지도 못한 몸에 어떻게 곰같이 우둔한 생각을 다해요. 호호…》

《허허…》

유성이라도 체면쩍게 웃었다. 그래도 유성은 만날 때마다 롱말을 곧잘하는 정미가 나쁘지 않았다.

정미를 알게 된것은 지난 초봄 어느날이었다. 그날도 유성은 원료직장의 1호미분탄분쇄기 중수리에 쓸 부속품을 실은 손수레를 끌고 언덕길을 오르고있었다.

그런데 뒤에서 발동소리와 함께 갑자기 손수레가 허공 들리는것이였다.

유성은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다.

난데없이 지게차가 앞뿌리로 손수레를 통채로 공중 떠시키고 달아나는것이였다.

유성은 운전공처녀가 장난을 하는것 같아 당장 내려놓으라고 소리치며 따라갔다. 운전수처녀는 손을 휘저으며 뛰어오는 유성을 보고 깔깔거리며 더 빨리 차를 몰았다.

처녀는 갈림길에 가서야 차를 멈추고 손수레를 내려놓았다.

《언덕길을 오르느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수 없어 그랬어요. 이해해주세요.》

불어났던 유성의 속이 처녀의 아름다운 마음에 스르르 녹았다.

언제 보나 동그스름한 그의 얼굴에 웃음이 남실거리는데 그럴 때면 눈은 감겨질듯 조프려지군한다. 그 틈새로 새별처럼 빛나는 눈이며 박속같이 흰 가쁜한 이새가 더 정답게 안겨오군했다....

처녀는 총각의 눈길과 마주치자 탄전을 부리듯 배수로쪽우에 올라섰다.

그러던 정미가 불현듯 《야, 장쾌하구나! ...》하고 손을 가슴우에 모두어잡으며 환성을 올렸다.

구내우에 몽몽히 덮였던 하얀 안개발이 무대막 건히듯 서서히 떠오르고있었다. 그것들은 꿈틀거리며 뒤채는대로 아침해살에 미묘한 연보라빛과 불그스레한 색으로 물들었다. 실안개의 마지막자락이 건히자 시뻘건 불길이 용트림하는 용해장이며 원료장옆에 놓이 솟은 검스레한 열교환실, 새로 뻗은 회전로동체 등 제철소모습이 더욱 선명하고 거창하게 펼쳐졌다.

거기에 끝없이 환희로운 눈길을 던지던 정미가 마침내 어떤 걱정이 가슴을 찢듯 무대 위에서처럼 손을 들어 명량한 어조로 부르짖었다.

《아, 정다운 나의 공장이어 ! 끝없는 나의 희망이여 ! …》

순간 정미는 넋을 잃은 눈길로 자기를 바라보는 유성의 눈길과 마주치자 허리를 갑작이며 까르르 웃었다.

그래도 유성이 눈길을 떼지 못하자 《왜 그렇게 봐요?…》하고 정미는 반발하며 의미있게 눈웃음을 쳤다.

유성은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후두두 뛰었다.

그는 열결에 변명같은면서도 숨길수 없는 마음이 담긴 말을 했다.

《동무가 회한하게 노니까 보는거지… 아니 뭐… 내가 보는데도 의견있소?》

《의견있어요. 나를 바라보는 그 눈길에는 제 마음을 어떻게나 녹여보려는 엉큼한 속심이 숨어있어요.》

《허참…》

유성은 기가 막혀 김빠진 소리를 냈다.

《호호호…》

재미있다는 듯 웃어대던 처녀가 저으기 살뜰한 어조로 물었다.

《지금까지 한 말은 다 통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옮겨요?》

처녀는 이렇게 한바탕 통쾌하게 웃고나야 마음이 제자리에 차분히 가라앉는 듯싶었다.

유성은 팔을 들어 빙-돌리며 배심있는 어조로 말했다.

《기증기차가 와서 이렇게 단번에 넘겨간단말이에요.》

《내가 올 때 보니까 기증기차가 정문쪽으로 나가던데요? !…》

정미가 까만 눈을 깜박이며 영문모를 일이라고 말했다.

《아마 창고에 기름먹으러 갔겠지. 인차 올게요.》

유성은 태연한 자세로 대답했다.

《만약의 경우도 생각하셔야지요. 기증기차가 못오면 그뎐…?》

《까짓거, 기증기차가 정 못오면 다리를 놓고서라도 건너가면 되지.》

《아니 혼자서 이 무쇠덩어릴 옮길 다리를 어떻게 놓는다고 그래요?》

《야, 설비지도원하고 함께 하게 되오. 무슨 수가 나겠지.》

《설비과에 호근지도원말이군요… 어쨌든 수고하세요.》

《?! …》

유성은 흥심을 잃고 사라지는 정미의 모습에서 어딘가 탐탁지 못해하는 인상을 받았다.

회색작업복을 입은 호근지도원이 나타났다. 오수관때문에 아직 배수로 량쪽을 그대로 련결해놓은 좁은 길목으로 넘어오면서 지게차에로 가는 정미에게 눈길을 주었다.

메고온 바줄을 대차우에 걸쳐놓은 그는 평평한 돌등에 앉더니 싱긋 웃으며 유성에게 물었다.

《보통사이가 아닌것 같구만?》

《그런게 아니라 저…》

유성은 머뭇거렸다.

《공장적으로 좀 잘 추고 쾌활하기로 소문난 처녀일세… 더우기 동무처럼 용한 사람한테 저런 팔랑이같은 처녀가 배필이지… 세대주대신 도장도 부인이 찍을게고 또 학부형회의나 세대주회의 두 다 도맡아 다닐게 아닌가… 이 건설징의 모든 일을 자기가 책임진것처럼 여기는 처녀니까 충분히 그럴수가 있지.》

《전 그 처녀 잘 모르지만… 그게 나쁘니까?》

《그건 룡담이네, 허허.》

유성은 어이없었다. 그 어느 처녀든 주물러놓는 대로 메주덩이처럼 모양이 변하는 그런 주책머리 없는 사나이로 자기를 보는 것 같아서였다.

유성은 고개를 돌려 벽작 떠드는 회전로기초대 쪽에 눈길을 주었다.

이때 배수로 건너편에서 직장통계원처녀가 나타나서 소리쳤다.

《호근지도원동지, 기증기차를 세시간후에 보내준다고 전화가 왔어요.》

《아니 그건 무슨 똥판지같은 소리요?》

호근지도원이 벌떡 일어나 되물었다.

《그럼 당장 지지로라를 옮겨야 할 우리는 어찌라는거요?》

《난 몰라요. 그저 전해주라고 해서 왔어요.》

통계원처녀는 더 할 말이 없는 듯 쪼르르 피어 자갈더미위로 사라졌다.

《차 이거 야단났군!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그럼 누가 이 일을 책임진다는건가?》

호근지도원은 행정사무실쪽으로 돌아선채 속이 타는 듯 중얼거렸다. 초조하고 안타까운 빛이 어린 눈길로 한곳을 주시하던 그는 연거퍼 빨던 담배를 신경질적으로 꺾 던지고 당장 무슨 일이라도 칠 듯 사무실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유성은 호근지도원의 뒤를 따랐다.

2

현장에서 올라온 호근지도원과 유성은 사무실 2

층 왼쪽복도끝에 있는 부지배인방으로 들어갔다.

이미 술한 사람들이 무슨 문제를 길게 토론하다 돌아간듯 앞상에 놓인 사발만큼 커보이는 황동 재떨이에는 담배꽂초가 수북이 쌓였고 연기가 자욱했다.

《울줄 알았소.》

얼굴이 기름하고 앞이마가 벗어지기 시작한 부지배인이 수화기를 쥔채 호근지도원을 힐끔 보며 고개짓으로 자리를 권했다.

그는 주먹으로 이마를 가볍게 툭툭 치고는 전화 받은 내용을 사업노트에 적었다.

호근지도원이 그 모습을 보며 얼른 근심어린 어조로 물었다.

《얼굴색이 좋지 않습니다. 어디 편찮으신가요?》

《뭘, 괜찮소.》

부지배인이 시답지않게 대꾸하며 빨간 연필로 필요한곳에 밑줄을 긋고 동그라미를 쳤다.

초조한듯 몸을 뒤채이던 호근지도원이 느닷없이 손바닥에 무슨 글자를 써가며 말을 꺼냈다.

《부지배인동지두 아시겠지만 구기자라는 한문으로 구할 <구>자이구 <기> 자는 기운기라는 <기>자이지요.》

《?! …》

부지배인은 번지던 책장을 잡은채 얼떠름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유성이라도 눈이 동그래서 호근지도원을 보았다.

《말하자면 원기를 돋군다는 뜻이지요. 구기자차를 하루도 빠짐없이 일년내내 마시면 기운이 왕성해지구 몸이 나지요.》

《허허… 동무도 그 덕에 혈색이 좋은가보구만.》

부지배인은 굳이 질사한 호근지도원의 매끈한 얼굴을 흥미있게 건너다보며 말했다.

흥이 난 호근지도원이 이번엔 꺾었던 아래다리를 반대로 꺾며 말을 이었다.

《구기자를 키우는 어떤 사람들은 울바자에다 무질서하게 올리는데 부지배인동지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선 나무모양을 잘 잡아주어야 합니다. 원대를 잘 꼴라 한메터쯤 올라가서 잘라주면 그끝에서 새로운 가지들이 뻗지요. 그중에서 충실한 가지 석대만을 자라웁니다. 그 세가지들을 각각 한메터쯤 올라가 잘라버리면 끝에서 또 새로운 가지들이 뻗지요. 계속 이런 식으로 자라웁지요. 이렇게 해서 몇년만 지나면 열매는 밤알만큼 커집니다. 밑둥은 기둥만큼 굵어지는데 그밑에다 우물을 파놓고 구기자뿌리를 씻어내린 샘물까지 마시면 한 백년은 문제없이 장수하지요. 틀림없습니다.》

《하하…》

부지배인은 호근지도원이 굳침까지 달게 삼키며 너무나 신통하게 이야기를 하는바람에 의자를 젖히며 입을 크게 벌리고 웃어댔다.

호근지도원은 웃지 않았으나 자기 말이 그처럼 큰 효력을 낸것이 흐뭇한 모양이다.

유성은 호근지도원이 난데없는 《구기자강의》에 시간을 보낸다고 불만이었는데 돌개바람에 휘말리듯 이야기에 끌려 얼굴이 환해진 부지배인을 보자 비로소 그의 의도를 알았다. 이제는 무슨 말을 해도 부지배인이 《중소, 중소》 하고 다 받아들일수 있게 따뜻하고 온화한 분위기가 마련된듯싶었다.

수건으로 눈물까지 닦던 부지배인이 손을 내리우면 말했다.

《더 한담할 새가 없소. 그래 기증기때문에 왔겠지?》

《예, 사실은 그때문에…》

《역에서 급한 화물하차가 제기돼서 거기로 돌렸소. 세시간만 기다리시오.》

부지배인은 간단히 말했다.

유성은 거뭇하고 큰눈을 꿈벅이며 부지배인의 얼굴을 유심히 보았다.

극히 실무적인 대답이며 뻥뻥한 눈빛에서 일이 안돼서 뛰어올라온 자기들의 심정을 너무나 몰라준다는 섭섭함을 느꼈다.

순간 유성의 가슴에서 원칙이 무시된다는 생활이 굴뚝처럼 뻗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군대동작 그대로 발뒤축을 모으며 흥분된 어조로 말했다.

《우리는 결린 문제를 풀기 위해 올라왔습니다. 회의때마다 일군들은 회전로조립을 이달말까지 끝내야 한다구 강조하는데… 아득바득하는 우리의 실정을 왜 몰라줍니까? 기증기를 돌린 문제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아니 동무는 누구요?》

심중해진 눈으로 유성의 아래우를 훑어보던 부지배인이 그를 끝내 알아보지 못한채 물었다.

호근지도원이 유성의 뒤자락을 급히 당기며 웅색해진 어조로 덧붙여 설명했다.

《예, 저… 이 동무는 얼마전에 제대퇴의 조립직장에 배치됐지요. 아직 실정을 모르다니니… 일하자는 열성은 높은 동무입니다.》

《응 제대군인!… 제대군인이라. 그렇지 그래…》

부지배인을 고개를 끄덕이며 제철소 물동하차형편을 일일이 설명하였다.

사정을 들어보니 회전로지지로라 운반문제도 급하지만 기업소전반형편으로 보아 기증기차를 역전으로 돌린것이 충분히 리해가 되었다.

유성은 부지배인의 얼굴을 다시 보기가 참으로 부끄러웠다.

무슨 생각에 골똥하던 호근지도원이 제먼저 일어나며 결심을 내린듯 입을 열었다.

《저희들이 잘못 생각했습니다. 부지배인동지가 책임지겠다니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양보하겠습니다.》

《아니, 책임진다는건 또 무슨 소리요?》

부지배인이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저...》

호근지도원은 어떻게 말해야 부지배인의 상한 기분을 돌려세울지 몰라 망설이다 얼결에 입을 열었다.

《가서 우리끼리 대책을 토론해보겠습니다. 하야튼 노력해보겠습니다.》

부지배인은 더 말이 없었다.

3

그들은 사무실밖을 나섰다. 주위를 돌아보던 호근지도원이 곁에서 걷는 유성을 섭섭한 눈길로 돌아보며 노여운 어조로 말했다.

《평시에는 조용하던 사람이 부지배인앞에서 그게 뭐가?... 우둔하기가 여간 아니더군. 그래서 기증기가 해결됐나?... 앞으로 주의하라구.》

유성은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부지배인한테 제기한것이 우둔할거야 없지 않는가, 모르고 말한것이 무슨 흠이란말인가.

그가 뭐라든 유성은 지금까지 회전로지지로라를 어떤 방법으로 옮겨볼것인가하는 생각밖에 없었다.

(배수로사이에 다리를 놓으면 어떨까?... 그다음 다리위로 대차를 끌어넘어가면... 그런데 다리는 어떻게 놓는다?...)

순간 유성의 머리에 묘안이 번개같이 떠올랐다.

유성은 용단을 내려 자기 속생각을 터놓았다.

《지도원동무, 배수로에 다리를 놓읍시다. 그우로 대차를 트랙포르로 끌고넘기면...》

《허허... 그야말로 기막힌 착상이요. 그렇게 하면 된다는걸 누가 모르나. 그래 다리는 맨손으로 놓겠소?》

호근지도원은 그렇게 말하는것이 여간만 답답하지 않다는듯 허구롭게 웃었다.

유성은 고집스럽게 말했다.

《대차앞에 있는 오수관이 지나간 좁은 길목을 넓히는 방법으로 해보자는겁니다. 길옆에 나무기둥을 박고 받침목을 올려놓은 다음 그우에 두터운 판자를 깔아놓으면 되지요... 전쟁때에는 끊어진 철교에 와야로쁘를 걸치고 기관차를 넘겼다는

데 이까짓거야...》

《동무,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게 되우?... 각재는 어디 가서 가져오구? 와야로쁘나 트랙포르, 꺾쇠, 쇠줄... 그걸 출고하자면 자재지도원을 만나 지도서를 떼구 자재과장한테 수표를 받구... 또 창고에서 받아놓으면 당장 뭘루 실어오겠나... 사람만나려 다니는새면 벌써 세시간이 지나가구 기증기차는 오고도 남아. 공연히 땀만 빼지.》

《그렇다구 세시간을 가만 앉아있을수야 없지 않습니까?... 지지로라를 옮겨가지 못하면 술한 사람들이 일감없이 앉아있게 되는데...》

《아니 그 책임을 누가 동무보고 지렸소? 부지배인이 조직하는 일이니 부지배인이 책임지게 되는 거지...》

호근지도원은 그가 왕청같은 말들을 하는것이 여간만 답답하지 않다는듯 통명스럽게 말했다.

《아니, 그럼... 대책을 세우겠다고 부지배인앞에서 한 말은 무슨? ! ...》

유성은 이해되지 않는 어조로 되물었다.

《부지배인앞에서 그럼 못하겠다고 대답하겠나?... 이제 보니까 동무는 조용한것 같으면서도 말이 터지니 보통 끈끈이가 아니구만.》

나중에는 유성이가 더 말을 못하도록 이렇게 놀려놓았다.

유성은 어이없는 눈길로 그를 보았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것처럼 믿음이 가던 사람이 지금은 전혀 낮모를 사람처럼 보였다.

유성은 고개를 들고 건설장쪽을 보았다.

언제나 풍만하게 피어오르는 굴뚝들의 흰 연기, 원료장과 제품출하장으로 달리는 구내차며 자동차행렬, 무수히 번쩍이는 회전로건설장의 용접불광들, 쿵쿵 철판 부딪치는 소리...

유성은 어떤 거대한 흥분을 안은 심장의 박동소리가 세차게 울리고있음을 느꼈다.

그는 호근지도원앞에 나서며 명확하고 단호한 어조로 물었다.

《그래 회전로지지로라를 우리가 옮기지 않아도 된단말이지요?》

호근지도원이 이마살을 찡그리며 안타까운 어조로 타일렀다.

《일없다는데두 그러누만. 참 답답한 사람이군...》

하긴 아직 사회생활에 신입병사이니 갇갇일수밖에... 각기 맡은 책임이 있고 위치가 다른데 공연히 자네가 책임지겠다고 나설게 뭐가.

군대에두 련대장이 있구 대대장, 중대장이 있듯이 여기두 지배인, 직장장, 작업반장이 있네... 부지배인이 책임질 일 따로있구 직장장 책임이 따로있는데 자네가 중뿔나게 나서지 않는단들 무슨

큰일이 나겠나.》

유성은 조용하나 근엄한 어조로 대답했다.

《군대에서는 지휘관들이 작전지도우에 화살표를 그을 때 병사들의 심장을 믿고 굽습니다. … 병사는 자기가 지켜선 한계 초소를 지키지 못하면 전전선, 아니 온 조국을 위협에 빠뜨린다는것을 심장으로 느끼고있습니다.》

이런 자각이 없다면 그는 병사가 아닙니다. 지도원동무도 이것을 모르지 않을것입니다.》

《?! …》

호근지도원은 담배를 받다 말고 멍한 눈길로 유성을 바라보았다.

《우리 건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배인 한사람이 책임질 일이라면 이 건설장에 지도원이나 조립공이 뭇때문에 필요합니까?》

《동무… 말 다했소?!》

호근지도원의 말소리는 떨렸다.

유성은 안타까운 어조로 말했다.

《지도원동무, 책임지겠다는 립장을 가지고 우리 힘으로 넘겨봅시다.》

《중소, 동무맘대루 해보우 ! 》

《유성동무, 어서 타세요.》

난데없는 처녀의 목소리에 유성이가 돌아보니 정미가 지게차를 옆에 바짝 갖다대고 바라보았다.

흥분해서 말하다보니 그가 언제 지게차를 굴러다왔는지 또 얼마나 기다렸는지 유성은 알수 없었다.

정미는 유성을 실고 차를 뒀- 하고 물었다.

그는 갑자기 들쭉쭉이는 배기가스와 먼지를 두손으로 휘휘 저으며 멀어지는 호근지도원을 흘끔 돌아보고나서 말했다.

《유성동무, 동무가 안타까와하는 말을 다 들었어요. 내가 도와주겠어요.》

《아니 동무가?!… 어떻게?》

유성은 정미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 지게차로 함께 옮기자요.》

《아 ! 지게차… 그럼 프락프르보다 훨씬 좋겠군. 고맙소.》

《아침에 하던 말이 미타해서 이쪽으로 오다보니 대차에 실린것을 옮길념두 못했더군요. 그래 동무를 찾던중이에요. … 대차앞에 있는 오수관이 지나간 길목으로 넘어가보자요.》

《고맙소…》

유성은 무슨 말로 기쁜 마음을 표현할지 몰라 입술을 움찔거렸다.

정미는 명민한 눈길로 흘끔 유성을 돌아보고는 살짝 눈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이제 보니 유성동무도 <쌈>을 곧잘 하더군요.》

《그렇게 말할것까지야워 …》

유성은 얼굴이 붉어졌다.

《그런데 내앞에서는 왜 말을 번지질 못해요. 아마 내가 말 못하게 하는 재간이라도 있는게지요. 호호호…》

정미는 유성의 속을 건드려놓은것이 자못 유쾌한듯 지게차의 속도를 더 높였다.

유성은 시무룩히 웃으며 정미의 타원형으로 곱게 휘어든 귀며 상큼한 코, 웃을 때마다 랑볼에 패우는 볼우물에 이르기까지 탐스럽고 이쁜 그의 얼굴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그들은 설비창고로 갔다. 창고장은 그들의 바쁜 사정을 외면하지 않았다.

《거기 쌓아놓은걸 가져다쓰구 인차 가져오라구. 다른 사람은 못믿어두 정미야 믿어야지.》

창고장아바이의 말이였다. 《인차 가져와야 하네!》

유성이와 정미는 판자와 각재를 지게차에 올려놓았다.

그들은 지게차를 몰고 오수관이 지나간 좁은 길목까지 왔다.

유성은 다리를 걷어붙이고 배수로안에 들어가 맞춤하게 골라온 기둥을 세우느라 지레대로 수로 밑을 뚫었다.

정미는 두텁고 긴 판자를 가까운곳에 날라다주었다.

기둥을 세우느라 침범거리던 유성이가 한참만에 입을 열었다.

《정미동무, 군대에선 이런 다리를 놓는 병종을 뭐라 부르는지 아오? 공병이라고 한단말이요.》

《나도 공병인가요?》

《당당한 공병이지, 회전로건설전투승리를 위한 도하작전을 하고있소.》

일손을 다그치는 유성의 얼굴에도 정미의 얼굴에도 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기둥을 세운 유성은 길쪽의 흙을 약간 파서 흙을 만들고는 거기에 레루침목같은 각재 한끝을 놓고 이쪽은 기둥우에 올려놓고 꺾쇠를 팡팡 박았다.

두개의 기둥을 완성한 다음 그우에다 두텁고 긴 판자들을 짝짝 깔아놓았다.

이렇게하니 좁던 길이 한 50센치메터도 더 넓어졌다.

정미는 그우에 올라가 안전성여부를 가늠해보더니 나중에는 뽕뽕기를 해보았다. 끄덕도 하지 않자 손뼉까지 쳤다.

유성은 오금을 꺾고앉아 미타한곳이 없는가 여기저기 세심히 살폈다.

그들은 이윽고 지게차를 몰고 대차에까지 와서 회전로지지로라를 지그시 올려튼후 천천히 다리를 향해 물었다.

지게차가 거의 다리목까지 왔을 때 호근지도원이 먼발치에 나타났다. 그는 뜻밖의 광경을 보고

허겁지겁 달려왔다.

호근은 대뜸 좁은 길목을 넓혀놓은 다리에 들어서서 놀라운 눈길로 살피며 《이거 우둔한짓들을 하는구만!》 하고 중얼거리며 유성이와 정밀르 번갈아 보았다.

《일없어요. 비키세요.》

운전칸에 앉은 정미가 담찬 어조로 말하며 지게차를 천천히 앞으로 몰았다.

드디어 한바퀴는 땅우에 다른 바퀴는 새로 설치한 나무다리우에 올라섰다.

호근지도원은 지게차에 쫓기듯 황황히 저쪽 배수로쪽우에 올라서더니 안절부절 못했다.

유성이와 정미는 긴장한 눈길을 수시로 주고받았다.

순간 찌궁- 아츠런 소리와 함께 두터운 널판자가 실리는 무게에 놀려 약간 밀으로 휘는듯했다.

유성은 나는듯이 밀으로 떨어지면서 거기에 지레대를 넣어 한끝을 길목에 박고 이쪽을 어깨로 올려받쳤다.

이때 저쪽 쪽우에 섰던 호근지도원의 얼굴은 새까맣게 질렸다.

《유성이, 비켜서라구!... 큰일나네.》

유성은 그 말을 들었는지말았는지 바위처럼 뚝 뻗치고 섰는데 지레대를 올려놓은 어깨에서는 살이 파들파들 떨어졌다.

이때 누군가 《벌써 일이 벌어졌군 !》 하며 징징징 물음 걸어차며 달려와 유성의 지레대밑에 어깨를 들이미는 사람이 있었다. 부지배인이었다.

유성은 몇배의 힘이 새로 생긴듯 나무다리밀을 더 억세게 올려받쳤다.

《정미동무, 차를 빨리 앞으로 몰라구.》

유성이가 힘있게 소리쳤다.

《만일을 생각해서 받치고있으니 걱정 말고 넘어가오.》

두다리를 기둥처럼 뻗치고선 부지배인이 안정된 음성으로 말했다.

호근지도원도 그 어떤 강한 힘에 끌리듯 배수로 안에 들어섰다.

정미는 입술을 꼭 깨물며 제동기를 놓고 차를 앞으로 천천히 몰았다.

유성은 정미가 차를 몰면서 피롭고 안타까운 눈길을 자기들한테서 떼지 못하고있음을 심장으로 느끼고있었다.

고속속에서만 쇠덩어리들이 녹아 한덩어리로 되듯이 이 순간이 없었다면 정미와 부지배인을 리

해할수도 더우기 정미와 자기 심장이 한덩어리로 합쳐지지도 못할것이다.

지게차가 어깨우를 천천히 굴러가며 무겁게 내려 눌렀다.

회전로조립을 앞당길 진격로가 이 순간 이 길목을 통해 마련되는것이다.

지금 유성은 자기들이 한개 군단의 돌격로와 같은 길을 개척하고있는듯이 생각되었다.

《어깨를 바투 들이밀라구!》

부지배인이 호근지도원에게 소리치자 그는 허리를 좀더 곧추 펴느라고 애를 썼다.

뼈마디들이 물러날것처럼 모지름을 쓰는 그 모습은 실상 마음의 모태김인듯 처절했다.

드디어 지게차가 천천히 배수로쪽우에 올라섰다.

정미는 지게차를 멈추며 머리를 맥없이 운전대에 기댔다.

그는 운전칸에서 일어날념을 못했다.

부지배인이 가까이 갔을 때 그는 어깨를 가볍게 떨고있었다.

《아니 울고있나 ?... 원 정미동무답지 않게...》

부지배인이 잡아끌어서야 정미는 운전칸에서 내려 빨강고 노란 꽃수건으로 눈굽을 닦았다.

《수고들 했어요. 정말 수고했어요.》

정미는 진정으로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했다.

유성이와 정미는 눈길이 마주치는 순간 약속이나 한듯 자기들이 넘어온 다리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비하면 티끌에 불과한 길이지만 평범하게 걸은 길보다 몇배나 더 길고 값비싼것이다.

부지배인은 믿음이 한껏 어린 눈길로 유성이와 정미를 바라보며 정다운 어조로 말했다.

《난 그래도 동무들이 내 얼굴만 쳐다보면서 손을 털고 앉아있을것 같아서 뛰어나왔지. 나와서 방도를 찾아보자구말이요. 그런데 벌써 일이 벌어졌구만 하하...》 부지배인은 절절 웃었다. 《유성동무와 정미동무를 보니 우리 건설자들의 책임성이라는 말에 담긴 의미를 두고 다시 생각하게 되누만.》

호근지도원은 고개를 떨구었다.

유성이와 정미는 지게차에 함께 올라타고 회전로 조립장으로 천천히 차를 몰았다.

그들을 바라던 부지배인은 호근을 돌아보았다. 《지도원동무, 또 떨어지겠소. 얼른 따라서우.》

용해공과 사랑

김룡팔

아침해살에 밝게 퍼지는 제강소구내길에 굶을 따라 흐르는 물길과도 같이 사람들이 흐르고있었다. 나날이 더 끓어지는듯한 벽찬 마음을 안고 나도 그들의 씩씩한 발걸음에 맞추어 걸음을 다그쳤다. 위대한 수령님의 올해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새해벽두부터 힘찬 진군길을 다그치고있는 낮익은 사람들의 얼굴마다에는 마치도 마라손강가에서 달려가는 선수들처럼 의기양양하고 패기와 정열이 넘쳐흐르고있었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아버이수령님과 당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속에서 나날이 룡성변영하는 조국에 더 많은 철강재를 보내라고 가슴볼태우고있는 충성의 대하, 영광의 대오가 아닌가.

그래서 나의 발걸음도 이처럼 가벼운것이 아닐가.

《야, 뒤모습을 보니 아버이가 분명한데 어찌나 발걸음이 빠른지 겨우 따라잡았네.》

한작업반에서 일하는 준철이가 숨을 헐떡이며 나의 곁에 바투 따라선다.

《허허, 그러니 넌 날 따라잡자구 단단히 신들메를 조이는구나.》

나는 큰소리로 웃으면서 준철의 상기된 얼굴을 넋지시 바라보았다.

《물론이지요. 모든면에서 아버이를 따라잡겠어요.》

로앞에 선지 1년 남짓한 올해 스무살나는 젊은 용해공은 제법 어깨를 으쓱했다.

그러는 그의 두눈은 류달리 빛났다.

《양보 안할걸.》

나는 50 고개에 들어섰지만 그 누구한테도 지고싶지 않았다. 아직도 몸은 젊음이 약동하고 크나큰 활력과 담력이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있었다.

언제나 청춘의 패기와 열정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 관철에서 앞장서 나가려는 이 불타는 심정은 아마 여기 구내길을 걸어가고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속에 하나와 같이 맥박치고있을 것이다. 그래서 승벽내기로 앞서거니뒤서거니 활

개를 치며 출근길을 다그치는것이 아닐가.

우리가 넓은 강철직장앞에 이르렀을 때였다.

《모두 선전실에 모이랍니다.》

단발머리 배전공처녀가 마주나오며 알리는 소리다.

《오늘은 종합조회날도 아닌데 무슨 일이요?》

준철은 호기심 어린 눈갈로 단발머리처녀를 바라보며 다우쳐 물었다.

《글쎄 무슨 경기를 한다는것...》

《경기? 아니 그럼 생산경기를 조직하는가?》

나와 준철이는 서로 마주 쳐다보며 머리를 긁어대었다.

선전실에는 벌써 용해공들이 짝 들어왔었다. 그속에 낮익은 아주머니들, 각 영양체식당 취사원들의 얼굴도 보였다.

(취사원아주머니들은 무엇때문에 왔을가.)

의혹은 점점 더 커졌다.

나는 로별 생산경기가 아니면 공구전람회의 범위를 더 크게 하자는게구나 하고 속으로 생각했다. 작년도 생산경기때만 해도 2 호호한테 한차지 쇠물량때문에 1 등의 우승기를 빼앗긴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알뜰근한 마음이 내라가지 않는다.

용해공들이 다 모이자 직장장과 초급당비서 그리고 몸이 류달리 뚱뚱하고 얼굴이 낯설어보이는 40 이 지난듯싶을 한 녀자가 뒤따라 들어섰다.

처음 보는 녀자였다. 용해공들의 시선은 일제히 그 낯선 녀자한테로 쏠렸다.

《그럼 지금부터 용해공들을 위한 료리경기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평양에서 내려온 옥류관 1 급료리사동무가 하게 됩니다.》

《아니 료리경기?》

《저런 료리경기를 하다니?》

놀라움과 감탄.

물을 뿌린듯 조용하던 장내는 갑자기 술렁거리기 시작하였다.

의혹에 찬 시선들이 마주쳤다.

순간 나는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뭉치가 옥 치밀어오르고 눈곱이 젖어오름을 느꼈다.

료리경기! 아 세상에 이런 희한한 경기도 있던

말인가. 용해공 30년을 해오며 처음 듣는 경기였다.

세상에는 그 얼마나 많은 경기들이 있는가. 그 모든 경기들은 힘과 지혜로써 자신의 명예와 등수, 선수권을 쟁취하려는데 있다. 더우기 탐욕과 권력으로 비대할대로 비대해진 자본주의세계,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세계에서 벌어지고있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말세기적인 경기들과는 얼마나 대조적인가.

사람의 목숨을 파리목숨처럼 여기는 한줌도 못되는 자본가놈들에 의하여 벌어지는 극단적인 경기들, 몇푼어치의 딸라를 위해 수십메터의 높은 도약대로 날아가는 날치기 자동차경기, 바다물속에 뛰어드는 자동차경기, 그리고 동물적인 근육경기과 미치광이 광대놀이경기로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형적인 불구자로 처참한 개죽음을 당하는 참극들이 벌어지고있는가.

거기에서 쾌락을 찾으며 수백수천딸라씩 탕진하는 부자놈들, 썩을대로 썩고 병들대로 병든 자본주의세계의 경기들은 차마 인간으로서 눈뜨고 볼수 없는 인간에 대한 희롱과 모욕, 동물적인 경기들이다.

하지만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우리 사회, 한갓 평범한 노동자- 용해공들의 건강을 위한 사랑의 경기가 진행되고있다. 고귀한 사랑, 권력과 탐욕으로써는 살수도 빼앗을수도 없는 이 위대한 사랑의 경기는 오로지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모신 사회주의조국 우리 시대에서만 있을수 있는 사랑의 경기인것이다.

나에게 젖을 먹여주고 키워준 어머니도 자식의 식성을 두고 이처럼 사랑을 안겨주지는 못했었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헤아릴수 없는 사랑을 다 안겨주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오늘은 또다시 우리 용해공들의 구미에 맞는 음식을 더 잘 맛있게 하여 건강하도록 요리경기를 조직해주신것이 아닌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식사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음식물을 만들어 노동자들의 요구에 맞게 공급하는것이 좋겠습니다

다.》

참으로 얼마나 가슴뜨거워지는 말씀인가.

어버이수령님께서 해방의 기쁨을 안겨주신 그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용해공들을 위해 돌려주신 사랑의 이야기, 사랑의 서사시는 끝이 없다.

거리마다 높이 세워주신 현대적인 용해공아빠트들, 용해공상점, 용해공식당들, 불을 다루는 용해공들의 눈이 제일 귀하다 하시며 세상에 으뜸가는 사랑의 보안경도 선참으로 보내주시였고 머나먼 현지지도의 그 바쁜신 나날에도 우리 용해공들을 생각하시여 창성의 단물까지 보내주신 어버이수령님!

추우면 추울세라 더우면 더울세라 금싸라기처럼 아껴주시고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하해와 같은 그 은정을 어떻게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으랴.

그런데 오늘은 우리들의 건강이 걱정되시여 음식상을 차려주시며 사랑의 경기까지 조직하시는 것이 아닌가.

용해공의 식탁에 이 세상의 가장 값지고 맛나는것을 차려주시려는 그 사랑!

인류는 이런 사랑, 이런 경기는 알지 못할것이 다.

어느덧 나의 눈앞에는 물안개라도 낀듯 뿌예진다.

(어버이수령님 ! 저희들이 뭇길래 이처럼 사랑만을 안겨주시렵니까 !)

선전실에 모인 모든 용해공들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샘처럼 솟구쳐오르고있었다. 걱정의 파도가 굽이쳐흘렀다.

사랑만을 안고사는 용해공의 행복!

우리는 사랑당이다.

하기에 그 사랑이 그대로 쇠물이 되고 나라의 강철기둥이 되는것이 아니겠는가.

요리경기 ! 그것은 단순히 그 어떤 생산경기나 기술혁신보다 몇천몇배의 쇠물량을 더 생산하는 위대한 사랑을 주기 위한 경기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웨치고싶다.

《올해 강철생산은 문제없다.》 라고.

출강의 종소리

문선건

내 언제나 듣는 소리건만
내 평생 들어온 소리건만
무엇때문에서인가
네 소리 들을 때마다
이 가슴 못견디게 울렁이는것은

내 여기 철의고장에 태어나
시름한 쇠내로 잔뼈를 키워서인가
쇠물과 함께 의지를
강철로 버려온탓에서인가

내 이 세상에 태어나
배움의 종소리
전야의 종소리 다 들었건만
네 소리처럼
내 가슴 울려주지 못했더라

종소리 종소리
너에게는 보고듣고 느끼는
눈과 귀와 심장이 없더라
너에게는 다만
쇠물이 다 익었다고 알리는
쇠망치에 맞은 금속의 울림이 있을뿐

허나 너는 언제나

내 운명의 길우에 울렸더라
짓밟혔던 그날에는 원한의 목소리로
꽃피는 오늘엔 기쁨의 노래로
수령님 모셨던 영광의 그날엔
만세의 환호로 터져올랐더라

그래서인가
레사로이 울리는 네 소리에
내 심장 그리도 진정하지 못하는것은
그처럼 맑고 쟁쟁한 그 울림에
쇠물처럼 깨끗한 내 마음도 비쳐보게 되는것은

아 종소리 종소리
너는 내 삶이 쇠물의 불꽃인줄을 깨우쳐준 노래
어머니의 다심한 목소리로 나를 키워준
정녕 바친것 없이는 들을수 없는 그 메아리

울려라 출강의 종소리여
쇠물이 다 익었다고
온 세상에 알리는 메아리여
그 어디에 있어도
생의 순간순간을
쇠물의 불꽃처럼 순결하게 피워주는
조국의 목소리여

용해공의 웃음

김창걸

대고조의 열풍 몰아치는 용해장
새 진군으로 부르는 구호의 굴발마저
불길처럼 춤을 추는 나들문 총계로
떠들썩 웃으며 용해공들이 내린다

때마침 솟는 해어 너도 마주 웃느냐
불새의 깃처럼 쑥 쳐들린 어깨
거침없이 내젓는 걸음걸이만 봐도
너는 알아야지 최고기록을 돌파했음을

대동강바람아 너야말로 시원하구나
달아오른 가슴들을 열어젖히니
내 조국 이른봄의 살뜰한 숨결은
온몸을 감싸며 어루만지네

경쾌한 환영곡을 왜 바꿀줄 모르느냐
장중한 무도곡을 높이 울리라
백두산에 메아리치던 혁명가요
가슴뛰는 그 선률에 맞추어
춤을 추자 불을 다루는 사나이들아
땅을 차며 날아보자 경제선동대 처녀들아

꽃다발이랑 꽃목걸이랑
있는대로 다 안고 다 걸고 나오라
어서 이 굴뚝아래로
웃을줄 알면 웃을 자리도 알아야지

여기가 아니더냐

폐허우에 남은 이 굴뚝 가리키시며
미국놈들은 폭탄이나 퍼부을줄 알았지
명중시킬줄은 모른다고
하여간 놈들이 얼마나 바빴던지
아무데나 망탕 던지고 달아뺐다고
수령님 호탕하게 웃으신곳이

타다남은 산천초목도 들썩거린
통패한 그 웃음소리에
피가 맺히던 우리 가슴도
들썩이며 따라웃었다

증오할줄 알았기에 웃을줄 알았노라
이는 일찌기 채더미우에서 키운 진미거니
우리의 웃음소리 높을 때

원썬들의 비명소리 높더라
웃을만한 강토에서
웃을줄 아는 사나이들
우리의 소리없는 웃음발엔
적의의 비수가 번뜩인다

어느놈이 어파대고 접어들테나
그렇다면 좋다 정 그럴라치면
우리는 맞받아치리라
채더미우에서도 맨주먹으로도
미제의 코대를 단매에 후려쳤듯이
그렇게 본때있게
불이 번쩍나게 티도 남지 않게
온 세상이 들썩하게 웃으며

집에 대한 시

허수산

집이란 무엇이던가

내 어린시절
네귀에 기둥을 뻗친
무너져가는 초가집에서 살며
조국의 가난과 슬픔을 알았다

나는 그때 송아지동무들과
강에서 미역감고 돌아오면서도
저것이 우리 집이라고 놀러들 오라고
뻗뻗이 말하지 못하였다

해방후 송진내 나는 새집에서
나는 처음으로 조국의 고마움을 알았고
미국놈의 폭격에 구덩이만 남은 집터우에
사랑과 증오로 내 마음속집을 세웠다

아 집이란 무엇인가

수십년이 지난후에도
손색이 없을 집으로 지으라-
천만재부 풀어주는 우리 당
그 사랑으로 일떠서는 모란봉기슭 새 집

나의 후대들은 태어나자부터

이 눈부시고 화려한 방안과
번쩍이는 가구들을 보며
조국의 고마움에 목메이리라

이 세상 그 어디에 가서도 .
이 집이 못내 그리워 돌아오리라
결사의 순간엔 이 집을 그리며
웃으며 원썬의 불구멍 향해 가리

아 집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비와 바람을 막아주는
한순한 개인의 안식처이던가
조국을 알게 하고
조국의 사랑이 시작되는 그 품이리

내 오늘은 뻗뻗이 말하노라
어린시절 말 못하던 그 말
저것이 우리 집이라고 놀러들 오라고
높은 집들이 치솟은 저것이 우리 조국이라고

온 나라 사람들을
귀한 손님으로 맞아들인
우리 집은
언제나 흥성이리라

해동갑이

한익훈

사단군의소장 오국진이 병동에 찾아갔을 때 공병전사는 피를 많이 흘려 밀랍처럼 창백해진 얼굴로 중태에 빠져 고요히 누워있었다. 아직 코밑에 보습털이 보르르한 애젊은 전사의 터실터실 조갈이 든 도톰한 입술은 시퍼렇게 피멍이 들었다.

여러발의 총탄이 왼쪽다리의 무릎아래를 꿰뚫고 지나가면서 뼈가 부서지고 혈관들이 끊어진 그의 부상은 치명적인 것이었다. 빨리 절단하지 않으면 가스피자와 같은 심한 감염후과가 초래될수 있었다. 오국진은 즉시 병동담당군의에게 수혈대책을 취할것과 절단수술준비를 지체없이 갖추도록 명령하였다.

《수술은 내가 하겠소.》

그리고 공병전사의 곁을 떠나 서둘러 문가에로 걸음을 옮기는데 옷통을 벗어붙인채 두팔을 쳐들고 연자방아처럼 빙글빙글 돌며 흰 봉대에 감겨지던 한 부상병이 저으기 반가운 표정을 띠고 알은체를 하였다.

《군의소장동지,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누구더라?》

오국진은 허리를 굽히고 부상병의 얼굴을 찬찬히 여겨보았다.

보통키의 균형잡힌 몸매, 성골진 코날, 실한 왼쪽팔뚝의 시뻘건 총상자리

《아, 영웅소대장이구만. 요면저는 용케 뺄소니 치더니만 어떻게 또 잡혀들었소?》

오국진은 눈웃음을 지으며 쳐들린 부상병의 팔굽을 조심스럽게 쥐었다놓았다.

《이거 정말 반갑지 않은 상봉이구려. 그렇지 않소, 소위동무.》

《안됐습시다, 소장동지. 신수사납게도 눈먼 총알에 그만 실수를 했지요.》

부상병은 어설픈 웃고나서 자못 걱정어린 표정으로 혼수상태에 빠져있는 그 애젊은 공병전사를 건너다보았다.

《소장동지, 저 동무의 다리를 꼭 잘라야만 합니까?》

《… ? ! 》

뜻밖의 질문을 당한 오국진은 그만 어안이 병병해져서 눈살을 찌퍼뜨렸다가 극히 실무적으로 대답하였다.

《달리 될수 있는 길은 없소.》

《아니, 우리 덕삼동무의 다리도 형편없었지만 되살려주지 않았습니까.》

영웅소대장이 받을 소처럼 한결을 나서며 급하게 부르짖자 오국진은 허거뜰 웃음을 지었다.

《그건 사실이요. 그러나… 여하튼 동무의 심정이 리해는 되오. 그런데 어찌다가 다리가 저렇게 되었소?》

이쪽의 말에서 얼마간의 희망을 얻었던지 영웅소대장은 다소 우려에서 풀려난 표정을 띠고 성급하게 말했다.

《저 동무는 오늘 전투에서 습격조의 돌격로를 개척한 영웅입니다. 우리가 한창 철조망을 개설하고있는데 놈들이 글썽 먼저 발견하고 사격을 시작했지요. 초를 다투는 급박한 사태가 빚어진 그 순간에 저 동무는 서슴없이 체모모로 철조망을 덮었습니다. 것처럼 높은 자기희생정신으로 사단의 전투승리를 보장한 동무의 다리를 자르게 된다니 정말 분합니다. 소장동지, 어찌하나 힘써 주십시오.》

감히 무엇이랴 대답할수 없는 자신이 못내 거북하게 여겨져서 오국진은 공연히 헛기침을 하며 걸음을 무겁게 내짚었다.

《그럼 믿겠습니다, 소장동지.》

간절한 기대가 애끓는 영웅소대장의 부르짖음이 병동문밖을 나서는 오국진의 뒤돌미를 끄당기는듯싶었다. 그는 끝내 영웅소대장에게 명백한 대답을 주지 못하고 떠나나온 자신의 처신이 여간만 불만스럽지 않았고 또한 몹시 피로왔다.

(덕삼이라니? … 그래그래, 두달전에 다리수술을 한 그 분대장을 두고 하는 말이다. 물론 그 수술도 쉽지 않았다. 나로서는 대단한 용감성이 발휘된셈이지.

하지만 공병전사의 다리부상은 덕삼분대장의 정도가 아니다. 그런데 한사코 덕삼분대장의 다리처럼 되살려놓으라구 하니 원참… 의사의 직분을 가지면 무엇이냐 마음먹은대로 척척 해내는것으로 믿어버리니 이게 야단 아닌가.)

이런저런 생각으로 오국진은 마음속을 우울하게 파고드는 피로움을 놓치려 했으나 영웅소대장의 절절한 부르짖음이 하냥 귀전에 매달려 마음은 저으기 번거로웠다. 지금 생각해보니 결국 바라는 마음에 실패 응하지 못하는 자신의 능력이 한스러워 공연히 기분을 잡쳤다. 정형외과분야에서 일정한 권위를 가지고있는 자신이고 보면 누구나 그에게서 행여 기적이 일어날것을 기대할 권리를 가지고있는 것이었다.

사실상 그는 완전히 절단된 다리나 팔을 원상

회복시킬수 있는 립상학적가능성의 공간속에 자신이 장차 대담하게 뛰어들고말리라는 절절한 욕망을 내심으로 은근히 품고있는것이였으나 막상 그런 경우에 맞다들리면 매번 소심해져버리는 마음을 달랠 길이 없는것이였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오르락내리락하는 천평저울의 한복판에서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다가 끝내 《서뽀리 행동하다가는》 하는 위구의 편에 스스로 전몰하면서 기울어지고말았다.

자신이 거처하고있는 반토굴집문고리를 잡으려던 오국진은 등뒤 어디에서인지 《하나… 둘…》 하고 원심을 쓰는 처녀의 부르짖음이 들려와 무심중 그쪽을 띠여보았다. 봄빛이 무르녹은 저 멀리, 송이버섯같은 흰구름이 곧추 퍼져오른 새파란 풀언덕에서 흰 위생복의 간호원과 한다리를 부상당한 환자가 맹렬하게 걸음련습을 하고있었다. 한걸음씩 간호원이 뒤로 물러서는데 따라 부상병은 위태롭게 몸의 균형을 가누면서 힘겨운 걸음마를 떼고있었다.

오국진은 까닭없는 긴 한숨을 내몰고는 머리를 설레설레 저으면서 반토굴집문으로 허리를 굽히고 들어섰다.

(아직은 일러. 참새 황새걸음하다가는 다리가 째질수 있다잖은가. 슬픈 일이지만 인정해야 해. 절단하지 않으면 어쩔겐가. 도대체… 괜히 마음이 설렁해가지구, 원참.)

오국진이 수술준비를 서두르며 물문은 손을 닦는데 낮다란 널판자문이 손기척도 없이 벌컥 열리였다. 창살같은 해빛이 문밖으로 번쩍 새어들어 방바닥을 들부시더니 다듬이돌같이 단단한 어깨우에 굵은 목이 바투 얹혀있는 사단장 최만형이 급하게 방안으로 들어섰다. 가뜩이나 협소한 방안은 몸집이 거울진 사단장이 들어서자 대번에 배좁아지고 무거워진듯싶었다.

앞으로 쪽 뻗친 팔자형의 짙은 눈섭밑에 가느다랗게 찢어진 두눈이 따뜻한 인정에 무뎠어있는것으로 보아 사단장이 저으기 행복하고 흡족한 기분에 잠겨져있다는것을 오국진은 습관적으로 느낄수 있었고 그자신 또한 무겁던 마음이 개운해지는것 같았다. 하긴 오늘은 사단에 있어서 큰 명절 맞잡이날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최고사령관동지의 전략적방침을 관철함에 있어서 사단의 전술적기동에 큰 암으로 되고있던 적들의 △고지를 오늘 새벽습격전투에서 30 분도 넘기지 않고 빼앗아내는데 성공했던것이다. 놈들이 《불퇴의 방어진》 이라고 호언장담했던것처럼 사실상 △고지는 공격상 매우 불리한 지형조건을 가지고있는데다가 몇고개의 철조망을 휘둘러놓아서 웬만한 배심이 없어가지고는 타고았을 생각을 감히 할수 없었다. 조국광복의 성전에 나선 20 대의 청춘기

부터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슬하에서 출창 화약내로 뼈를 굳히며 성장해온 이름난 싸움군인 최만형에게 있어서 △고지는 늘 가슴속에 굵은 상처처럼 여겨져있었다. 그런걸 눈감박탈새에 때려엎었으니 최만형이 어찌 성수가 안나겠는가.

최만형은 허우대 큰 키를 쪽 퍼느라고 낮은 천정에 머리를 찡는 오국진의 어깨를 짚어 의자에 도루 앉히고 자기도 의자를 끌어당겨 마주앉으면서 주머니에서 스텐담배팩을 꺼내여 펼치였다. 그래서 오국진에게 한대 쥐여주고 자기는 대가리가 커다란 마드라스파이프에 담배를 부스러뜨려 다저넣었다.

《내 지금 그 애한테 갔다오는 길이야. 수혈을 받고 피어났구만. 그래 어쩐가. 그 애 다리가 말일세, 영?》

사단장은 실눈을 짓고 오국진의 얼굴을 찬찬히 여겨보았다.

《심합니다.》

《그렇게지. 총알이 여러방 뚫고나갔으니깐. 그런데 이 사람 동갑이, 난 그 애들한테 장담하고 왔구만.》

사단장은 파이프를 입에 물고 성냥을 드륵 그어서는 오국진앞으로 내밀었다.

《먼저 불이십시오.》

오국진은 황황히 사양했다.

《별나군, 어서 불이라니깐. 괜히 손톱눈을 태워먹겠군.》

늘 두사람사이에는 이처럼 사단장의 소탈한 인품으로 하여 상하관계가 무랍없이 깨어져버리고 만다.

사단장은 두터운 입술 한옆으로 파이프를 밀어서 꼭 문채 연기때문에 실눈을 지으며 저으기 심중한 어조로 건네었다.

《그 애가 글세 다리걱정하잖겠나. 절단해버릴가봐서말이지. 그래 내 마음 폭 놓으라고 일렀네.》

《그의 마음을 안정시킨건 정말 잘했습니다.》

사단장은 오국진의 말뜻을 새기는듯 덤덤히 생각에 잠겨 담배연기만 풀풀 뿜어대다가 갑자기 두눈을 둥그렇게 뜨며 무릎을 때렸다.

《내 병동을 나오다가말이지 그 호랑이소대장을 만났됐네. 동갑이도 생각날거야. 몇달전에 병원에서 도망쳐버려 소동을 일으킨 그 영웅애있잖아?》

《팔을 부상당했던…》

《옳아, 옳아. 그녀석이 오늘 새벽습격전투에서 또 바른쪽어깨밑에 한방 얻어맞고 죽지 부러진 새처럼 끌려왔더구만.》

《저도 아까 얼핏 만났됐습니다.》

《만났됐구만. 그래 뭐라 안함데?》

《아니 별로…》

오국진은 어색하게 말을 더듬었다.

《그녀석이 글썽 눈먼총알에 운수사납게 얻어맞았다면서 나한테 참 의미심장한 말을 하잖겠나.

<사단장아바이, 저 동무의 다리를 어떻게 하나 살려내야 합니다. 저 동무는 늘 영웅이 돼서 장군님을 높이 모신 승리의 광장 열병식에 참가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동무입니다. 통답이 아니라 정식으로말입니다.>

코등이 시큰해지더구만. 그래 내 그녀석의 어깨를 철썩 두드리며 큰소리쳤네. <마음놔라. 너희들 그 덕삼인지 산삼인지 하는 분대장녀석의 다리가 어떻게 되었겠어. 누구나 다시는 못살린다고 했지? 그러나 그녀석이 지금 너희들 소대에서 여전히 펄펄 날아다니는데 그게 뉘덕이나? 우리 군의소장이 있는데 걱정을 놓아라.>

그랬더니 그녀석도 좋아서 껄껄 웃더구만.

사단에서는 그 공명전사애녀석을 영웅으로 내신하려고 하네. 문제는 그 다리야. 실은 동갑에게 달렸지. 내 다리라도 푹 떼여주고싶은 심정을 어쩔수 없네. 그렇게 해서라도 되는 일이라면 얼마나 좋겠나. 어찌하나 그녀석이 금별메달을 번쩍아면서 승리의 열병식장으로 발구름을 울리며 지나가게 되어야 하겠는데...》

좁해서 볼수 없는 걱정의 빛이 사단장의 얼굴에 무겁게 실리는것을 보면서 오국진은 자기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공명전사가 품고 있는 녀원은 실로 감동적인것이였으나 그게 인젠 다리의 치명적인 부상으로 하여 도저히 실현될수 없게 되었다는것이 오국진을 여간만 괴롭히지 않는것이였다. 한순간은 제길할, 뒤는 어찌되든 한번 해볼가 하는 생각이 불같이 일다가 이내 재불 사그라지듯 꺼져버렸다. 확신을 못가진 모험에 서둘러 덤벼들수 없는 자신이였다. 그러자 자신의 존재가 몹시 무뎡하게 여겨지면서 세상에 많고많은 직업중에서 하필 의사가 되었을건 뭐람 하는 별난 불만까지 욱 치밀었다.

《저도 사단장동무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

오국진은 눈길을 떨구며 어느 사이에 불이 꺼져버린 담배를 재털이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그러나 그 동무의 다리를 빨리 절단하지 않으면 위험한 후가가 초래될수 있습니다.》

《절단하다니?》

최만형의 철빛얼굴이 엄엄하게 굳어지고 팔자형의 짙은 눈썹이 움썩했다. 금시 그 눈썹밑에서 우뢰가 울고 번개가 일것 같았다.

오국진은 흔들리는 마음을 애써 다잡으며 가느한껏 랭정해지려고 모지름을 썼다.

《현대의 학이 아직 그 정도의 부상에 대해서는...》

《여보, 임잔 언제인가 푹 떨어진 팔이나 다리

도 붙일 때가 꼭 온다구 했지? 그게 동갑이 한말이 분명한가?》

《그건 사실입니다. 제가 한 말도 틀림없구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립상학적가능성에 불과한것이지 실천적으로는...》

《여보, 여보, 그 가능성을 대담하게 현실성으로 만들어놓으면 될게 아닌가. 언제까지 가능성만 운운하겠나. 그 가능성이라는것두 현실성으로 전환될수 있는 가능성이겠지 ? ...그렇다면 그거야 심장이 하는 일이 아닌가.》

사단장은 성이 독같이 올라 주먹같은 마드라스 파이프대가리로 재털이를 탕탕 두드리었다. 담배불씨가 여기저기로 별찌처럼 튀어났다. 《여보, 현대의 학이구 나발이구 절단하면 안돼. 그 애는 우릴 믿고있단말이야. 구체적으로는 임잘말이지.》

《믿어주는건 좋은데 전 자신없습니다. 사실 수술조건도 걸리고...》

《자신도 없고 조건도 걸린다? ...흠.》

사단장은 쓰겁게 코방귀를 끼고는 자리에서 불쑥 일어나 대통을 틀어잡은 푸들푸들 떨리는 손으로 오국진을 향해 위협하는 시늉을 했다. 《정 자신이 없다는건가?》

오국진이라도 눈길을 떨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렇게밖에 대답할수 없는것이 유감스럽습나다.》

《유감스럽다?... 하긴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지.

난 어쩐지 지금 이 순간에 과연 임자가 저 불타는 락동강을 건넌던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구만. 죽음이 눈앞에서 운명을 희롱하던 그 격전장에서 임잔 조금도 당황해하지 않고 우리 영웅전사들을 구원해내느라고 자신을 아낌없이 바쳤지. 누가 그렇게 할 조건을 우정 임자에게 만들어주었던가? 천만에, 혁명전우들에 대한 뜨거운 의리에 기초해서 임자스스로 한 일이지.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그저 자신없다, 수술조건이 걸린다... 말은 바른대로 그렇게 줄장부가 되어버린 임자를 보게 되니 정말 놀랍네. 그래도 난 임자가 내 심장부근에 박힌 총알을 끄집어내는 그 어려운 수술을 해낸 때부터 오늘까지 내내 대단한 사람으로 알았지. 그런데 이제 보니 공연한 노릇이었거던. 능력이 어떻소 조건이 어떻소 하고 부들부들 떨지만 말고 한번 해보겠다는 배심을 가지고 내민다면 하늘의 별이라도 못따올가. 흠.》

오국진은 줄포탄을 퍼붓는 사단장의 성품이에 그만 머리가 뻥뻥해져있다가 침착하게 건네었다.

《주관적욕망만 가지고서야 안되지요.》

《알량한 소리, 듣기도 싫소.》

사단장은 불이 꺼진 파이프로 락상우를 요란하게 탕 두드리었다.

《두말할것없이 그 애의 다리를 고쳐 못놓겠으

면 입자 마음 내키는대로 어디든지 가버리라고. 입자같이 속이 찢물찢한 량반이 나한테 무슨 소용있어. 필요없단말이야.》

금방 태워버릴듯 노려보는 사단장의 황황 불이 날리는 두눈구석에서 오국진은 례의 눈물방울이 그렇그렇 고여 번쩍이는것을 보고 저으기 놀라였다.

《나도 이 사단장자리를 내놓겠어. 무슨 면목이 있어. 그너석들이 뭐라구 할텐가. 대포만 탕탕 쏘고 돌아다니다구 시비질할게 아닌가. 다 필요 없어. 필요없단말이야.》

사단장은 그냥 씩씩거리며 오국진을 노려보다가 꺾 돌아서서 빠른 걸음을 옮기었다. 문을 활 열었다가 달아메치는 서술에 아군에 포란이 날아와 터졌을 때처럼 천정에서 흙부스레기들이 푸실 푸실 떨어졌다.

오국진은 의자에 붙여 주저앉아 불 꺼진채로 탁상 한귀통이에 굴러내린 담배를 쥐여 불을 붙여물었다. 분을 이기지 못하여 욕육하던 사단장이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린 방안은 세판게 쏟아붓던 소낙비가 불시에 푹 벗어나버린 때처럼 썰렁해져서 마음을 별로 울적하고 엄숙하게 하였다.

생각할수록 맹랑하기만 했다. 7년세월 서로 가까이 지내오면서 언제 한번 큰소리 있어보지 못한 그들이었다.

두사람의 첫 상종은 1945년 8월 항일혁명전쟁이 위대한 승리로 결속되던 그 역사적인 시기에 부상자와 의사와의 실무적인 관계로 이루어졌다.

북부조선의 한 회사병원에서 외과의사로 취직하고있던 오국진이한테 담가에 실려온 부상자 최만형은 오른쪽가슴이 온통 피로 질벅해있었다.

부상이 위급하여 본능적으로 수술칼을 들었지만 오국진은 손이 떨리었다. 가슴에 박힌 탄알을 끄집어내는 수술을 처음 해보는 그였다. 더우기나 해안도시의 상륙작전에 집요하게 저항해나서는 일제침략군놈들의 화점을 세개나 단신으로 까부시다가 그만 가슴에 총탄을 받은 이 부상자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슬하에서 용명을 떨쳐온 조선인민군 지휘성원이라는 사실이 그를 몹시 긴장시켰다.

《의사선생, 우물쭈물할게 없이 어서 칼을 대시우다. 제몸에 박힌 총알을 처음 끄집어내는 내가 아닌걸요.》

피를 덜린 창백한 얼굴에 애써 웃음을 짓고 부상자는 조갈이 든 두툼한 입술로 띠엄띠엄 건네고나서 눈을 깜빡했다. 부상자의 태연자약한 모습은 오국진에게 비상한 신심과 고무로 되어 난생처음 해보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낼수 있게 하였다. 마취제가 부족한 조건에서 진행하는 그 수술이 심한 고통을 이겨내야 하는것이였으나 부상자는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신음소리를 입

술을 깨물며 참아내었고 수술이 끝났을 때에는 오국진의 손을 덥석 잡으면서 《고답소, 의사선생.

선생은 정말 의술이 귀신같구려. 내 오늘까지 제몸에 박힌 총알을 세번째로 끄집어내었는데 선생이 눈깜짝할새에 해내는통에 고통을 덜 느끼게 되었구려.》 하고 감사와 경탄의 정을 금치 못해하였다. 오국진은 불가항력의 거대한 인내력을 지닌 부상자에게서 무엇이랴 표현키 어려운 깊은 감동과 힘께 정신적위압감을 받았다.

최만형은 한달남짓이 병원침대에 누워있었는데 그동안 두사람의 우정이 각별하게 두터워져갔다. 성미가 누그러져 어푸수수해보이고 키가 원칠한 오국진이 강단있는 칙빛얼굴에 팽팽하게 힘이 넘쳐나는 최만형이보다 누구에게나 서너살은 위로 보이였으나 실상 나이짙을 해보니 일년도에 누리없는 해동갑이인데 최만형쪽이 두달열흘 먼저여서 주위사람들을 수태 웃겼다.

상처가 채 아물지 않았건만 최만형은 오국진의 만류를 한사코 뿌리치고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리해해주게, 동갑이. 해방된 조선에 할 일이 켜고쎄데 장군님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지 못하고 무사태평하게 그냥 누워있자니 가슴이 막 뻐개지는것 같구만.》

이렇게 간절하게 말하는 최만형을 오국진은 더 붙들어들수가 없었다.

1948년 봄 어느날 조선인민군 련대장의 직무를 지닌 최만형이 뜻밖에 오국진앞에 나타나 제 잡담 그더러 자기네 련대의 군의소장으로 임명되였다면서 보기만 해도 엄숙해지는 으리으리한 임명장을 내밀었다.

오국진이 련대에 도착한 달에 최만형은 자기의 명의로 톡톡히 차려놓고 하부지휘성원들이 다 모인 가운데 이렇게 말했다.

《인젠 내가 의술이 귀신같은 동갑이를 먹어왔으니 솔직히 얘기하겠네. 사실 동갑에게 도내 보건사업을 추켜세우기 위한 중책이 예견되어있더구만. 그런걸 내 한사코 우겨서 빼왔는데 섭섭하면 섭섭하다고 솔직히 말해주게.》

오국진은 머리를 설레설레 저으며 최만형의 앞에 놓여있는 빈잔에 술을 따랐다.

《변변치 못한걸 끌어왔다고 후날 그쪽에서 되려 후회할가봐 겁나는군요.》

그 말에 최만형은 걸작이라면서 꺽꺽 웃었다.

그때로부터 두사람은 류다른 우정의 끈에 매여 서로 한시도 떨어질줄 몰랐다. 그런 두사람사이에 오늘 뜻밖에도 애젊은 공명전사의 다리때문에 큰 《전쟁》이 일어났으니 오국진은 생각할수록 꿈처럼 믿어지지 않았다.

(어디든지 마음 내키는대로 가라구? 흥, 가라면 못갈줄 알구... 그런데 저는 또 왜 사단장자리를 내놓겠다는거야?)

어느 구석에 꼭 눌러박혀 잠을 자던 분김이 그 마적에야 꿈틀대며 눈을 떴다.

(제가 가라면 내가 가?... 저만 그 공명전사의 다리가 걱정된다는건데 그래 누군 뭐 돌심장이라? 그러구 나더러 속이 찢물찢한 량반이라 했겠다. 형... 이젠 도대체.)

아까는 그저 날 잡아잡수소 하고 참아낸것이 꼭 못난이구실을 한것만 같다. 그는 사단장이 였로당토않게(적어도 그에게는 그렇게 생각되었다.) 으르닥다할 때 마주 불질을 하지 못한 자신이 심심히 뉘우쳐졌다. 언제나 그의 분노는 때늦게 부글거리였고 그때문에 실상 마음에 실리는 피로움의 부담이 한결 더 큰것이였다.

문득 화를 내면서도 두눈귀에 눈물방울이 그렇게 거리던 사단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저 분해서 사단장이 눈물까지 내보였다고 하기에는 그 눈물방울에 너무나도 고결한 녀이 깃들어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자기더러 지금은 어쩐지 불타는 락동강을 건넌던 사람같지 않다고 준절히 질책하던 사단장의 부르짖음이 귀따갑게 되살아왔다. 그것은 짜장 지나치게 혹독한 힐책이여서 숨이 막힐 지경으로 분통이 끓어오르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를 랭정하게 돌이켜보게 하는 준엄한 직시를 예리하게 번뜩이고있었다.

...멈춤을 모르고 울부짖는 포화의 우뢰속에 밤조차 타버려 대낮같았던 락동강 도하장, 그 혈전장에 분명 오국진자신이 서있었다. 초보적인 수술조건도 보장되지 않았지만 피흘리며 쓰러지면서도 이 땅에서 미제침략자들의 마지막숨통을 요정내자고 부르짖는 전사들을 구해내기 위해 오국진은 놈들이 숨돌릴새없이 망탕 쏘아대는 기관총편발사격에 금시 구멍이 숭숭 뚫리는 천막안에서도 침착하게 대수술을 거행하였다. 그 어떤 능력과 조건을 타산해볼 겨를도 없이 오직 의지와 용맹에 넘쳐 엄청난 일들을 스스로 맡아해냈던 그날의 자신이 없어졌다고 사단장이 것처럼 성이 났었다. 그런즉 7 년전 제 심장가까이에 박혀 각 일각 생명을 위협하던 총알을 끄집어낸 그때로부터 장차 사단장의 마음속에 믿음직하게 서있던 자신이 오늘에 와서는 불시에 신심이 없이 조건이나 코에 걸고 별벌 떠는 줄장부로 비쳐졌단말인가. 인정하기엔 너무나도 가혹한것이였지만 달리 될수 없는것으로 굳이 리해되는 오국진의 가슴은 못내 안타깝고 쓰러였다.

서로의 우정이 변함없는 믿음의 주추돌로 되어 깊어오고있을진대 정녕 그 믿음을 귀신같은 의술로써 끝까지 보살할 힘이 나에게 없단말인가?... 불행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한 불가사의한 심정에 사로잡혀 줄담배 석대를 피워올리는데 피창너머에서 처녀의 노래소리가 가느다랗게 흘러들었다. 얼핏 드는 시선에 아까 걸음런습에 정신

없던 간호원과 부상병의 모습이 다시 선명하게 잡혀들었다. 지금은 쉬는참인게다. 언제나 웃음이 헤프고 명랑한 간호원 옥희는 열구리에 지팡이를 끼고 긴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어앉은 부상병 한데 새로 나온 전시서정가요를 배워주고있었다. 대퇴골을 부상당했던 저 어리무던한 농민출신의 아바이전사는 분명 음치목소리인데도 병원생활에 너무 지쳐서인지 노래배우기에 꽤 극성스럽다. 그가 제멋의 타령조로 노래를 따라부를 때마다 간호원 옥희는 허리를 꺾으며 까르르 웃음을 터친다.

(원참 사람두, 걸작이군.)

오국진이도 그만 입가에 즐거운 웃음을 짓고 머리를 설레설레 저었다.

마음속에 서려돌던 시름이 말짱 가셔지는듯싶은 이 순간에 이상하게도 음악에 혼을 뺏겼던 어린시절이 추억의 언덕을 그리며 삼삼히 떠올랐다.

어린시절 그는 노래를 썩 잘 불렀다. 학교에서도 그랬고 마을에서도 그랬고 모두가 그더러 장차 훌륭한 창가쟁이가 될것이라고 했다. 저스스로도 사람들의 기대가 어김없이 자신의 미래로 될것이라고 믿고싶었고 그러면 현란한 미래의 꿈세계가 눈앞에 펼쳐지면서 마음속을 여간만 두군거리게 하지 않았다. 그러나 후날 그는 의사가 되었다. 의사가 된 지금에 와서 그는 자신이 유명한 음악가가 될것으로 여기던 어린시절의 꿈이 얼마나 허망하고 어리석은것이였는가를 솔직히 돌이켜보군한다. 그러면서도 때때로 그는 의사로서의 자신의 능력이 딸리고 미흡함을 인정해야 하는 피로운 순간에 맞닥들릴 때마다 자신이 음악가로 그냥 진전했으면 어땠을가 하는 생각에 잠겨진다. 그냥 음악에 뜻을 품고 이악하게 내밀었다면 과연 지금쯤은 베토벤처럼 운명의 황홀한 문을 뜻깊게 두둥둥... 두둥둥... 두드리는 세계적인 음악가가 될수도 있지 않았을가 하는 생각을 하고나서는 너무나도 실없는 생각에 움뻐던 자신을 두고 얼굴을 붉히며 허허 소리내여 웃어버린다. 어찌면 오늘은 그 성취 못한 음악가의 꿈이 더욱 강렬하게 떠올라 마음속을 자못 심란하게 휘저었다.

(참 별일이다. 음악은 무슨놈의 말라빠진 음악인가.)

어이없는 생각을 털어버리려는듯 머리를 젖는데 문기척소리가 나는듯마는듯하며 누군가 조용히 등뒤에 다가와섰다.

《소장동지.》

오국진은 별정계 동한 얼굴을 들지 않고도 등뒤에서 침착한 어조로 자기를 찾는 사람이 그 공명전사의 병동담당군이라는것을 알아맞혔다.

《절단수술준비가 다 되였습니다.》

《아니, 절단이라니?!》

오국진은 신경질적으로 양미간을 찌프리며 짧은 군의를 돌아보았다.

홑침 놀라며 건너다보는 저쪽의 놀라움이 비친 눈빛에서 오국진은 당장 자신의 실책을 깨닫고 쓰디쓴 땀소를 띠었다. 절단수술준비를 다그칠데 대해서 명령한 사람은 다름아닌 바로 자신이였다.

《안됐소. 정말 안됐소. 거기 좀 앉으시오.… 그런데 군의동무, 그 동무의 다리를 어떻게 소생시켜볼수는 없을까?》

《?!》

짧은 군의는 저으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 동무가 글썽 전쟁이 끝난후에 꼭 영웅이 되어 장군님을 높이 모신 열병식장을 지나갈 꿈을 꾸고있구만. 영웅은 문제없는거구. 그런데 그 다리가 문제거든.》

오국진은 불 꺼진 담배에 또 성냥을 드룩 그어대었다. 이 순간 그는 꼭 사단장 최만형의 립장에 서지 않으면 안되는 자신을 놀라게 의식하면서 얼굴을 붉히었다. 《좁전에 사단장동지가 와서 나한테 주장부라는 감투를 씌우고 한바탕 우뢰질을 하고 갔는데 실은 그 동무의 다리걱정때문이었소. 그 동무더러 우리가 문제없이 소생시킨다고 장담하고왔다는데 제길할 해봅시다.》

오국진은 담배를 재털이에 비벼끄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직 한번도 해보지 못한 일이지만 이걸 믿어봅시다.》

그는 손바닥으로 가슴을 꼭 짚었다.

《사단장동지의 말마따나 이 심장이 하는 일이니깐… 수고스러운대로 수술준비를 다시 갖춰주시오. 내 곧 가겠소.》

오국진이 수술준비를 갖추고 병동으로 조용히 들어설 때였다. 온통 몸에 봉대투성이인 그 영웅소대장이 침대머리에서 튕겨나듯 일어서며 반기였다.

《군의소장동지, 자신있지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국진은 걸음을 멈추고 엄격하고도 심각한 표정이 떠오른 얼굴로 부상병을 여겨보았다.

《영웅동무, 지금은 나를 좀 건드리지 말아주시오.》

그는 야릇하게 다물아오는 흥분을 애써 능치였다. 《나는 이제 수술을 해야 합니다. 리해해주면 고맙겠소.》

그리고는 의아한 표정으로 놀라게 쳐다보는 부상병의 곁을 오국진은 침착한 걸음으로 지나갔다.

이상하게 순간적으로 사단장과 뜻밖에 닮았었던 감점이 괴롭게 되살아오르면서 부상병한테서 상서롭지 않은 시가스름을 당하는듯싶은 분함이 언짢게 드는 것이었다.

…수술이 시작된지 벌써 두시간이 넘었다. 숨

가쁜 정적속에 신경이 바늘끝처럼 예리해졌다. 유리그릇우에 조용히 떨어지는 주사침의 딸그락 소리에도 오국진의 넓은 이마에는 손가락같은 주름이 폭 잡히었다. 너무 긴장한 나머지 조심성없이 주사침을 떨궈놓은 간호원은 담박 얼굴이 파리처럼 붉어져서 조심스럽게 오국진의 눈치를 살폈다. 고맙게도 오국진의 섭섭해진 눈길이 자기를 찾지 않자 간호원은 안도의 숨을 내쉴다가 손으로 황황히 방긋이 벌려졌던 입을 가리었다. 알망스럽게도 더 큰 실수를 저지르려했던것이다.

긴장, 긴장, 긴장… 오국진은 등골로 땀이 척척하게 흐르는것을 의식했다. 확고한 자신을 가지고 선뜻 달라붙은 일이 아니었다. 이 일이 랑패나 보지 않겠는가 하는 위구가 은근히 마음속을 불안하게 위협하여 그렇게도 나긋나긋 돌아가던 손이 중풍만난것처럼 떨리고 몸이 찻찻하게 굳어졌다. 얼굴에서는 땀이 우박치듯하며 툭툭 떨어져 흰 위생포단우를 시꺼멓게 적시었다. 그러자 누군가 손수건으로 이마를 문질러주었다. 몹시 거칠고 투박한 남자의 손길이 느껴졌다. 그러나 언제 가려볼 겨를이 없었다.

《가위.》

그는 왼손을 내밀었다.

손에 의외에도 핀센트가 실렸다.

《이게 가위가?》

오국진은 이 터무니없는 실수를 저지른 사람을 날카롭게 떠어보다가 그만 아연해졌다. 자기의 분노가 서린 눈초리에 맞아 찢절매는 사람은 뜻밖에도 금방 터질듯한 위생복에 뽕뽕하게 에워싸인 사단장이였다. 아까는 그렇게도 엄격스럽고 단호하던 최만형이 지금은 꼭 숙제를 해오지 않아 선생님앞에 꾸지람을 듣는 인민학교 학생의 비참한 얼굴이 되어 말없는 용서를 공손히 밀고 있는 것이었다. 벼슬로서는 사단의 왕이지만 지금 이 수술실의 왕은 군의소장이었던것이다.

눈썰미 빠른 간호원이 그냥 내밀고있는 오국진의 손에 재빨리 가위를 쥐여주었다. 오국진은 사단장을 향해 머리를 끄덕이며 눈웃음지었다. 최만형이도 다소 굳어졌던 긴장을 풀며 눈을 깜빡했다.

(언제 들어왔나? 미안하게 되었군. 그러니 좀전에 내 이마를 닦아준 투박한 손도…)

오국진은 가슴이 뭉클했다. 딱히 짚을수 없는 그 어떤 거대한 힘이 전신에 쭉 퍼지는것 같았다. 인젠 나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배포유한 안도감과 함께 배를 탄것처럼 마음이 든든해졌다.

문득 자신있느냐던 그 영웅소대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웬일인지 이 순간에는 그도 자기옆에 서 있는듯싶었다.

처음 해보는 자신의 일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온 사단 전사들이 원심을 써서

자신에게 힘을 더해주는것만 같았다.

(이 일이 성공한 다음 그 영웅소대장에게 꼭 사죄를 해야겠다. 힘을 주는 사람더러 괜히 푸짐없이 대했거든. 참 별일이거든.)

수술실문이 삐꾸덕하며 조용히 열리다가 닫기는 소리가 등뒤에서 들리었다. 얼핏 그쪽으로 시선을 주던 사단장이 두툼한 입술우에 손가락을 갖다대면서 발끝걸음으로 마주 걸어갔다. 들어온 사람은 사단장의 부관이였다. 부관은 사단장의 귀에 대고 손나팔을 해가지고 무엇인가 귀속말을 여쭙고있었다. 사단장의 눈이 담박 휘둥그래지면서 얼굴이 저으기 상기되였다.

다시 오국진의 결로 살금살금 다가온 최만형은 그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다. 《소장, 그럼 수고해주게. 난 며칠간 최고사령부에 갔다와야 하겠네. 성공을 바라네.》

그러면서 한쪽팔목을 꼭 쥐었다놓았다. 변함없는 따뜻한 정이 그 투박한 손아귀에서 뭉툼뭉툼 뿜어져나오는듯싶었다.

장시간에 걸치는 수술은 성공적인 결속을 보았다. 수술을 끝낸 오국진은 수술도중에 마음먹은대로 그 영웅소대장을 찾아가 아까 수술직전에 자신이 너무 긴장했던탓에 실없이 행동한것 같은데 리해해달라고 하였다. 군의소장의 의외의 반성을 접한 저쪽은 어병병해서 오국진을 여겨보다가 무작정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군의소장동지, 고맙습니다. 우리 꼬마영웅이 이젠...》

말끝을 여물구지 못하고 영웅소대장이 울음을 터뜨리는 바람에 오국진도 다잡을수 없는 커다란 감동이 목구멍으로 옥 치받쳐서 그만 흐느껴울고말았다.

며칠후 병동회진을 마치고 오국진이 자기 방에 들어서기 바쁘게 반토굴집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최고사령부로 올라갔었던 최만형의 거룩진 몸이 총알처럼 날아들었다.

《소장, 끝내 성공했더구만. 정말 수고했네.》

최만형은 자리에서 일어서는 오국진의 어깨를 꼭 짚어 그냥 의자에 앉히고 자기도 옆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솔직히 말해서 난 그 형편없던 다리가 다시 소생하리라고는 기대하지 못했네. 그저 동갑이란 믿었지.》

최만형은 스텐담배팩을 펼쳐 오국진앞으로 내밀었다. 《임잔 정말 의술이 귀신같아.》

《귀신은 무슨 귀신 못해내면 쫓겨날가봐 겁이 나서...》

최만형은 오국진의 어깨를 철썩 두드리며 소리내어 껄껄 웃었다.

《임자 노했었구만. 하긴 내가 그날 지나쳤던것 같아. 그저 벽을 문이라구 내밀었었으니깐.》

오국진은 머리를 설레설레 저었다.

《그런 말씀 마시우. 사단장동지가 똑같이 성을 낸 덕에 내가 기적같은 일을 해냈지요. 이젠 사실입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린가?》

《줄장부의 감투를 영영 벗지 못한채 내가 쫓겨나고 사단장동지도 자리를 내놓겠다고 하니.》

《에끼, 이 사람. 하 답답해서 한 소린걸 가지구... 여하튼 수고했네.》

최만형은 손바닥으로 무릎을 탁 치고나서 저으기 상기된 얼굴로 오국진을 바라보았다.

《이번 군사위원회 휴식시간에 나는 영광스럽게도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우리 공병 애의 영웅적위훈에 대해서 보고드렸었네. 장군님께서는 정말 잘 싸운 동무라고 치하하시면서 자신께서 친히 그 애의 가슴에 금별메달을 달아주겠다고 말씀하시었네. 난 그 애의 다리가 걱정되었지만 장군님께서 걱정하실것 같아 그대로 말씀드리지 못했네. 임자가 꼭 고쳐놓으리라는걸 믿고말이지.》

최만형은 새삼스럽게 오국진의 팔굽을 꼭 잡았다. 《임자가 노력해준 덕분에 인젠 우리 사단이 마음놓게 되었네. 그 애가 당당히 제발로 걸어서 장군님의 품에 안길수 있게 되었거든. 동갑이, 정말 고맙소.》

그리고 최만형은 성냥을 드룩 그어 오국진앞으로 내밀었다.

《자꾸 그러지 마시오. 그 동무의 다리를 고치지 못해서 장군님께 적정을 끼칠번한것을 생각하문... 늘 마음먹으면서도 선뜻 해내지 못한 일을 성공케 해준 사단장동지가 되려 고맙소.》

《원 별소리, 마치 내가 큰일을 친것 같네그러.》

《그렇지요. 심장이 한 일인데 늘 그랬던것처럼 그 심장을 사단장동지가 주었거든요.》

《괜히 겸손을 피운다니깐. 동갑의 심장이 높은 전우애로 불타오른건데 내가 주긴 뭘 주었다고 그러나... 정 그렇다면 까짓것 나이 동갑에 마음도 동갑이라 이쯤 해두세나. 자, 어서 불을 붙이라구.》

최만형은 손톱눈을 향해 깊이 타들어간 성냥가치를 오국진의 담배끝에 대여주고나서 바쁜소리를 지르며 손을 털었다.

《이크, 뜨거워. 끝내 손톱눈을 태워먹었는걸.》

그리고 그는 가슴을 젖히며 웃었다.

오국진이라도 머리를 흔들며 헉헉하게 웃었다.

류다른 화해로 두사람이 스스럼없이 터친 웃음소리가 어찌나 즐겁고 통쾌하던지 웃음이 쏟아져 나오는 그 자그마한 반토굴집을 의아해서 지켜보던 사람들의 입가에도 행복한 웃음이 벅글썩 지어졌다.

영광이 있으랴

김기호

장중한 군악은 울리고
환호의 물결은 파도치는데
열병대오가 나아간다
철의 대오가 흐른다

하늘땅을 진감하는
발구름 발구름소리
어디서 시작된 자욱이나
정녕 어디를 넘어온 걸음이나

여겨보면
머리회숙한 로투사의 장화엔
그날에 얼어붙었던
백두산의 눈얼음이
아직도 녹지 않고 붙어있는듯

생각하면
가슴마다 혼장을 절렁이는
옛근위병들의 군화엔
락동강반의 불모래가
그대로 뜨겁게 붙어있는듯

또 그뉘엔
얼마전에만도
정든 고향땅에
행복의 꽃신자욱을 찍던
세세대병사들의 발걸음이
보폭을 맞추며 따라섰구나

아, 머나먼
30년대 첫기슭을 떠나
50년대 준엄한 언덕을 넘어
80년대 한복판을
천으로 만으로 굽이쳐가는
영광의 대오여

너의 공지는
손길높이 사열하시는
혁명무력의 창건자
강철의 령장 **김일성**원수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셔온
그 나날에 빛나온것

너의 그 영광은
만면에 환한 미소지으시는
군사의 영재 **감정일**동지를
혁명무력의 진두에 모셔가는
오늘과 래일에 영원한것

공지높이 영광높이
하나의 구령에
발맞춰 나아가는 그 발걸음
진필이 막아서도
두렵없으리
불바다가 막아서도
무서움 모르리

그때문에
대오앞의 군기는
거센 나래같이 펄럭이고
그때문에
틀어진 총창은
신념의 섬광인양 빛뿌리지 않느냐

그 발구름이
우뢰가 되고
번개가 되고
방패와 성벽이 되어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할 맹세
하늘땅에 차흐르지 않느냐

아, 한송이 작은 꽃으로부터
소중한 이 땅의 그 모든 전취물이
그 발구름속에 수호되고
새 전쟁 도발에 미쳐날뛰는
원썹들의 마지막 멸망도
그 발구름앞에 찍혀지거니

승리가 있으랴!
영광이 있으랴!
인민의 생명이고
조국의 존엄인 우리 당의 자위무력
당중앙따라 끝까지 가고갈
필승불패의 혁명무력이여!

미래에 사는 마음 외 1편

리일복

누가 걸어간 길 아니다
누구의 발자욱 찍힌 길 아니다
우리가 가는 길
우리 식 탐구의 길-

열백번의 실패도
성공의 디딤돌로 삼고
새 창조의 희열에 취해 산다
시각마다 샘솟는 희망에 넘쳐-

설계도면과
복잡한 실험기구에 파묻혀
시간이 흐르고 날이 흐르는줄 몰라도
마음은 언제나 미래에 두고
열정과 재능을 쏟아붓는다

우리는 새 기술과 문명의 척후병!
고심과 탐구와 노력으로

나날이 새것을 발견하고
언제나 미래를 오늘로 당겨온다

누리는것보다 과학자 우리의 삶은
창조하는것이 보람높은 삶
고난겨운 창조는 내가 말고
호합진 열매는 인민에게!

새로운 높이에 올라서서
조국이 번영할 때
우리는 벌써 더 높은곳
래일의 조국속에 살거니

아, 한생을 앞질러 미래에 사는
우리가 걸어가는 뒤를 따라
시대가 따라오고
혁명이 전진하고
조국이 따라오며 키를 쏘군다!

탐구자의 마음

내 하는 일
누가 몰라도 좋다
내 일하는곳
누가 보지 못해도 좋다

하루이틀도
한두달도 아닌
몇년을 하루와 같이
때로는 한생을 다 바쳐
온 심혈을 다 쏟아부어야 하는
힘겨운 탐구의 이 길

과학자의 량심은
쥘수 없이 깊고
달수 없이 무거운것

길가에 덩구는 한개의 돌에서도
조국의 억만재부를 느낄줄 알고
간석지의 한줌흙에서도
천만나락의 무게를 가늠하고
도면우에 긋는 하나의 점과 선에서도

조국의 미래와 운명을 생각한다

명에도 보수도 바람이 없이
자기보다 먼저 조국을 생각하며
끊임없이 쏟는 열정
아낌없이 퍼붓는 힘과 재능-

탐구자의 마음은
공명이 아니라
인민에게 바쳐진
알찬 열매에 맺혀있고
탐구자의 기쁨과 행복은
조국을 빛내이는
쉽없는 탐구와 노력에 있나니

따로 찾지 말라
내 얼굴, 내 이름-
조국의 발걸음에 박차를 가한
혁명의 전진에 속도를 더해준
새 발견, 새 발명품이
다름아닌 내 얼굴, 내 이름이다!

렬차우에서

림길명

나의 취재길은 언제나 렬차우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렬행자들의 길동무가 되곤 한다.

그날 북행렬차에서 알게 된 젊은이도 그런 렬행자들중의 한사람이다. 도중에서 올라 나의 곁에 자리잡은 그 젊은이는 얼마 안있어 손님들로부터 《안내원》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그것은 누구든지 다음 역이 어딘가고 물으면 얼핏 차창밖을 내다보고는 틀림없이 역명을 알려주기때문이었다.

그때마다 감탄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나 역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기차깨나 타고다니는 출장원들중의 한사람인 나도 역을 삭갈릴 때가 많은데 그 손님은 기억력이 보통 비상하지 않았던것이다. 그러나 후에 그가 어떤 기계공장의 자재인수원이라는것을 알고는 인차 《아! -》 하고 나는 머리를 끄덕이였다. 렬차행군의 긴 로정을 자기의 출퇴근길처럼 여기고있는 인수원의 직업상특성을 놓고 볼 때 충분히 이해되었던것이다. 매일같이 역들을 오가며 차창밖으로 새라새롭게 안겨오는 곳곳의 건설모습과 자연풍치를 제일 먼저 보게 되는 출장원이고보면 《안내원》이라는 칭호를 받을만하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런데 저녁무렵에 나의 생각을 뒤집어놓은 일이 있었다.

차창밖에 어스름이 깃들기 시작하자 앞의자에 앉은 파파 늙은 할머니가 갑자기 내릴 차비를 서두르며 이번 역이 어딘가고 묻는것이였다. 오래간만에 금야탄광에서 일하고있는 막내아들집에 나들이를 간다면서 렬차에 오를 때부터 역을 지나칠가보아 안절부절 못하던 할머니였다.

《할머니, 걱정 마십시오. 이 손님이 어련히 알려드리지 않을라구요.》

책을 보던 나는 식사끝에 모자를 벗어 눈을 가리우고 잠을 자는 인수원을 흘깃 쳐다보며 조용한 목소리로 할머니를 안심시켰다. 그러자 어느새 그 소리를 들은 인수원이 식곤증에 취한 노근해진 눈을 떴다. 아까 금야역에 무사히 내리도록 알려주겠노라고 약속한 자기의 의무감을 명심하고있는 인수원이였다.

《글쎄 막내녀석이 편지에다가 금야땅이 몰라보게 변했으니 역을 지나치지 않도록 손님들한테 자주 물어보라고 쓰질 않았겠수.》

인수원의 잠을 깨운것이 못내 미안했던지 로인이 점직해하며 혼자입속으로 중얼거리는 소리였다.

《옳은 말입니다. 아는 길도 물어가겠다고 가만 계십시오.》

인수원도 오히려 친절하게 웃으며 이내 차창밖을 내다보았다.

《할머니, 이번이 금야가 아니구만요.》

멀리 푸릿한 저녁대기속에 안겨오는 별쪽을 휘돌러보던 인수원이 큰소리로 알려주었다.

이때였다. 건너편 의자에서 일어나 내릴 차비를 하던 한 중년사나이가 금야가 아니라는 인수원의 말을 듣고 《그럴수 없겠는데》 하고 중얼거리며 차창밖으로 눈길을 돌려보는것이였다.

《금야가 옳습니다.》

이윽고 중년이 머리를 들며 확신성있게 하는말이였다.

《손님 금야가 아닙니다.》

인수원이 빙긋이 웃으며 점잖게 부정했다.

《옳습니다.》

중년이 우기였다.

두사람이 오거니 아니라거니 심쟁이를 하자 술한 손님들이 뺨해서 바라보았다.

나는 당황했다. 혹시 인수원동무의 실수면 어찌랴싶었던것이다. 잠에서 깨자마자 그것도 어슬어슬해진 차창밖의 지형지물을 잘못 판단할수도 있기때문이었다.

먼저 중년사나이가 자기는 바로 저 별한복판에 자리잡고있는 금야탄광에서 일하는 탄부인데 왜 모르겠는가고 확인했다. 그러자 인수원이 어처구니가 없다는듯 픽 웃고나서 중년에게 따지였다.

《그렇다면 저 별한복판에 <자라나는산>이 왜 보이지 않소?》

《박토산말입니까?》

그제서야 중년이 알겠다는듯 머리를 끄덕이더니 빙그레 웃으며 자라나는산은 없어졌다고 하였다.

《?》

인수원은 물론 나도 그 뜻밖의 소리에 어안이 병해지고말았다.

박토산은 로천탄광에서 가장 눈에 띄는 표적이다. 개발초기부터 대형굴착기들이 쌓아올리기 시작한 박토무지가 오랜 세월 커지고커져서 이곳사람들이 《자라나는 산》이라고 부르게까지 되었던것이다.

나는 언젠가 본사의 한 친구가 먼 취재길을 갔다와서 금야를 지나오다가 왔는데 박토산이 하나가 더 생겨났더라고 몹시 놀라와하던 일을 돌이

켜보았다.

그렇듯 금야탄광의 박토산은 려행자들의 관심 어린 표적물로 되어버렸다. 그 표적물이 없어졌다. 나는 저도 모르게 차창밖을 눈여겨살폈다. 과연 로천채굴장을 위태롭게 둘러쌌던 박토무지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박토산에 가리워 굴착기의 팔뚝끄트머리만이 공중을 오락가락하는것이 보여 저러다 파묻혀버리거나 앓을가 하고 지나가고 지나오는 려행자들에게 우려를 자아내게 하던 대형굴착기가 그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 놓고앉아 걱정 말라는듯 렬차를 향해 손을 흔들 어주고있을뿐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몹시 의아해하는 인수원에게 그 중년탄부가 탄광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들려주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앞으로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임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역사적인 위업을 앞당겨나가야 할것입니다.》

탄광에서는 박토처리자 석탄생산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운수수단을 박토운반에 총동원했다. 그런데 워낙 대형굴착기가 파제끼는 박토량이 방대한것이어서 자동차수송으로는 도저히 감당해낼수가 없었다.

바로 이런 때 당에서는 이곳 탄부들을 믿고 자체의 힘으로 대형장거리벨트를 놓아 박토처리를 대형화 현대화하도록 이끌어주었다.

금야탄광의 로동계급들은 당에서 안겨준 담력을 안고 간고분투하여 마침내 교대당 수만립방의 박토를 운반처리할수 있는 대형장거리벨트콘베어를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그리하여 이곳 박토직장에서는 거대한 산악처럼 치솟은 박토산을 단숨에 허물어버렸다. 그리고 대형굴착기가 연신 파제끼는 박토는 막장주변에 머물러있을 사이 없이 벨트를 타고 폐막장으로 실려가게 되었다고 하였다.

《박토를 선행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니 석탄생산은 굵으로 불어났습니다.

우리 금야탄광의 로동계급들은 이에 조금도 자만하지 않고 오늘도 채취공업을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구상을 더욱 꽃피워나가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습니다.》

이렇게 말끝을 맺는 중년탄부의 얼굴에는 우리 주체공업의 연료를 담당한 탄부된 끝없는 긍지와 자랑이 넘쳐흐르고있었다.

나는 차창밖에서 좀처럼 눈길을 떼지 못했다. 조명등불빛에 뚜렷이 나타나는 대형굴착기의 길

다란 팔에 써붙인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라는 당의 구호가 가슴을 울리며 뜨겁게 안겨왔던것이다.

이 땅 어디서나 보는 구호다. 산과 벌판, 공장 굴뚝과 네거리의 장식탑에서 흔히 볼수 있는 글발이다. 저 힘찬 구호아래서 이 땅도 사람도 세계적인 문명으로 개조되어가는것이 아닌가.

《할머니, 왜 그러구있습니까. 이번이 금야입니다.》

나는 멍하니 앉아있는 할머니를 보고 다급히 일깨워주었다.

《저 손님이 금야가 아니라기에...》

《금야가 옳습니다》

얼굴이 벌개진 인수원이 뒤더수기에 손을 가져가며 사죄했다.

《할머니, 미안하게 댔습니다.》

《미안하긴 그럴수도 있는거지요. 펍 오래전 일이지만 나도 한번은 손자애들과 텔레비를 보다가 옥신각신했다우. 글썄 화면에 꽃전차를 타고 기대사이를 오가면서 실을 뽑는 평양방직공장처녀의 모습이 소개되자 손자애들이 먼저 <고모다 !>

하고 소리치질 않겠수. 난 아니라고 그 애들을 나무람했수다. 이전에 난 공장에 찾아갔다가 기대사이를 부지런히 뛰어다니며 실을 뽑는 그 애를 멈춰세우고 땀을 씻어주기까지 했다우. 그런데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로 평양방직공장이 현대적인 공장으로 전변되었다는 걸 그후에야 알게 되었지요.》

이것은 현실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가끔 체험하게 되는 어제와 오늘의 비약에 대한 놀라움이다. 그러니 대양과 대륙을 넘어 우리를 찾아온 외국의 수많은 벗들이 황철이나 남포갑문건설장, 함흥의 큰 공장들과 검덕의 3 선광장을 보고 환성을 올리는 놀라움이란 얼마나 큰것이겠는가. 나는 오랜 기간 려행자들에게 안내의 표적물로 리용되어오던 《박토산》이 자취를 감춘것을 보고 놀란 자신이 부끄럽게 여겨지기도 했다. 지금이 시각에도 얼마나 놀라운 변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있는가.

이것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구상속에서 꽃피어나는 80년대 주체조국의 현실이다.

나는 목적지에 이르러 소리없이 역에 내린 인수원을 생각하니 저절로 웃음이 나왔다. 그러나 나의 교훈은 그의 경우보다 몇갑절 무거운것이였다.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 현실로 꽃피어나고있는 주체조국의 새모습을 독자들에게 생동한 화폭으로 보여주자면 더 빨리 더 깊이 현실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나의 마음이런듯 렬차는 줄기차게 달리였다.

뭇

박종상

(1)

천고마비의 계절이라는 가을철이 되면서 오히려 빈정대노라고 그러는지, 가을철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를 못마땅히 여기는 하늘의 심술인지, 어쨌든 9월에 들어 울고싶어서 사뭇 찌뿌둥하던 하늘이 초나흘째부터 급기야 비를 쏟더니 때아닌 장마철을 재현한듯 편일 비가 내렸다.

오곡백과 한창 무르익어야 할 때라 논벼며 밭작물, 파일에 이르기까지 큰 피해를 입게 되어 농사짓는 사람들도 그렇거니와 그보다 오히려 일반소비자들이 아우성들이다. 파민중에 걸린 농작물시세가 꺾충 사람의 간 떨어지게 뛰어들랐고 련쇄반응을 일으켜 날씨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리탈료, 목욕값까지 마치 남이 장에 가니 거름지고 장에 가는격으로 덩달아 뛰어들오는바람에 그러잖아도 최근 몇년 심한 불황속에 허덕여온 일반의 생활이 큰 타격을 받은것이다.

그때도 아직 일본인들은 나쁜편이고 재일동포들의 곤경은 날을 따라 심하여졌다.

《이노무 비가 궁상맞게도 오네, 제기랄.》

장덕호는 군살이 진 몸을 꾸부리고 유리창문너머로 어두운 하늘을 쳐다보았다.

넓적한 어깨우에 짙막한 목이 어깨우에 바로 얼굴이 붙어있는것 같이 보인다. 검실한 얼굴에 이마가 넓다.

그 넓은 이마가 순간 주름을 잡으며 구겨졌다. 마흔다섯이라는 그의 나이에 비해서는 일찍 머리가 벗어져 머리가운데는 머리카락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얼마 남지 않은 머리카락을 아끼듯 소중히 딱 말라붙였다.

그는 어제부터 스물다섯번째 같은 욕소리를 하고는 정말 뜻대로 되지 않는 날씨가 밍다는듯 오만상을 찌프리고 끝끝 혀를 차며 텔레비존스위치를 마구 뒤틀었다. 일기예보를 들어볼 작정이었다. 어제 일기예보로 보아서는 오늘아침 개일것이었다.

《그 애가 참 무시도 날씨걱정을 하네. 안살림 사는것도 아닌데 승년질가봐 그리도 걱정인가 배.》

안방에서 래년이면 일흔이 되는 어머니가 학교에 가는 손주딸이 비옷을 입는것을 거들어주고 가방을 메워주고 하면서 말하였다.

형님댁에 사뭇 계시다가 덕호네 집에 오신지

아직 일주일밖에 안돼는 어머니였다.

《어머닌 괜히 남의 속도 모르시고...》

사실 그는 이 날씨가 원망스럽기 짝이 없었다. 요전날 마작점방의 주인 오씨와 골프를 갈 약속을 하였는데 서로 사정이 잘 맞물리지를 않아서 래일, 래일 하던것이 벌써 네차례나 미루어온것이다.

오씨는 장덕호의 식당이 있는 상점가에서 새로 마작업을 시작한 동포인데 그곳 상점회모임에서 처음으로 알게 된 사람이었다.

덕호는 그 동포를 사귀여서 조선상공회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으나 그와 그의 점방을 봐주고있는 임정자라는 미망인앞에서 자기의 골프숨씨와 뭇을 보이고싶은 생각도 강하였다. 임정자는 미망인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서른안팎의 눈이 크고 머리 술이 많은 동글납작한 얼굴의 미인이었다.

장덕호와 오씨는 나이도 비슷하고 일본인 가게들속에 끼여있는 단들의 동포라는 정도 있어 초면부터 친숙하여졌다. 그동안 그들은 청하거니 청을 받거니 하여 한 두어달사이에 여러 차례 술자리에서 요즘 몸이 나기 시작하였다는 이야기로부터 골프가 건강에 좋다는 얘기로 발전하여 《한디》가 얼마니 어느 골프장이 좋으니 하던 끝에 한번 같이 골프 가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온것이었다. 오늘만은 아무 꺼리낌없이 갈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번덕스런 날씨가 훼방을 논것이었다.

덕호는 천하태평같은 소리를 하는 어머니를 나무라는 말을 입속에서 삼켰다. 날씨원망을 하는 자기의 심사속에 뗏뗏하지 못한 점이 있음을 느꼈기때문이다.

《그 사람이 채소값이 오를것을 걱정할 사람이에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저 그 사람 걱정이야 술친구하고 골프가서 돈 못내버리는것이라우.》

아이들 먹고난 밥상을 치우면서 안해가 하는 말이다.

《골프라니? 골프가 뭇데?》

어머니가 신기한 말을 듣는다는듯이 누구에게라없이 묻는다. 어머니의 호기심은 대단하였다.

《저 망태안에 들어있는 막대기로 공을 치는 놀음이라합니다.》

안해가 받아서 설명하였다.

《놀음이 아니라 운동입니다. 운동…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무얼 안다고 그래.》

덕호는 안해를 보고 눈을 흘기고나서 우기듯이 말하였다.

선을 봐서 결혼한지 20년, 아들 하나 딸 둘을 두고 어디라고 결함이 없는 안해였지만 최근은 그 결함이 없는것이 결함이라면, 불만이라면 불만이 되고 자꾸 조직에 나가라, 학교에 나가라 하는 안해가 버거운 덕호였다.

(너자란 젊을 때는 상냥하기만 한것 같아도 아이를 낳고 나면 갑자기 뻔뻔하고 거세어져서 재미없거던.)

그는 안해가 그의 술친구며 골프친구에 대해서 탐탁히 여기지 않는것이 불만이었다.

《운동이 될뿐아니라 장사친구들하고 더 친하게 되고 조직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 사람들과 사귀게 되면 민중끼리 단합도 되고… 이젠 썰렁고 알먹기가 아니라 썰렁고 알먹고 깃은 장식품으로 쓰구… 일거삼득이지 허 참.》

덕호는 어머니는듯이 크지 않은 코를 벌름거렸다.

조금전까지 찌프리졌던 그의 너부죽한 얼굴이 조금 퍼졌다.

그는 응접실구석에 가 골프채가 든 망태아가리를 열고 골프채를 하나 빼들었다.

그리고는 방안에서 공을 치는 시늉을 하며 막대를 내저었다. 군살이 진 그의 몸이 회한하게 잘 움직였다.

《너의 형은 신살이 넘도록 그저 상공회만 알았지 내 그런거 하는걸 한번도 못보겠더라. 넌 기운도 좋네.》

어머니는 아들을 신기한듯 보았다.

《운동, 운동 하면서 건강에 좋다고 하지만 우리집이야 큰 상공인도 아니고 식당 하나 차점하나 가지고 식구가 먹고 살기에 뻗뻗한 형편인데 골프갈 때마다 돈을 몰스듯하니 우리 살림이 어떻게 지탱되겠습니까. 그보다도 분회사람들 보기가 민망스러워… 아이들 교육은 학교에 맡겨놓고 학교기부라면 돈없다고 꺼리면서 놀러는 다니니 말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니 몸에도 더 해롭지 않나 싶지.》

안해가 술에 그으른 그의 얼굴을 원망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러니 니가 요즘 몸이 났구나. 니 나이에 갑자기 몸이 나는것이 그리 좋지 않으의… 술이 파한게 아잉가. 어지간히 하지.》

어머니가 덕호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훑어보

며 걱정스레 말한다. 어머니는 언제나 안해편이다.

《어머닌 모르시니까… 장사를 하자면 먹기 싫은 술도 마셔야 하고 놀줄도 알아야 한다우.》

덕호는 새삼스러이 최근 갑자기 군살이 늘어난 자기 허리를 둘러보았다. 몇년전에 만든 양복은 어느 하나도 요즘은 입을수가 없었다. 얼굴이나 목덜미에 군살이 많아져서 아침에 세수를 할 때마다 자기 얼굴을 씻고있는것 같지를 않았다.

그는 방안에서 골프채를 흔드니 골프장의 푸른 잔디 그리운 생각이 환장할듯이 가슴속에서 치밀었다.

그 생각은 어쩌면 임정자와 함께 넓고 공기 좋은 골프장을 흰뿔을 쫓으며 걷는 재미일는지도 몰랐다. 그 녀자가 아니더라면 이렇게까지 집구석에 있는것이 갑갑하지는 않았을것이였다.

그는 다시 바깥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는 문득 저녁때 네시쯤 교육회회장이 찾아오겠다고 하던 말이 생각났다. (잘못하다가 붙잡히는 날이면 이번에는 움짱달짝 못하고 학습회에 가야 할걸.)

그는 어떻게라도 모면할 구실을 찾아봤으나 뾰족한 이유가 서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안해의 협력을 얻을수 없는것이 딱하였다.

《애야, 니 나이 몇살인줄 알고 그러냐, 장사 장사 하지만 그 잘난 식당이나 차점같은거야 일하는 사람이 있겠다 제수씨가 지금도 거반 말아서 하고있는것이니 니는 자식들을 생각해서라도 상공회나 교육회에 관심을 가지고 협력을 좀 해보면 어떠냐.》

꾸짖고 타이르는 형님의 감압에 못이겨 그는 지난 봄에 진주와 진숙이가 다니는 초중급학교 교육회리사가 된것이였다. 그러나 교육회리사가 되였다고 그의 생활이 달라진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그것을 눈가림으로 해서 더 놀기에 바빴다.

(2)

날씨가 개인것은 점심때가 지나서였다.

《기어이 나가시는구려. 점방이 쉬는날인 오늘 만이라도 집에 좀 있어주시잖구. 어머니도 집에 와제시구 오늘 저녁엔 교육회회장님이 오신다구 하시잖았습니까?》

안해의 우는소리를 귀바퀴뒤로 들으면서 덕호는 오씨네점방에 전화를 걸어 만날 장소와 시간을 약속해놓고 자동차 트렁크에 골프채 든 망태를 집어넣기가 바쁘게 차를 몰고 집을 나섰다.

정거장앞에 차를 세워놓고 등반이에 몸을 비스듬히 기대여 담배를 피워물었다.

그가 담배를 두개째 피워물었을 때 임정자가 혼자서 나타났다. 오씨는 어떻게 했느냐고 물으니 그 녀자는 《사장은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서 못오시는데 장선생님께 잘 양해를 받아달라고 하셨습니다.》

하며 방긋 웃었다.

임정자는 새노란 양복바지에다 가슴팍에 까만 실로 장미꽃문양이 수놓아진 새빨간 운동셔츠를 입고 채양이 긴 흰 골프모자에다 커다란 푸른 빛 채양안경을 끼었다. 호리호리한 자기 몸만한 골프망태를 그 녀자는 덕호가 열어준 뒤쪽 좌석에 놓고 자기는 덕호와 나란히 앞좌석에 앉았다. 강한 향수냄새가 덕호의 코를 찔렀다.

덕호는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다.

부사산아래 골프장엘 일박할 작정으로 갈 예정이었으나 오씨가 오지 않았으니 임정자와 둘만으로서는 그럴수도 없었다. 덕호는 급히 방향을 바꾸어 가까운 골프장을 골라 자동차를 몰았다.

《장선생님, 사장이 안오셔서 락심천만이지 않아요. 저 혼자서는 도저히 선생님의 상대가 되지 않을테니까요.》

녀자는 일본말로 이야기를 끝잘하며 외교를 하느라고 그러는지 오씨가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교태를 부리었다. 덕호는 그것이 기분에 거슬리지 않았다.

도쿄근교에 있는 그 골프장은 일본의 소위 명사들이 회원으로 되어있는 이름있는 골프장이며 격이 높은곳이었다.

회원이 아닌 그는 비싼 특별료금을 치르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는 그렇게도 오고싶은 골프장이고 또 어느 정도 골프숨씨에는 자신도 있었는데 이날은 전혀 평소의 자기 숨씨를 발휘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임정자가 이런 장소에 익숙이 되어있는지 위축되는 기색도 없이 푸른 잔디밭을 골프채소리를 경쾌하게 울리면서 앞장서가고있었다. 그는 중년남자인, 그것도 친숙해져서 얼마 안되는 덕호와 이러한 곳에 단둘이서 놀러와있다는데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도 느끼지 않는듯 평소와 같이 아니더 활달하게 행동하였다.

그러나 덕호는 그 녀자의 존재가 의식속에 갈마들어 손발이 뭉뚱해지는것을 어떻게도 할수 없었다. 그의 눈에 이따금 안해의 얼굴이 떠오르고 진주와 진숙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덕호는 그것을 억지로 자기 상념속에서 지워버렸다.

(남자란 이 세상에서 가족들을 먹여살리자면 바깥에서 생존경쟁에 이겨야 하다보니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어. 조직에서 말하듯이 그렇게 딱딱하게만 생각해서야 도대체 장사가 되는가말이다.

교제를 하자치면 너자도 사귀게 되기 마련이지(은...)

그는 똥판지같은 변명을 스스로 늘어놓으면서 량심을 얼버무렸다.

그래도 골프장에서 나와 중국료리집에서 저녁을 먹고 임정자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는 집이 가까와질수록 발이 무거워졌다.

그날밤 그는 집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느라고 했었지만 도적이 제발이 저린다고 행동 구석구석에 어색한데가 있었던지

《당신 몸에 열이 있는게나 아닙니까?》하고 안해가 걱정하였고

《애가 아마도 그 골편가 뭔가 한다더니만 일기가 불순한데 나돌아다녔으니 고뿔이 든게로다.》

하고 어머니가 지레짐작을 하시며 약을 먹고 자라고 하시었다.

어머니는 마흔다섯이나 되는 둘째아들을 아직도 여라문되는 아이취급을 하실 때가 있다. 지금까지 바로 그랬다.

덕호가 상을 찌프리자 안해가 그것 고수하다는듯이 웃음을 참으면서 고뿔약과 물을 따워담은 고뿌를 들고 와서 덕호더러 눈을 할기였다.

그 안해의 눈총이 덕호는 가슴 정통을 쏘아맞힌듯 뜨끔하였다.

그 일이 있고난 뒤로도 덕호는 몇번 임정자와 둘이서 골프를 가기도 하고 오씨와 정씨라는 또 한동포와 더불어 마작탁자를 둘러앉기도 하였다.

차츰 그의 량심이란것도 때가 끼였음인지 가책을 느끼는 정도가 덜하여져갔다.

10월에 들어선 첫일요일이다.

덕호는 진주와 진숙이의 학교 운동회날이 오늘이라는것을 벌써부터 듣고있었는데 깜박 잊고 오씨와 함께 골프갈 약속을 했었다.

그는 잊저녁이 돼서야 자기 실수를 알고 속으로 허를 깨물었으나 때는 이미 늦었다. 요즘 그는 종종 이런 일이 있었다.

아침에 불일이 있다는것을 좀 비쳤지만 안해가 꼭 학교에 가야 한다는바람에 더 우기지 못하고 어머니와 안해를 차에 태우고 점심밥을 싣고 학교엘 갔다.

그러나 오씨와 약속한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그는 점차 마음의 안착성을 잃었다.

운동회가 시작됐지만 그 광경은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안해의 눈가림으로 얼마간 리사자리에 앉았다가 슬며시 빠져나왔다.

그가 자동차 세워둔곳까지 와서 열쇠로 문을 열려는데 안해가 숨을 할딱거리며 달려왔다.

《아이들이 얼마나 버르던 운동회라고... 쫓쫓...

아버지가 안계시는줄 알면 인제 야단날걸... 어머니도 집에 와계시는데... 당신 요즘 이상합니다. 제정신이 아닌것 같구만.》

안해는 주위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감정을 억누른 소리로 덕호를 나무랐다.

덕호는 못들은양

《아무래도 좀 가봐야겠어.》

한마디 하고는 무슨 급한 사업상 불일이나 있는사람처럼 태연히 그러나 안해의 얼굴은 보지 않고 엔정소리를 울리며 달아나버렸다.

그날 여느때보다 골프숨씨가 좋아서 덕호는 흙족한 기분으로 저녁때 한증탕에서 땀을 빼고 맥주잔을 기울이며 러판에서 마작탁자를 둘러앉았다. 점심때쯤까지 그의 가슴속에 찌꺼기처럼 가라앉았던 무거운 기분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었다.

그는 마작에서도 거뜰 이겼다.

자정이 지나 그들은 놀기에도 어지간히 지쳤다.

그들은 탁자우에 술병을 올려놓고 잔을 주머니 받거니 하며 술을 마셨다.

《와와이까지 골프하러 가는 사람들도 많다는데 우리도 한번 가보고싶은데...》

어디서 끼여들었는지 꽃면목이나 있는 정동포라는 손님이 술이 얼근해진 눈을 들어 덕호와 오씨를 번갈아보았다.

《와와이도 좋지만 이남에 가보는것이 어떻습니까? 남의 나라도 아니고... 서울에서는 워커힐에서 놀고 제주도에서 골프하고... 고향에도 가보고 말입니다.》

오씨가 어떠한듯이 다른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장선생님, 이남에 가봅시다. 전 선생님하구 함께 이남에 가보았으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장선생님은 점잖고 신사다우니까.》

임정자가 덕호에게 추파를 던졌다.

《허허... 그럼 우리는 신사답지 않고 불량배답단말이지. 우헛허허... 장선생, 임녀사의 소원도 대장부사나이로서는 풀어주어야 할거고 우리 함께 한번 가봅시다. 요즘은 수속도 간편하고 등록의 국적도 고치지 않고 갔다올수 있다는데... 옛, 어떻습니까? 이런데서 노는것도 좋지만 언제나 같은데서야 뭐 재미도 그저 그것이고 허허...》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으나 그 말속에는 기어이 함께 가야 한다는 그 어떤 강요 비슷한 냄새가 어감에서 풍기어 덕호는 숨막힐듯한 압박을 느끼었다.

《월, 구태여 서울에까지 안가더라도 골프쯤이야 여기서도 얼마든지 할수 있잖습니까.》

덕호는 손에 든 잔을 꿀꺽 마시고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압박을 밀어제끼듯이 말하였다.

(서울에 가다니 그제 무슨 소리... 큰일나지.)

덕호는 내심 가슴이 덜렁 내려앉는것을 느꼈다.

(3)

덕호의 발걸음은 자연 오씨점방에서 멀어졌다.

무언지 그들이 《거류민단》에 속한 그저 레사로운 상공인으로 보이질 않았다. 자기의 경솔한 행동이 저으기 뉘우쳐졌다. 안해의 눈이 한결 더 거북하게 느껴졌다.

그는 오래간만에 점방일에 전념하였다.

그런 10 월하순의 어느날이었다. 그는 그날은 차점에 가있었다. 차점 녀급의 전화를 받으라는 말을 듣고 그는 입구쪽에 놓인 공중전화의 수화기를 들었다.

임정자였다.

《장선생님, 너무 랭정하잖아요? 매일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마음도 모르시고...》

덕호는 그 말을 들어도 이제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장선생, 오래간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왜 안나오시오...》

저쪽소리는 오씨로 바꾸어졌다.

《예, 오래간만입니다. 놀 때는 놀고 일할 때는 또 일을 해야지요.》

덕호는 그저 멧적었다.

《일할 때는 일을 해야겠다... 혹 그말도 그럴듯한데... 그러나 그렇게 점잔을 뺨 형편이 댔소? 선생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허허... 그것도 모르시오? 발등의 물을 끄시자면 전에 우리가 권한대로 할수밖에 없을걸요. 헛허... 잘 생각하시오.》

전화소리는 덕호의 그 어떤 대꾸도 용납하지 않는다는듯 혼자 지껄이고 혼자 웃고 끊어졌다.

덕호는 잠시 멧하니 전화결에 서있었다.

(젠장, 이게 무슨 꼴이람, ...이건 협박이 아닌가? 내가 협박을 당하다니...)

그는 저으기 화가 치밀었다.

(이놈들이... 체간놈들이 무얼 한다고... 이놈들이 !)

그는 부아가 난김에 점방을 뛰어나왔다.

그는 그길로 오가네 마작점방으로 달려갔다.

《이 인간이 날 협박하다니... 다시는 주체넘은 소리를 못하게 만들어놓아야지...》

그가 기호지세로 오가네점방에 뛰어들었을 때 거기에는 오가도 임정자도 없었다.

그는 처든 주먹을 내릴곳을 찾지 못하여 애를 먹었다.

그러나 하루이를 지나는데 그의 분노 점차 사라졌다.

그 전화가 있는 날로부터 한사나흘 지난 날이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안해가 등기우편물을 그에게 주었다. 그는 밥상앞에 그것을 뜯어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얼굴이 불을 끼얹은것 같이 확 달아오르는것을 느끼었다.

거기에는 그가 알록달록한 골프운동복차림으로 역시 화려한 골프복차림을 한 임정자와 팔을 끼고 잔디밭을 거닐고있는 사진과 둘이서 몸을 딱 붙여앉아 맥주잔을 들고있는 사진, 자동차운전대에 앉은 덕호에게 기대여 자고있는 임정자의 사진... 그러한 사진이 일여덟장이나 들어있지 않는가.

그는 얼른 그 사진을 봉투속에 도로 밀어넣고 그속에 있는 쪽지를 꺼내었다.

...사진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기념으로 보내드립니다. 원판은 이쪽에 있기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몇장이라도 재판해드릴수 있습니다. 이쪽에서 그럴만한데를 골라서 선전도 해드릴수 있습니다...

덕호의 얼굴에서 피기가 사라졌다.

그는 향방없이 밖으로 뛰어나갔다.

《이놈이 !》

그는 속이 저글저글 끓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금시 생각의 감피를 잡을수가 없었다.

임안이 달았다.

그는 길가의 차점에 들어가서 차를 주문하여 마시고나니 좀 진정되었다.

그의 널직한 어깨가 초라하고 군살이 진 목이 어찌면 훌쩍하게 보이었다.

(나를 겹다니)

그는 이가 갈렸다. 전화를 오가네점방에 걸었으나 점원이 나와 사장은 없다고 하였다.

그는 가라앉지 않는 속불을 안간힘을 다하여 억지로 진정시켰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틀림없이 놈들이 걸어온 모략이었다.

그 모략에 걸린 자기의 어리석음에 화가 났다. 원썬들이 걸어온 모략책동의 심연을 들여다본 느낌이었다.

(만약에 이 사진이 여기저기 살포되는 날이면...)

그는 이런 망신이 어데 있는가고 생각하였다. 그 생각을 하니 그는 가슴이 조여 견딜수가 없었다.

나이 많은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 될것인가. 아이들은 아버지때문에 얼굴을 들지 못할게

아닌가.

상공회일군인 형님에게는 또 얼마나 큰 타격이 되랴, 더우기 자기 하나만 믿고 오늘까지 20년간 온갖 고초를 다 겪으면서 물장사를 하며 자식들을 길러온 안해의 서러워할 일을 생각하니 그는 기가 막혔다.

(그러나 그놈들의 술책에 빠져 내가 남조선에 갈수는 없지 않은가?... 그러면?)

그는 비로소 조직에서 늘 하는 말을 귀찮은것으로 듣고 귀박으로 흘려온 일을 후회하였다.

《분회에 나가셔야 합니다. 당신은 밤낮 일바쁘다 하고 나한테만 맡겨놓고 분회에 만나가니... 조직에서 이야기하는것도 좀 알아야 세상물정에도 밝아지고 동포들하고 발맞춰 살아나가지요.》

그는 안해의 말을 녀자의 좁은 소견으로 자기가 밖에서 돈쓰는것이 아까와하는 말로만 여겼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것은 그저 돈아까운 생각에서만 한 소리가 아닌 무슨 깊숙한 진리를 가진 말인것 같이 느껴졌다.

그는 안해를 볼 낫이 없었다.

그는 덧에 걸린 짐승같이 갈팡질팡 모대졌다.

그날밤 그는 웅근 뜯눈으로 전전반측하면서 새웠다.

날이 새면 이놈을 찾아가서 당장 요정을 내줄가고도 생각하였으나 그것은 그놈들의 술책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결과밖에 안될상싶었다.

덕호는 날이 새기가 바쁘게 형님을 찾아갔다. 그는 려치불구하고 형님앞에 자초지종을 털어놓고 사진을 보였다.

벼락이 떨어질줄 알았다.

《네가 어리석기는... 그 나이에 그런 등신같은 어리석음을 지니고 이 생사람 잡아먹는 일본땅에서 오늘까지 처자권속을 거느리고 잘도 살아왔다.

그걸 이때까지는 네 수단이고 네 재준줄 알았겠지만 이제야 너도 옳게 알았겠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무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강대한 총련조직이 있기때문에 너같은 천치라도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수 있는게다. 응...》

덕호는 아무 대꾸를 못하였다. 그는 그저 형님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죄지은 사람처럼 꿇어앉아 있었다.

그날 점심때 그는 형님과 함께 본부로 갔다.

본부에서 나온 덕호의 얼굴표정은 그의 마음 그대로 홀가분하였다. 그러나 그 홀가분한 표정 밑에 어제날까지의 자기를 뉘우치고 이제는 조직에 굳게 의지하여 살아가려는 새로운 결의가 숨어있다는것을 알 사람은 없었다. 그러한 덕호를 마가울의 희미한 해빛이 부드러이 비쳐주고있었다.

조국의 지도앞에서

김형준

누구나 조국의 지도앞에 서면
나서자란곳
어린시절 추억이 깃든 땅
고향을 그려보리라

누구나 지도를 펼치면
어데가 살기 좋던가?...
돌아본고장 마음속에 밟아보며
잊지 못할 추억을 더듬어보더라

산에 가면 산에 정들어
산속깊이 안기고싶고
바다에 가면 바다에 정들어
갈매기되어 살고싶었다

마음도 시원히-
장대목을 베여넘긴 저녁
하얀 회벽칠한 집엔 들어서면
정답게 맞아주는 벌목공의 안해들
어깨에 묻은 톱밥을 털어주는
림산마을의 지녀는 얼마나 좋던가

바다가마을에 가도 생활의 닳을 내리고싶고
별방에 가도
마음중은 이고장사람들과 처마를 잇고싶어
내 그리도 즐겨 말하지 않았던가
여기가 제일 살기 좋은고장이라고

가꾸어야 행복이 있고
지켜야 보람있어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친
공기도, 나무도, 햇빛도
모두가 내것인 조국땅
그래서 살기 좋은고장이 많은가!

내 두팔 벌려
넓으나넓은 조국의 지도를 쓸어보면
손끝에서 다듬어낸 비단인듯
볼수록 아름답고 귀하고
놓치면 영원히 잃을듯
나의 피 나의 숨결이 흐르는 땅이어

그래서 아, 그래서 조국은 그리도 귀중한가?!
내 돌아본고장보다 못본고장이 더 많아도
눈 감고 어느 지명을 짚어보아도
아, 그곳에서 약동하는 생활의 맥박이
내 심장속에 툭툭 뛰어드나니

어린시절의 추억이 아름답다고 해도
나이 들수록 더 아름다와만지는 조국에 대한
추억
그것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시는
아버이수령님의 사랑이 있어
조선, 나의 조국의 지도여
너는 천만년 세월에도 퇴색하지 않을
우리 수령님 그리신 가장 아름다운 화폭!

새날의 첫걸음

리영복

이슬 머금은 꽃송이들이
아침인사하듯 고개를 젓고
얼굴마다에도 웃음꽃 함뿔 피여
온통 꽃속에 묻힌 거리

미끄러지듯 달리는 차들도
줄지어 꼬리를 물었는가
꽉 차흐르는 사람의 물결
누구나 하나의 박자에 발맞추는듯

네거리에 단정히 선
교통안전원처녀의

춤추듯 절도있는 동작에서도
생기가 풍기고

표식등 번쩍이는 건늬길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와 같이
정연히 건느는 모습에서도
새아침의 즐거움이 넘쳐라

그 바쁜길에서도
기울어진 길가의 꽃도 바로세워주고
길 건느는 어린 학생 손목도 잡아주는
그 미쁜 마음들이

명절처럼 흥성이는 거리 !

마치 훈련된 정연한 대오인듯
거리와 골목마다 차고넘쳐
유유히 흘러가는 생활의 흐름이여 !

누구나 드바빠 움직이는 속에서도
마치 약속이나 한듯
서로서로 양보하며
사람마다 깊은 자각속에
스스로 지키는 규정과 질서-

이것은
인민이 주인된 나라
인민의 법을 지키는 참된 도덕

행복이 커갈수록
더욱 아름다워지는 우리의 료리 !
출근길이 흥겨울수록
새날의 로동은 더욱 흥겹고
이렇게 하나의 호흡속에
첫아침이 시작되면
조국의 큰결을 혁신으로 수놓아지거니

들끓어도 질서정연한
아름다운 거리
이것이 새아침 이 땅의 모습이다
활기와 힘에 넘친
그 씩씩한 발걸음들
이것이 내 조국이 내딛는
새날의 첫걸음이다 !

배가 떠난다

주광남

동해기슭에도 바다로 한끝
무수단에도 외진 포구
온 마을이 떨쳐나 흥성이누나
배우에선 어로공들
물에서는 너인네들

도마도상자며 꾀고추다래끼며
성수 나서 이고달는 가공반너인들
웃음어린 목소리에 포구가 들썩인다
고기 한배 퍼올리기전엔 축낼 생각 말라누나

사택마을 모퉁이엔 다소곳이 선 처녀
굳이 당겨내는 활달한 아주머니
배를 향해 웨치누나, 무전수총각 나서라고
수집음에 붉어진 처녀의 얼굴에도
떠들썩한 웃음속에 기쁨의 잔물결 일고

때에라 성급히 달려온 통신원아바이
전보장 흔들며 기관장을 부른다
리병원에서 생남했단 전보라고
아들이름이나 지어놓고 나가라고
그래서 또 터지는 포구의 환성이여

멋이로구나
바다에 출렁 물결을 일으킬듯
웃음속에 들끓는 포구의 모습
나무람 말자, 너인들의 목소리 청이 높다고
바다를 타고왔는 어로공들이

이런 땀 애들처럼 들썩인다고

예전엔 말대신 눈물이 앞서
말이 없었단다
풍랑우에 쪽배는 바다의 칠성판이라
출항때면 포구의 너인네들
설음의 치마폭에 얼굴만 감쥔거니
떠나는 어부들도 배전우에 묵묵히
쓰디쓴 염초만 굵게 말아태웠단다

보아라, 오늘엔 배전이 물에 잠길듯
웃음에 환희에 마음조차 잠길듯
귀한 물건 귀한 사람 가득히 실리거니
해풍에 다슬린 억센 가슴인들
말로써 어이하리, 북받치는 걱정을

아, 그 누가 만선만이 포구의 경사라더냐
어버이수령님 은혜로운 품속에선
출항부터 기쁨으로 들끓는 경사라
포구에 실어올 고기더미에 앞서
조국에 넘치는 행복 한배가득 싣고가거니

목메인 어로공들 감격의 흐느낌인가
가슴을 흔드는 긴 배고동소리-
아! 배가 떠난다, 배가 떠난다!
풍랑 거센 대양만리 그 어데 가도
언제나 후더이 가슴 덥혀줄
어버이수령님 한없는 사랑을 싣고...

남조선부르조아 반동시문학의 반인민성과 퇴폐성

박종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은 앞으로 계속 문학 예술분야에서 반동적부르조아사상을 반대하는 견결한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사회주의적사실주의의 창작방법에 튼튼히 서서 창작활동을 하며 자연주의, 예술지상주의의 표현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것입니다.》

미제강점하의 남조선에서는 인민의 리익과 배치되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인민적이며 반사실주의적인 부르조아반동시문학이 판을 치고있다.

남조선의 부르조아시문학은 미제의 극악한 식민지민족문화말살정책과 전두환군사파쑈도당의 반동적인 문예정책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반동화되고 날이 갈수록 파국적인 상태에 빠져들어가고있다.

1

남조선의 부르조아반동시문학의 반인민성과 퇴폐성은 무엇보다도 그 주제사상적내용의 반동성과 퇴폐성에서 나타나고있다.

남조선 부르조아시문학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여 공허하고 허황하며 반동적이며 퇴폐적인것으로 일관되어있다. 즉 그것은 썩어빠진 남조선사회현실의 미화, 인간과 생활에 대한 훼손과 모독, 비애와 영탄, 허무와 절망, 죽음, 종교와 미신, 패륜패덕 등 온갖 허위적이며 반동적인 사상과 말세기적인 기분을 퍼뜨림으로써 남조선인민들을 무기력하고 부화타락하게 만드는 정신적마취제, 악취풍기는 독소로 되고있다.

남조선의 부르조아반동시인들이 써내는 작품들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퇴폐적인가 하는것은 몇개의 피상한 시제목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목탄화 몇점》(Ⅰ 반지 없는 손, Ⅱ 음악, Ⅲ 비중, Ⅳ 밤의 가발, Ⅴ 8과 1/2), 《50세의 더러운 손으로 50행의 거짓말을 씁니다.》, 《꽃동설》, 《한잎의 여자》, 《목숨은 어찌하여 왔다가》, 《담배를 보는 일곱가지 눈》 등등.

이러한 몇개의 제목을 가지고서도 우리는 남조선의 부르조아반동시문학의 추악성과 퇴폐성의 일단을 엿볼수 있다.

여기에는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와는 아무런 연도 없는 반동적인 착취계급들의 저속한 취미와 퇴폐적이며 반동적인 사상독소가 악취를 풍기고

있을뿐이다.

문학예술의 가치와 의의는 결국 그것이 인간과 그의 생활을 얼마나 진실하게 반영하고있는가에 의하여 그리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에 어떻게 이바지하고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참다운 문학은 어디까지나 인민들의 현실생활과 자주성을 위한 그들의 투쟁을 옹계 반영해야 하며 인민들을 뒤로 돌아가라고 할것이 아니라 더욱 행복한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라고 호소하여야 한다.

남조선의 부르조아반동시문학은 미제와 그 앞잡이 전두환군사파쑈도당에게 복무하는 반인민적이며 배족적인 본성으로부터 인간성격과 현실생활에 대한 진실한 반영을 반대하고 저속한 취미를 추구하거나 퇴폐적이며 반동적인 사상을 설교함으로써 남조선인민들의 사상의식을 쪼먹고 그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투쟁에서 물러서게 하는 작용을 하고있다.

남조선의 부르조아반동시문학의 반인민적이며 배족적인 본질은 현실생활의 반영과 사상의 전달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외면하는데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오늘 남조선사회는 미제의 강도적인 식민지예속화정책과 력대피괴도당들의 야만적인 폭압책동으로 말미암아 부정과 부패, 허위와 기만, 강도, 살인 등 온갖 사회악이 지배하고 굶주림과 가난, 실업과 자살, 무권리와 학대가 휩쓰는 전대미문의 생지옥으로, 무시무시한 인간도살장으로 전변되고있다. 동시에 남조선은 자주성을 위한 투쟁, 민족적및 계급적 예측에서 벗어나기 위한 남조선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이 그칠새없이 벌어지고있는 분노의 땅, 항거의 땅으로 몸부림치고있다.

남조선의 시인들이 인민들의 고통과 불행을 두고 조금이라도 가슴아파하고 겨레의 운명을 걱정한다면 남조선사회의 비참한 현실과 그것을 벗어난 미제와 그 주구 반동적착취계급들의 죄악성을 폭로단죄하는 애국애족적인 감정을 이렇게나저렇게나 자기 시에 반영하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그러나 겨레와 인민대중을 등지고 미제와 그 주구놈들에게 추종하는 남조선의 적지 않은 부르조아반동시인들은 남조선사회현실을 외면하고 순수 자연을 노래하는데 몰두하고있다.

무수한
 사선
 산은 하이얏다
 문득 한도래 물오른 가지
 갯 밤벌 나뭇
 산 짙레
 셋빨간 열매

멧새도 드물게 우는
 산마루에
 걸리는
 구름

시 《점경》

여기서도 보는바와 같이 남조선의 부르조아시인들은 자연을 노래하는 경우에도 그것을 통하여 인민들의 보람찬 생활을 보여주거나 애국심을 강조하는것이 아니라 자연을 위한 자연 《순수자연》을 객관적이며 냉담한 태도로 그리는데 만족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남조선의 부르조아반동시문학에서 볼수 있는 특징의 하나는 현실생활을 떠난 시인의 무의미하고 허황한 《체험세계》를 펼친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있는것이다.

부르조아시인들이 자기들의 유식과 《고상한 취미》를 뽐내면서 시작품에 즐겨 끌어들이는 허무맹랑하고 환상적인 《명상》의 유희도 병적이고 퇴폐적인 사상적내용을 분칠하기 위한것으로서 남조선인민들위 주목을 사회정치적문제에서 떼여 내려는 반인민적인 목적과 결부되어있다.

그러한 실례의 하나로 시 《최후의 음악》을 들수있다.

세자아르 프랑크의 음악 《바리아송》은
 야간 파장
 신의 전원
 심연의 대체국으로 올려퍼진다

밀레의고장 바르비종파
 그 뒷장을 넘기면
 압연의 변방과 련산

멀리는
 내 령혼의
 성곽

여기에는 객관세계를 떠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명상》 순전히 시인의 개인적 《환상》이 펼쳐져있을뿐 작품의 내용도 알수 없다.

이처럼 현실생활의 반영과 사상의 전달을 거부

하는 남조선의 부르조아반동시인들은 보통사람들로서는 도저히 리해할수 없는 공허하고 무의미한 《명상》을 그리는데 열중한다.

그들에 의하면 《명상》은 시인의 《의식해방》에 의하여 생겨나며 그 《계기와 결합》은 전혀 《비현실적으로》 진행된다. 이것은 부르조아반동시인들의 《명상》이 인민들의 현실생활과는 아무런 관계도, 의의두 없는 백해무익한 정신적유희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남조선의 부르조아반동시인들이 사람들의 사고를 어지럽히고 정신세계를 쪼먹는 허황하고 무위미한 《시》를 만들어내는 기저에는 현실과 예술의 관계, 예술의 사회적기능에 대한 반인민적이며 반사실주의적인 관점이 놓여있다.

부르조아반동시인들은 예술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으며 반영할수도 또 반영할 필요도 없으며 그리고 인민대중이 예술을 리해하든 리해하지 않든 상관할바가 아니라고 떠벌이고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술의 대상으로서의 유일한 《현실》은 객관적실재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 즉 《의식의 미궁》인것이다. 그들은 예술을 생활과 대립시키면서 예술이 객관적현실을 반영하는것이 아니라 《의식의 미궁》 즉 《무의식》이 세계를 반영하는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보통사람들이 읽고도 잘 리해할수 없는 거기에 《오묘한 시의 경지》가 있고 《철학》이 있다고 뇌까린다.

이처럼 남조선의 부르조아반동시문학의 반인민적이며 반사회주의적인 본질은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에 배치되고 그들에게 리해될수 없는 허황하고 퇴폐적이며 반동적인 주제사상적내용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다.

2

남조선의 부르조아반동시인들의 반인민적이며 반사실주의적인 관점은 그들이 써내는 작품들의 퇴폐적이며 반동적인 사상적내용뿐아니라 기형적이며 추악한 형식도 규정하고있으며 그것을 완전한 파탄으로 이끌어가고있다.

시의 생명은 의의있는 사상적내용을 세련된 형상으로 밝혀내는데 있다. 어떤 사상적내용을 얼마나 높은 시형상으로 그려내는가에 따라서 작품의 사상예술성과 교양적가치가 좌우된다.

남조선의 부르조아반동시문학이 인민들의 령대와 버림을 받고있는것은 주요하게는 무의미하고 허황하며 퇴폐적인 내용을 까다롭고 기형적인 형식으로 표현한데 기인한다. 이런데로부터 부르조아반동시작품들은 아무리 읽어보아도 그 내용을 알수 없고 표현 형식과 수법이 또한 괴상하고 기형적이어서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자아낼뿐이다.

남조선의 부르조아반동시문학에서 볼수 있는

형식상특징의 하나는 운률과 서정성이 무시되고 사상적내용이 흔히 《형태적양상》을 띠고 표현되고있는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부르조아시인들이 《잠재의식》에서 흘러나오는 《명상》의 《복잡하고 심오한 내용》을 형상하는데는 청각적 운률적 방법보다 시각적 회화적 방법이 훨씬 유리하다고 간주하는 것과 관련된다. 여기로부터 그들은 시창작에서 음악적 《운률》과 서정성을 배격하고 시각적형상 《순수회화성》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있다.

서정성은 시의 본성이며 생명이다. 생활의 정서적반영이며 시인의 심장의 토로인 시에서 사상은 정서를 통하여 흘러나와야 한다.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공감시키는 시형상의 힘은 바로 거기에 생활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정서가 풍부하게 흘러넘치는데 있다.

남조선의 부르조아반동시인들이 시에서 음악적 《운률》과 서정성을 배격하는것은 사실상 시의 고유한 본성을 거부하는것으로써 자기들의 무의미하고 공허한 《명상》을 표현한 《시》를 변호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하고있다.

부르조아반동시인들의 작품에서 《시각적형상》이란 생활의 생동한 반영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현실의면과 무의미하고 병적인 《잠재의식》의 표현기법이다. 그들에게는 생활을 떠난 주관적이며 자의적인 《잠재의식》의 광란을 표현하기 위하여 《시의 회화성》이 필요하며 《시각적형상》이 요구되는것이다.

남조선의 부르조아반동시인들에게 있어서는 언어도 사람들의 사상을 표현하며 진실을 전하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비현실적이며 추상적인 《잠재의식》의 광대, 《자의식》의 란무를 형태화하며 회화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되고있다.

이에 대해서는 부르조아반동시인 오규원의 시집 《분명한 사건》에 실린 몇편의 시들을 보는것만으로도 잘 알수 있다.

그결에서
계절은 귀로를 덮고있었다
모음을 분분히 싸고도는
의식의 나무들이
그날
서서 하루를 이고있었다
(시 《겨울 나그네》에서)

추상의 나무가지에
살고있는
언어들중의
몇몇은
위험한 나무가지사이를
날아다니다

떨어져죽고
(시 《몇개의 현상》에서)

그의 시들에 의하면 언어가 사물현상을 반영하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물현상이 언어에 종속되어있다.

그리고 나무는 생물학적존재가 아니라 그 가지사이를 언어들에 날아다니다가 떨어져죽는 《추상》의 나무들이다.

여기서는 언어가 주어진다면 나무는 술어인데 주어는 술어에 의하여 조건지어지며 또 주어가 없는 술어란 아무런 의의도 가지지 않는다는것이다.

바로 이러한 거꾸로 선 관점으로부터 그의 시에서는 《자의식》의 분비물인 비정상적인 사고와 내면독백, 기상천외의 환각 등을 수식하는 엉뚱한 비유와 가짜 형용어를 《환상적》인 비교와 은유, 의인법 등이 마구 섞여지고있다.

그의 시 《현상실험》에서는 《달아빠진 인식의 길가》, 《망명정부의 청사처럼 텅빈 상상》, 《언어는 가끔 울리는 퇴직한 외교관택의 초인종》등 비유가 섞여지고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리해할수 없다.

이처럼 부르조아반동시인들은 현실세계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무의식》 《관념》의 세계, 관념으로서만 존재하는 《현상》들을 자기만이 알수 있는 비유와 형용어, 은유 등 수단으로 표현하고있다. 이것은 사실상 시가 아니라 정신병자의 머리에 떠오르는 떠벌임의 기록이며 허무맹랑한 언어유희에 지나지 않는다.

앞에서 본 오규원의 시들을 통해서도 알수 있는것처럼 남조선의 부르조아반동시인들은 《참신한 형식》, 《세련된 기교》 등의 허울좋은 구실 밑에 시창작에서 문법과 작시법의 초보적인 요구를 무시하고 복잡한 비유들, 애매몽롱한 상징적 수법들을 람용하고 논리적연관을 무시함으로써 시형식을 완전히 파괴하고 시에서 무엇을 말하려는것인지 전혀 알수 없게 하고있다.

부르조아반동시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것은 문학이 무엇을 반영하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아니라 형상의 체계들과 표현수단, 표현기술들을 어떻게 《기발》하게 착상하고 꾸며내는가하는것이다. 말하자면 작품의 사상적내용이나 생활반영의 진실성이 문제로 되는것이 아니라 형식의 《묘미》와 표현의 《기발성》에 모든 의의가 부여되고있다.

남조선의 한 부르조아평론가는 《인습의 탈피》라는 글에서 시의 가치는 《인습적인 리듬에서 탈피한》 독특한 형식을 만들어내는데 있다고 하면서 의미상으로는나 공간적으로 전혀 편관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들을 무질서하게 라렬하는

형식주의시문학의 타락상을 합리화하면서 그 레로써 시 《천리향》을 들고있다.

부르조아반동시인인 김춘수의 시 《천리향》은 그의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내용이나 형식이나 애매몽롱하고 이해하기 어려운것이 특징적이다.

꽃망을 하나가 가라앉는다
얼음장을 깨고 깊이깊이
가라앉는다
어둠이 물살을 그쪽으로 몰아붙인다
설달에 홍역처럼 돌아난
꽃망을
저녁에는 함박눈이 내린다
마을을 지나
잡목림처럼 너머왔다간 사람은
아무래도 발자국을 남기지 못한다

이 시에서 《얼음장을 깨고 깊이깊이 가라앉는다》 꽃망을, 《설달에 홍역처럼 돌아난》 꽃망울사이 그리고 《마을을 지나 잡목림처럼 너머왔다간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의미상 또는 공간상연관이 없다. 그리고 여기서 《홍역》이나 《잡목림》은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이 어떻게 되어 꽃망울이나 사람과 결부되는지 정상적인 사고로써는 알도리가 없다.

그런데도 상기 평론가는 《<홍역>이란 단어가 묘하게 박혀있다》느니 《<마을을 지나 잡목림처럼 너머왔다간 사람은 아무래도 발자국을 남기지 못한다>가 갖는 리얼한(사실적인) 맛과 더불어 내면에 향수된 암시성은 시적여운의 심도라 할수 있다》고 하면서 마치도 이 시가 뜻이 깊고 철학이 있는 작품이라도 되는듯이 떠벌이고있다.

김춘수의 시 《골동설》을 봐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하늘은 늘 그득합니다
가을에도 시들지 않는 나무
천리향
바람처럼
물처럼
지금 멀어져가는것은
작디작은 락차입니다
락차뿐입니다
보세요
아흔살에 이제 눈뜨는
땅벌레 한마리

보는바와 같이 시에서 《탐구》된 이른바 《철학적인 세계》는 현실생활과 유리된 시인의 《관념》이나 《자의식》으로서 그것이 무엇인가는 알수 없다. 그런데 부르조아반동시인들과 평론가들

의 견해에 의하면 보통사람들에게 리해될수 없는 그 점에 시의 《철학적》이 있다는것이다. (상기 평론가는 이 시를 분석하면서 《작디작은 락차》가 이 시인에 의하여 《발견》된 《참신한 표현》이며 이것으로 하여 시의 《가치》가 담보되고있는듯이 떠벌이였다.)

정상적인 사고능력을 상실한 부르조아반동시인들의 황당무제한 《관념》의 유희, 《자의식》의 란무는 시 《그렇게 몇포기》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여기 한포기
저기 한포기
미친년처럼 그렇게 몇포기
길바닥에 풀이 자라나 기존의 길을 덮어버리기를 바라고있다.

(시 《그렇게 몇포기》에서)

길바닥에 자라나는 풀을 두고 현실을 노래한것으로 짐작되는데 우리에게 안겨오는것은 《미친년처럼 그렇게》 란무하는 시인의 《관념》의 세계뿐이다. 더우기 시는 《길바닥에 풀이 자라나 기존의 길을 덮어버리기를 바라고있다》는 구절로 끝나고있으니 무엇을 말하자는것인지 도저히 리해할수 없다.

이처럼 부르조아반동시인들은 《기발한 착상》과 《참신한 형식》 등의 미명하에 아무리 읽어보아도 알수 없는 허황하고 무의미한 내용을 기형적이며 괴상한 형식으로 표현한 시 아닌 《시》를 만들어냄으로써 독자들로부터 랭대와 버림을 받고있다.

남조선의 부르조아반동시문학의 퇴폐성과 파국상은 암호처럼 복잡하고 애매몽롱한 은유를 비롯한 각종 비유법과 상징적표현을 망탕 쓰고있는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그러한 실례의 하나로 시 《환상》을 들수 있다.

시는 《달에서 내려다본 내 집은 마술사의 바늘끝으로 자국낸 아주 작은 점끝 하나》 이렇게 상황을 설정한후 《인생론적명상》을 펼치고있다.

생선알같이
작은 점안에도
웃음과 울음이 알집으로 돌아
우리들의 사랑과 한숨이
영켜 떨어지지 않는것을
보았네
더 가질것도 차지할것도
눈 흘길것도 빼앗길것도
다만 더욱 영킬것만
보았네

(시 《환상》에서)

이 시에서도 우리는 애매몽롱한 은유와 상징적 표현 등 기형적인 수법이 작품의 퇴폐적이며 허황한 내용을 더욱 두드러지게 또는 심각하게 하는데 적극적으로 작용하고있음을 볼수 있다.

시의 서두에 제시된 상황부터가 환상세계에서와 같이 허황한것이거니와 《생선알같이 작은 점안에도 웃음과 울음이 알집으로 돌아》 등 엉뚱한 표현들이 섞여지고있는데 이것은 인간에 대한 왜소화와 허무의 꾸밈외에 다른것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허황하고 아리송한 비유나 상징적표현들이 작품의 내용을 더욱 모호하고 퇴폐적인것으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체념》과 《자폭》을 고취하고 현실에 대한 계급적안목과 비판력을 무디게하는 연막이나 마취제와 같은 해독물로 되게 한다는데 있다.

이와 같이 오늘 남조선의 부르조아반동시문학은 그 기형적이며 광적인 형식과 수법에 의하여 더욱 외국되고 비속화된 내용의 허황성과 반동성으로하여 사회적인 비난과 배척을 받고있다.

남조선의 한 평론가까지 《엘레지와 정직성》이라는 글에서 최근 남조선시단의 침체상태를 개탄하면서 부르조아시인들의 작품들을 읽고나면 흥분이나 즐거움보다 허전함과 권태로움에 빠지게 되는것은 《거개의 작품들이 무기력하고 시적에스프리(재치, 기지)나 생동감이 없으며 진실성이 결여된것》 때문이라고 지적하고있다.

남조선의 부르조아반동시문학이 침체와 파국적인 상태는 어렵고 까다로운 시어들 이른바 《현대제의 난해성》과도 관련되어있다.

《현대시의 난해성》과 관련하여 남조선의 시만에서와 평론계에서 적지 않게 논의되고있으나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있을뿐아니라 일부 경우에는 난해성을 긍정하고 조장시키는 현상까지 나타나고있다.

남조선의 평론가 원형갑은 《시를 알기 쉽게 써야 한다는 주장을 반대하여》라는 글에서 《...시문학 그자체를 종국적으로 알기 쉬운 말로 생각하는것은 그 또한 일종의 시적위기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듯하다》고 전제하고 문학이 인식교양적가치를 가지고 어떤 계급이나 계층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는 요구를 그 어떤 《폭군현상》이라고 모독하면서 《그 <알기 쉽게>란 말이 얼마나 무서운 시의 거부현상이며 빠지기 쉬운 함정인가를 알수 있다》고 떠벌였다.

시를 고유한 우리 말로 알기 쉽게 명백하게 써서 대중에게 잘 이해되게 하는것을 《일종의 시적

위기》로, 무서운 《시의 거부현상》으로 보는 이 평론가의 주장은 인민대중을 깔보고 자기 민족어를 업수이 여기는 남조선 부르조아반동시인들의 반인민적이며 민족허무주의적인 관점과 립장을 그대로 대변하고있다.

바로 이러한 반동적인 부르조아평론가들의 꼬드김과 부추김 밑에 남조선의 부르조아반동시인들은 《난해시》를 계속 만들어내며 시문학을 더욱더 타락시키고 파국으로 이끌어가고있다.

우리는 앞에서 든 실례들을 통하여서도 남조선의 부르조아반동시문학이 얼마나 퇴폐타락하고 《난해》한것으로 되어있는가를 짐작할수 있다.

《난해시》의 특징은 뜻이 통하지 않고 말이 닿지 않는데만 있는것이 아니라 또한 문법의 무시, 언어배렬의 무질서, 외래어와 조선말을 마구 섞어쓰는데서도 나타나고있다.

그들은 《싱거러운 거목들 언덕은 언제나 천천히 가고있었다》와 같이 서사법상 규범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며 《노오란 평화가 모이를 즐기고있다》

《혁명된》《미온하는》등 명사를 제멋대로 《활용》하거나 가짜형용어를 만들어내고있으며 한 단어안에 음절사어, 단어와 단어사이, 행과 행사이, 련과 련사이의 접속과 분리를 제멋대로 하고있다.

또한 그들의 시에서는 《엘튀아르》, 《스카이라운지》, 《마돈나》, 《무스메》, 《사시미》 등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등 외래어를 섞어 쓰는것은 보통 현상이고 지어 외국말표기 그대로 쓰고있는 현상까지 흔히 볼수 있다.

이 모든 어지럽고 망측한 문장 구조와 표현들이 우리의 민족어를 어지럽히고 모독하며 우리시의 고유한 작시법상규범을 란폭하게 파괴하면서 그들의 시를 《난해》하고 기형적인 시로 만들고있다는것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제반 사실은 오늘 남조선의 부르조아반동시문학이 얼마나 부패타락하고 파국적인 상태에 빠져있는가를 뚜렷이 보여주며 그것을 철저히 비판폭로하고 청산하는 기초우에서만 진보적이며 인민적이며 사실주의적인 시문학의 건전한 발전이 이룩될수 있다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우리는 위대한 주체사상과 주체적문예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유일한 지침으로 하여 남조선의 퇴폐적인 부르조아문예조류의 반동적본질과 해독성을 철저히 폭로하며 그 자그마한 요소도 우리 내부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우리의 주체문학예술을 건전한 토대우에서 더욱 찬연히 개화발전시켜야 할것이다.

건설의 나날

백의선

망망한 바다가 우리의 건설장-
머리우에선 흰 물새가 노래하는데
천리벌의 풍년새를 마음에 그리며
우리는 돌제방을 쌓는다 쌓는다

길길이 일떠서며 달려오던 파도가
굴착기 무쇠팔뚝에 산산이 부서질 때
바다가득 퍼지는 웃음소리 웃음소리...
우리는 사랑한다, 광만의 이 건설장을

감탕에 무젖은 작업복이 우리는 좋다
투쟁하며 사는것이 우리는 좋다
청춘도 먼 한생도
저 돌격대기발아래 다짐했거니
드센 해풍과 화로불을 즐기며
아름다와진 우리의 청춘이다

구슬땀 흘러흘러
화강석 돌무늬에 스민다, 새겨진다
종구나, 시대앞에 리없는 삶이어
가는 길 평탄하지 않아도

량심엔 그늘이 없고 마음은 깨끗해

앞에는 비바람도 폭풍도 있으리
파도가 덮쳐드는 순간도 있으리
불타라, 심장이여
시련이 있다고 가지 못한다면
멀고 먼 길이래서 못간다면
당의 품에 어이 영광을 누리라

우리 노래부르자
청춘은 한시절이 아니다
비바람속에 피어나는 청춘들의 웃음은
노을에 비껴 시대의 하늘을 물들이고
우리 안고온 건설의 대동음은
새 땅의 장엄한 첫 노래로 되리

웃음과 함께 노래와 함께
우리는 바다위에 시대의 새길을 편다
전변의 80년대에 바치는
우리의 꽃나이를 다 합쳐
새땅의 영원한 년대기를 새긴다

가장 가까이에 외 1 편

럼우봉

나무잎은 단풍져
하나 둘 떨어지고
자식들은 다 자라
내결을 떠나가도

언제나 그 어데서나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것
나에겐 있나니
그것은 어머니던가
그것은 사랑이던가

포화의 그날 내 적후에 홀로
저 하늘가에 사라지는 기러기떼처럼
모든것 내결에서 멀어져갔을 때
그 순간에도 나를 지켜준것
그리움에 사무쳐 바라보던
저 산너머 반짝이는 북두칠성이었던가

내 때로 집을 멀리 떠나
오직 따르는 그 진정 하나로

민음의 초석을 교여올리며
낮선고장에 려장을 풀었을 때
그 나날에도 뜨겁게 미쳐온 손길이 있었나니

내 삶의 어제와 래일까지도 다 안고
이 가슴속에
삶의 광망으로 환히 흘러들던
당중앙의 그 불빛이어 !

정녕 나에게
화려한 오늘만이 있었다면
가장 간고한 날에 안겨보지 않았다면
영영 모르고 살았으리
당은 나에게 그 무엇인지...

당은 나에게
주어도 주어도 처음인듯 다시 또 주는
다심하고 강직한 그 마음처럼
먼 적후에서도 안고살 조국을 주고
낭끝에서도 꺾이지 않을 신념을 주고
죽어서도 빛날 생명을 주는것

그때문에 그때문에
세월이 갈수록 마음속에 더 가깝고
어려워도 주저함이 없이
웃음으로 이긴 이 전사

당이어,
우리 당이어
그대가 나에게 그 무엇인지
이제는 말할수 있어라-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어머니보다도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그 사랑보다도
더 가깝고 더 질게 스며있는것

한시도 떨어져 살수 없고
순간을 버리면 영원을 잃는
아, 그대는 가장 가까이에
하나로 고통치는
나의 심장이라고

추억

어데선가 멀리서
매없이 찾아와
마음의 문 두드리는것

추억은 온다더라
내 고향 시내가의
물장구소리에서

추억은 온다더라
남먼저 헤쳐 걸은 개발지의 오솔길
그 아침이슬방울에서

정녕 온다더라
식지 않은 채무지 지나

향기 짙은 꽃밭길로

거기엔 사랑도 의리도
인생도 력사도 다 깃들여
가슴은 노상 설레이는것

허나 한발을 헛디딘다면
추억의 흰돛이 아름다운
생활의 그 바다를 잃거니

추억은 못어길 유언처럼
세월이 가면서 가슴에 남긴 말
아, 오늘을 빛나게 살라고 !

분노의 글발

리재준

떠나기전 역전광장에서
다시 바라보는 신천의 하늘에
부딪치듯 안겨오는
분노의 글발
-미제침략자들을 타도하라!

박물관 진렬장앞에서 틀어진 주먹
상기 풀지 않은채
런꽃봉마루에서 불을 담던 눈으로
내 저 글발을 다시 읽는다

아, 불타던 군당방공호 세멘트벽에
당원들이 피로 새겼던 저 글발
최후의 순간에 나아린 소년이
구월산의 형에게 복수를 부탁했던
편지의 저 글발이

빼앗긴 엄마의 젖품을 찾으며
차디찬 콘크리트바닥을 허비던
아기들의 그 손끝에 흐르던 피방울이
모이고 합쳐져 굳어졌는가
신천의 하늘에 저 글발은

떨리는 주먹을 부르짖고
박물관의 계단을 내리며
한껏 달아오른 나의 가슴을
터쳐준다 저 글발이

400어머니 무덤앞에서
102어린이 무덤앞에서
불은듯 내딛지 못하던 나의 발걸음
저 글발이 떼어준다
-미제침략자들을 타도하라!

글발이여, 분노한 신천의 웨침이여
너는 죽어서도 원썩을 갚으리라던
갇기전엔 감을수도 없으리라던
그네들의 번쩍이는 눈빛인양
이 가슴에 복수의 총창을 안겨주거니

아, 거리엔 행복이 물결쳐도
하늘은 끝없이 맑아도
이 땅엔 겨레의 원한이 서려있어
신천은 억세게 추켜들었다
-미제침략자들을 타도하라!

부탁 아닌
명령을 주는 저 글발에
내 심장이 불탄다
이제부터 내 걷는 길은 복수자의 길
이제부터 내 하는 일은
백배로 원썩 미제를 죽치는 판가리싸움

아, 들어설 땐 선서처럼 따라읽고
떠나갈 땐 명령처럼 받아외운다
-미제침략자들을 타도하라!